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879
www.baepr.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903-3010

ISSN 1554-6942



리틀 한인타운이란 명칭이 무색하게 최근 한국 유학생들보다 중국 학생들이 더 눈에 많이 띄는 하버드 애비뉴

하버드 애비뉴 한인 학생들 모두 어디갔지?

한국 유학생 보다 중국유학생 많아
(코리안 타운)에 한국 유학생 감소
방학 중, 개학 가까워지면 회복 관망

월 초면 9월 학기 준비를 위해 온 한국 유학생들이 군데군데 눈에 띄었지만 최근 이들의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동양계인 중국 학생들만 늘었다.

울스톤 중심에 위치한 하버드 애비뉴는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잘 알려진 '한인 먹자골목'으로 유명하다. 길을 걷다 보면 한국어가 들릴 정도로 한인들의 모습이 흔했다. 보스톤으로 유학을 왔던 한인학생들은 하버드, MIT, BU(Boston University), BC(Boston College)의 중간 지역으로 학생

들이 주로 거주하는 울스톤의 하버드 애비뉴를 애용 했었다. 한인 유학생들의 추억을 만들게 해주었던 울스톤 하버드 애비뉴의 변화에 한인들은 당혹스럽다.

노스이스턴(Northeastern) 3학년 재학생인 A씨는 "요즘 하버드 애비뉴에 한인들 모습 찾아보기 힘들다"며 "확실히 누가 보기에 한인들이 예전만큼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최근 들어서 친구들이랑 집에서 술을 마시거나 외국식당을

▶▶2면으로 계속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함요한 기자 = 소위 (보스톤의 한인타운)이라 불리는 울스톤 하버드 애비뉴 풍경이 바뀌었다. 8

세일즈 택스 할러데이 효율적인 쇼핑방법



8월 15일과 16일 시행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함요한 기자 = 매사추세츠주는 오는 15일과 16일 물품을 구입 할 시 부과 되는 세금을 면제해주는 세일즈 택스 할러데이 (Sales Tax Holiday)를 시행한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시행되어 왔던 세일즈 택스 면제 법안이 올해도 제정되어 많은 주민들이 이 기간을 기다리고 있다. 이 법안에 대해 미리 알아 두면 편리할 몇 가지 효율적인 쇼핑방법을 소개한다.

우선 세금을 면제 받을 수 있는 물품의 가격은 각 \$2,500 이하여야 한다. 여러 물품이 합쳐서 \$2,500 초과하더라도 각각의 물품이 \$2,500을 넘지 않으면 세금이 면제 된다. 이어 \$2,500 이 넘는 물건이라도 할인을 통해 \$2,500 이하의 가격에 구입하게 될 경우 구입한 물품의 세금이 면제 된다.

모든 물품의 세금이 면제 되는 것은 아니다. 물품의 가격이 \$2,500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이 부과 되는 물품들도 있다. 자동차, 모터보트, 음식, 휴대전화 서비스, 휘발유, 전기, 담배 등은 가격과 상관 없이 세금이 부과 된다.

▶▶2면으로 계속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무동산 매매·무동산법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kjlaw.com



From \$970
ONLY 1 STOP

보스톤-인천 비수기 왕복항공권

본 금액은 세금과 유류할증료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위의 \$970은 대한항공(뉴욕경유/국내선구간 포함) 요금입니다.
세금 및 유류할증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가격은 2015년 8월 2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출발하는 항공권에 한해 적용되며, 발권기한은 2015년 9월 14일까지입니다.
예약상황에 따라 항공권 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866-619-4223 (Toll Free) / 617-424-8956

•영업시간 : 평일 / 오전 11시부터 저녁 9시까지
•문의전화 : 866-619-4223(Toll Free) / 617-424-8956
•웹사이트 : www.iace-korea.com •카카오톡 : 아이디 IACEKOREA
•24시간 예약센터 : 1-877-489-4223 (영어, 일본어 상담 only)



애나 정
최고의 전문가에게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뉴스타 부동산 전국 1위
주택 · 콘도 · 비즈니스 · 빌딩 · 렌트

MA, NH Licensed
Million Dollar Guild
CLHMS, CRS, CIPS, SRES, ABR

617.780.1675
annajung@nextstarrealty.com



Premier Realty Group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오누리 변호사
Jung H. Oh, Esq.
부동산 전문 변호사

The Law Offices of Sonja B. Salami
Tel: 508.424.0600
Cell: 508.665.1544
Fax: 508.665.1587
juno@sonjasalami.com
7 Muzzey St. Lexington, MA 02421

한인 유학생 숫자 증가 비해 하버드 애비뉴 조용해

▶▶1면에 이어서

간다” 고 덧붙였다.

하버드 애비뉴의 한인 업소 주인들의 시각들도 A 군과 대부분 다르지 않았다. 올스톤 내 한인 식당 ‘복경’의 숙 대표는 “한인 손님들이 크게 줄고 중국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밝혔다. 최근 대학을 졸업한 한인 식당 ‘한마루’의 웨이터 존(John) 씨는 “학생일 때와 비교해 한인 손님들이 예전만큼 많지 않고 중국 손님들이 더 흔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보스톤의 한인 PC방(PC 카페 & 피치웨이브) 관계자 무순 사장 또한 ‘전과 비교해 유학생들이 줄어들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업소 사장들은 이제 8월 초이므로 아직 한인 학생들이 붐비는 시기는 이르다고 지적했다. 하버드 애비뉴에서 가장 오래된 한인업소인 미림식품 박헌정 대표는 “아직 방학이고 8월 말이 되면 한인 학생들이 다시 많아질 것이다”고 긍정적으로 예측했다.

실제로 매사추세츠 주 여학 연수생 이상의 유학생들 수는 줄었다기 보다는 오히려 늘어난 상태다. 국제교육기관(Institute of International Education)의 국무부와 공동으로 매년 작성하는 오픈도어(opendoors) 자료에 의하면 매사추세츠에 재학 중인 한국 유학생은 지난 2014년 현재 3074명으로 2012년 2,764명, 2013년에는 3,068명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스톤 교육원(Boston Education World)의 정준기 원장도 “보스톤으로 유학을 오는 학생들

이 작년이나 제 작년에 비해 줄지도 늘지도 않았다”며 유학생 숫자에 큰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대학 재학 이상의 한국유학생들은 실제적으로 큰 변화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유학생들을 보기 힘든 것은 상대적으로 중국 유학생들이 급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지난 2014년 세비스(SEVIS, 유학생 온라인감시 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중국출신 유학생은 무려 22%가 증가했다. 이와 반면 한국 유학생은 과거와 비슷하거나 극소수 증가에 그쳤다.

하버드 애비뉴 한인 유학생들의 감소는 결국 대학 재학 이상의 유학생들이 아닌 조기유학생들의 감소에 의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보스톤 스트리트 컨설팅(Boston Street Consulting)의 앤드류 원장은 “2008년부터 조기유학생들이 계속 줄어들었다”며 “현재 한국의 경기 불황과 더 치열해지는 한국 시장의 경쟁이 원인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스톤에서 가장 오래된 학원인 보스톤 유학원의 송영두 원장도 “한국의 경기가 나빠진 후부터 5년 동안 조기 유학생들의 수가 눈에 보이게 줄어들고 있다”고 전했다.

한 유학원 관계자는 “조기유학생의 감소율이 작년과 비교해 약 70% 정도 감소했으며 일부 사립학교의 한국 유학생 입학이 반 이상 줄어들었다”고 귀뜸하기도 했다.

jham@bostonkorea.com



찰리 베이커 주지사가 2015년 세일즈 택스 할리데이를 승인하는 서명을 하고 있다

고가 전자제품 또는 가구 구입 적기

▶▶1면에 이어서

세일즈 택스 할리데이 기간 사이 온라인 쇼핑을 통해 구매되는 물품들도 세금이 면제 된다. 단 온라인 쇼핑의 경우 판매자가 매사추세츠 거주자 이여야만 세금이 면제 되기에 구입을 하기 전 세금이 부과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또한 개인 용도로 임대 할 수 있는 물품들도 30일 안에서의 임대대 대한 세금이 면제 된다. 자동차나 모터보트를 임대할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 된다.

레딩에 거주하는 한인 C씨는 “비싼 가구들도 2500불 이하의 분할을 통해 \$2,500에 맞춰 파는 곳들도 있다”며 “세금 리턴을 미리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때마침 세일즈

택스 할리데이 기간에 맞춰 택스 리턴이 나와 비용을 이 기간에 사용하는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많은 소매점에서 이 기간을 위주로 많은 손님을 들이려 큰 할인 광고를 내고 있지만 결국 세일즈 택스 할리데이 기간에 원하는 물품을 제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지에는 소비자의 세심한 비교가 필요하다.

매사추세츠주의 세일즈 택스 할리데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정부 웹사이트(mass.gov/dor/businesses/help-and-resources/legal-library/tirs/tirs-by-years/2014-releases/tir-14-7.html)에서 볼 수 있다.

jham@bostonkorea.com

<진료 과목>

- * 일반 치과 * 잇몸 질환 치료
- * 신경 치료 * 보철 전문
- * 보톡스 & 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www.gracesalonsboston.com

영업 시간 월요일~금요일 10시~7시
토요일: 9시~8시

예약을 하시면 기다리시지 않아도 됩니다.

각종 헤어 컷과 펌 그리고 스킨케어

젊음과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곳!

대릭 스트라이프
브라질 케라틴
Threading
디지털 펌 & 셋팅 펌
아이론 펌
헤어 컬러링
헤어 메니큐어(코팅)
메니큐어 & 피디큐어
확실
얼굴 마사지
웨딩 서비스

Magic Straightening
Brazilian Keratin Treatment
Digital Perm & Setting Perm
Iron Perm
Coloring (GOLD WELL 사용)
Hair Manicure
Manicure & Pedicure
Waxing
Facials
Wedding Services

Grace Salon

프리미엄 토탈 헤어 샵

그레이스 컷팅 클럽

617-623-2430

56 Union Sq. Somerville, MA 02143
한국문화식물원 건물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 17기 민주평통 자문회의 보스턴 협의회 위원들의 모습

민주평통 자문회 보스턴협의회 17기 출범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함요한 기자 = 제17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 보스턴협의회 출범식이 지난 3일 월요일 오후 6시 프레밍햄 소재 웨라튼 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출범식에는 현경대 수석부장을 비롯한 자문위원과 한인 단체장을 포함해 80여명이 참석했다.

애국가 제창으로 시작된 출범식 1부에서는 민주평통 자문회의 의장인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해 현 수석부장이 제 17기 평통 보스턴 협회 위촉장과

위임장을 전달했다. 한선우 신임회장을 포함해 간사에는 황우성, 부회장은 박영찬, 장수인, 이동문씨 등이 각각 위임되었다. 또한 참석한 6.25 참전용사들에게 감사의 표시로 감사장을 전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한 신임회장은 “민주평화통일을 준비하고 민족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겠다” 며 차세대 육성과 발굴에 주력할 점을 강조했다. 이어 한 신임회장은 “오늘 위촉되신 자문위원들도 소명의식과 자긍심을 가지고

민주평통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고 말했다.

이어 김기철 미주 부의장, 엄성준 총영사 그리고 김경원 한인회장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2부에서는 현 수석부장이 격려사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격려의 말을 전하고 민주평통의 활동방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통일 강연회가 이어졌다.

jham@bostonkorea.com

제 2회 보스턴 소수민족 음식 페스티벌 성황리에 개최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함요한 기자 = 보스턴 다문화네트워크 단체 겐트 커넥티드(GetKonnected)가 개최한 제2회 보스턴 소수민족 음식 페스티벌(Boston's Annual Ethnic Food Festival)이 지난 28일 화요일 2백여명의 인파 속에서 성황을 이뤘다.

이번 행사에서는 동남아, 중남미, 도미니칸, 타이 등 다중음식들이 소개되어 참가자들에게 흥미롭고 다채로운 음식이 제공 되었다.

겐트 커넥티드(Get Konnected)의 설립자 콜렛 필립은 “이번 행사에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 주시고 참가해주셔서 진심으로 행복하고 감사하다” 라고 말했다. 이어 필립은 “보스턴 도시의 각 소수민족 사람들이 모여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친목을 형성하는 모습이 뿌듯하다며 행사를 통해서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 는 바람을 전했다.

행사에 참가한 사람들은 보스턴 시내에서 일을 하는 회사원들로부터 소기업 주인, 행사기획자들 외

다양한 직업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특별히 필립과 오랜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 스펙트럼 매니지먼트 사장 테일 콜린스는 ‘제 각각 다른 문화와 배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바쁜 평일와 중 한 자리에 모여 음식을 먹으며 인사를 나눌 수 있는 보스턴 도시’ 에 대한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날 행사에는 레스토랑 윈크앤 나드(Wink&Nod)안에 있는 아킨토(Atkinto)의 주방장 패트릭 이네이지(Patrick Enage)가 함께 했다. 이네이지는 “겐트 커넥티드의 행사를 통해 훌륭한 요리사들을 만나고 음식에 대한 열정을 나눌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 는 소감을 전했다.

이네이지는 황새치(Swordfish) 음식을 선보여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이네이지는 “황새치 음식은 다른 해산물들과 비교해 손님들이 찾지 않아 안타깝다” 며 과소평가 되고 있는 황새치 음식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과시했다.

jham@bostonkorea.com

맞춤식 교육 Mathematics • Verbal • Testing Skill

SAT Plus

Saturdays

Class	Time
SAT II MATH IIC	9:00 AM - 11:00 AM April 4 - May 30
SAT II / AP Chemistry	11:30 AM - 1:30 PM March 21 - May 30
SAT II / AP Biology	2:00 PM - 4:00 PM March 21 - May 30

SAT Plus Summer Schedu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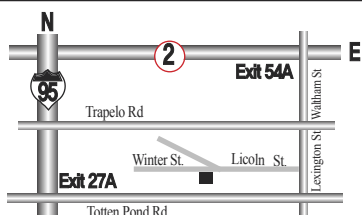
July 6 - July 24

Class	Time
SAT I (old) prep	8:00 AM - 12:00 PM Monday - Friday
SAT I (new) prep	1:00 PM - 5:00 PM Monday - Friday

August 3 - August 21

Class	Time
SAT I (old) prep	8:00 AM - 12:00 PM Monday - Friday
SAT I (new) prep	1:00 PM - 5:00 PM Monday - Friday

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 I 및 SAT II 개인교습



SAT I 및 SAT II 준비 전문학원

TEL: 781-398-1881

2 Winter Street Suite 104, Waltham, MA 02451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이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뉴햄프셔 한인회 광복절 기념식 및 친선 배구대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함요한 기자 = 뉴햄프셔한인회는 대한민국 광복 70 주년을 기념해 오는 8월 15일 토요일 그린랜드 연합 감리교회 (Greenland United Methodist Church)에서 광복절 기념식 및 친선 배구대회를 개최한다.

박선우 회장은 '조국의 독립과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 순국하신 선조들의 숭고한 뜻과 그날의 감격을 함께 하고 싶다' 며 많은 참여를 부탁했다.

뉴햄프셔한인회는 화합과 기쁨이 장이 될 이번 행사를 위해 모든 한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점심식사, 기념품 등을 준비했다.

이날 주보스톤총영사관은 행사장에서 출장순회영사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다.

친선배구대회 참가를 원하는 그룹은 참가 여부 신청을 오는 8일까지 통보 부탁을 했다. 자세한 문의는 603-767-1356으로 하면 된다.



지난 68주년 행사를 진행하는 박선우 회장

행사일정

일시: 8월 15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그린랜드 연합 감리교회 (Greenland United Methodist Church), 87 Great Bay Road, Greenland, NH 03840

참가신청 및 문의 : 603-767-1356 (회장 : 박선우)

jham@bostonkorea.com

절전형 전구 및 멀티탭 8월 중순께 배포 시작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에너지 절약 패키지(LED 절전형 전구 2개와 멀티탭 1개)의 무료 배부가 오는 8월 중순께로 늦춰졌다

무료 절전형 전구와 멀티탭을 기부하는 유강조 씨는 5일 전화통화에서 "이번 주말께 구체적인 발송 날짜가 밝혀질 것" 이라고 말하고 "8월 중순께 보스톤에 도착할 것" 이라고 밝혔다. 유 씨는 "보스톤 한인회의 최종 자료 전달이 늦어져 결국 배포까지 늦춰졌다" 고 말했다.

보스톤코리아는 이에 따라 8월 중순 이후부터

사무실(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에서 신청자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무료 절전형 전구와 멀티탭은 보스톤코리아에 신청 접수한 사람만 사무실에서 받을 수 있다.

유강조 씨는 무료 전구 배부를 주관하는 전구회사 메가라이트(Mega Light)의 사장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 무료 전구 배부를 보스톤 한인사회에 도입하게 되었으며 지난 2년간 총 3만개의 절전형 전구를 보스톤 한인회에 기증해왔다.

dyoo9146@bostonkorea.com



블루문 왜 파란색 아닌가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함요한 기자 = 보스톤에 영어 관용구 Once in a Blue Moon(극히 드문)의 블루문(Blue Moon)이 지난 31일 금요일 새벽 보스톤 시내 한가운데 모습을 드러냈다.

보스톤 글로브 31자에 의하면 블루문이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한 시간은 금요일 오전 6시 43분 경으로 밝혀졌다.

블루문은 희귀한 보름달로 알려졌으며 평균 2년 반 사이에 나타나는 보름달이다. 미국 해군성 천문대 일원 제프 체스(Geoff Chester)에 의하면 블루문의 뜻은 '한 달에 보름달이 두 번씩이나 나타나는 경우' 에 이어 '그 두 번째 보름달을 블루문이라 일컫는다' 고 말했다. 지난 7월 2일에 첫 번째 보름달이 비취졌고 이어서 지난 30일 목요일 밤부터 하늘이 맑게 개기 시작하여 블루문이 모습을 비추기 시작했다.

이어 지난 달 나타난 보름달이 블루문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체스터 씨는 "메인 파머 알미닉(Maine Farmer's Almanac)의 옛 뜻에 의하면 계절의 네 번째 보름달이 블루문이라" 며 "이번 여름에 나타난 보름달은 두 번째 이기 때문에 블루문이라고 할 수는 없다" 고 밝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다음 블루문은 2018년 1월에 다시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jham@bostonkorea.com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영의 QR 마크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면
보스톤코리아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됩니다



Publisher & C.E.O
장명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세벽 SaeByuk Han
정성일 SungIl Jung
박현아 HyunAh Park
유대인 Dain Yoo
함요한 John Ham
한태정 Taijung Han

Graphic Designer
정한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한웅 HanWoong Chung

Contribution part
백린 Rin Paik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콕 Andrew Koak
앤젤라엄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상 HaSang Hong
오승준 Albert Oh
이명원 Myung Won Lee
장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 TV 사업국
617-955-9459

제휴업체 | 연합뉴스 | 미션협 회원사 | 세한연 회원사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617.871.1482

캠브리지 덴탈 어넥스
Cambridge Dental Annex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www.yasuboston.com

야수 레스토랑

자녀를 위해 요리하는 엄마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야수는 작은 마을에서부터 요리 하나하나까지 자녀들을 기르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만듭니다. 직접 만들어 손맛이 들어있는 야수의 음식 - 맛과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야수를 찾아주세요.

YASU RESTAURANT
Telephone 617.738.2244
1365 Beacon Street, Brookline, MA 02446

**단체예약
주문음식**

보스턴 천주교 한국학교 김현정 전 교장 고별 인터뷰

교육부장관 표창 수상 김현정 전 교장, 보스턴을 떠나며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유다인 기자 = 올해 교육부장관 표창장 수상의 주인공인 김현정 전 보스턴 천주교 한국학교 교장이 4년간의 교장 임기를 마치고 보스턴에 작별을 고했다.

지난달 캘리포니아로 거처를 옮긴 김 전 교장은 지난 6일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멀리서 마음로나마 응원하겠다”며 “앞으로도 한국학교 교사로서 꾸준히 활동하고 싶다”는 소감을 전했다.

보스턴 천주교 한국학교에서 보조교사와 정교사로 각각 1년씩 봉사했던 김 전 교장은 지난 2011년 교장으로 취임해 4년의 임기를 보냈다. 아울러 지난달 16일 뉴저지에서 개최된 재미한국학교협의회 학술대회에서는 교육부장관 표창장을 수상기도 했다.

뉴턴에 위치한 보스턴 천주교 한국학교는 1987년에 개교해 올해로 개교 28주년을 맞으며 현재 70여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이다.

다음은 김 전 교장과와의 일문일답이다.

Q. 교육부장관 표창장 수상에 대한 소감은 어떠한가

A. 교사 생활을 오래 한 것도 아니고 아직은 많이 부족한데 이런 큰 상을 받게 되어 감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어깨가 더욱 무겁다.

Q. 표창장을 받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A. 수상한 교육부장관 표창은 한인 학생들을 위한 민족교육, 재미동포 교육발전에 기여한 공로에 대한 표창이다. 하지만 (표창장) 내용처럼 대단한 공을 세웠다기보다는 한국학교의 발전을 위한 봉사와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 한국의 역사와 문화, 전통을 아이들이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한 것에 대한 격려라고 생각한다.

Q. 지난 4년간 보스턴 천주교 한국학교 교장으로 지내온 소감은 어떤가

A. 한국학교 경험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교장을 맡고 첫 두 해 정도는 하루하루 해야 할 일들을 쫓아가기 바빴다. 이제는 조금씩 한국학교의 미래를 그려보며 다양한 커리큘럼이나 교재 개발, 새로운 행사 계획도 세울 여유가 생겼지만 앞으로 배워야 할 것이 더욱 많다.

Q. 한국학교 운영 중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무엇인가

A. 선생님을 모시는 일이다. 여러 이유 몇 년 못하고 떠나는 유능한 교사들이 많다. 유능하고 경험 있는 선생님들이 꾸준히 봉사해준다면 (한국학교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Q.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인가

A. 한글을 전혀 모르던 아이들이 처음으로 책을 읽기 시작할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나에게 책을 가져와 읽으면서 뿌듯해 하는 얼굴을 보면 기쁘고 기특하기도 하기도 하다. 배우는 기쁨을 계속 느낄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도 하게 된다.

Q. 보스턴에서의 활동을 마치고 캘리포니아로 떠나게 되었다. 향후 계획은 어떠한가

A. 개인적인 사정으로 캘리포니아로 가게 되었다. 떠나는 것이 결정되고 보니 부족했던 부분이 더욱 눈에 띈다. 계획만 하고 실천하지 못했던 것들이나 안일하게 적당히 해왔던 것들이 짐처럼 남아있다. 차기 교장선생님께서 새롭게 더 열심히 해주시리라 믿고 멀리서 마음로나마 응원하겠다.

당장은 정리하고 적응하느라 바쁘겠지만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한국학



김현정 전 보스턴천주교 한국학교 교장

교 활동을 하고 있다. 다만 교장보다는 교사가 좋다. 아이들과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

Q. 보스턴 천주교 한국학교 학생들과 교사에게 전하는 마지막 인사

A. 애들아! 지금도 문집을 보며 너희들의 얼굴을 하나씩 떠올린다. 바쁘고 힘든 가운데에도 열심히 하는 너희들을 보면 자랑스럽구나. 내년에 더

욱 성장한 모습 기대해 볼게. 화이팅!

그 동안 수고해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선생님들의 수고와 헌신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보스턴 천주교 한국학교는 없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교사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꾸준히 학생들을 지도해주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dyoo9146@bostonkorea.com

Frank Y. Shin, DMD
현 **Tufts** 치과대학 부교수

신영목치과

- 치아 이식 수술 [Implants]
- 금속 없는 크라운
- 미용 치료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 드립니다)
- 응급 환자 당일 치료
- 토요일도 진료함
- 각종 보험 지정 병원

www.drfrankshin.com
617.265.5606
1428 Dorchester Ave. Boston, MA 02122

가주 순두부 한식&일식

2013, 2014년 보스턴 매거진 선정 한식 1위 "가주 순두부" 얼스톤점과 캠브리지점 두곳에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오전10시~ 밤10시까지 입니다.

얼스톤 지점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 8540

캠브리지 지점
57 JFK st. Cambridge, MA 02138,
(617) 864- 6868

단체 예약과 문의 가능

차량등록국, 화요일에 가장 한적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함요한 기자 = 최근 RMV의 자료에 의하면 RMV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가장 적은 날이 화요일 정도로 밝혀졌다.

이 자료는 브라이튼에 거주하는 23살 알렉스 페트랄리 씨가 RMV 홈페이지를 통해 각 지역 매 시간의 손님 방문(기다리는 시간)을 그래프로 만든 후 밝혀진 결과다. 보스톤 글로브는 지난 27일자에서 페트랄리 씨의 그래프를 통해 보스톤 RMV 지사의 경우 화요일 오전 12시 이전 방문했을 때 기다리는 시간은 10분 이하로 밝혀졌다.



RMV 방문시 월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피하는 것이 좋다

RMV를 가는 경우 보통 한 시간 이상 기다리는 것은 한인들 사이에서도 당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렉싱턴에 거주하는 한인 정씨는 “오랫동안 RMV 안에서 기다리는 것도 지치지만 특히 나무의자가 너무 불편하다”고 불평을 표현했다.

RMV Q/A 고객 서비스 대표 대일 씨는 이번 자료와 관련한 사실을 제공할 것을 거부했으며 기자의 계속되는 질문에 단지 “각 지역별 RMV는 날짜와 시간에 따라 대기시간이 다르다”는 원론적인 대답으로 일관했다.

RMV 방문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RMV의 웹사이트(massrmv.com)를 통해 각 지역의 방문시간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교통편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인근 RMV만을 방문할 경우 대기 시간을 확인하고 한가한 시간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또 다른 방법은 RMV 익스프레스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네틱과 애틀보로 지역에 있는 RMV 익스프레스 지사는 본 RMV 지사 보다 대기시간이 훨씬 짧다. 대일 씨는 “RMV 익스프레스 지사의 경우 본 RMV 지사에 비해 제공되는 서비스가 한정되어

있어 대기시간이 단축된다”고 말했다. RMV 익스프레스 지사와 트리플 에이(Triple A) 지사에서는 운전면허 갱신, 신분증(ID) 발급, 차량 등록 외에는 다른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익스프레스 지사에서는 현금 지불 또한 불가능하다.

RMV의 대변인 마이클 베섹스 씨는 “RMV는 오래 기다리는 장소로 유명하지만 특히 금요일과 월요일, 목요일은 손님들이 비교적 더 많았다”고 밝혔다.

jham@bostonkorea.com

보스톤 수산 해양 관광산업 진흥 기원제 성황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함요한 기자 = 보스톤 수산 해양 관광산업과 종사자들을 위한 기원예배가 지난 2일 일요일 오후 2시에 보스톤 하버에서 연인원 5,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4회 보스톤 지역 해산물 축제와 함께 진행되었다.

보스톤 해양재단이 주관한 이 행사에는 하트만 목사, 블로테 목사, 달레

이 목사 등이 참여해 수산화 관련 종사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였다. 또 업무 중 사망한 이들을 위로하는 예배를 진행했다.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한미정치력신장연대를 맡고있는 전 평통회장인 김성혁 목사가 진행했다.

김 목사는 “이번 행사는 한인들과 주지사의 좋은 교류의 장이 되는 계

기였으며 한미정치력 신장 회원들도 함께 봉사해 의미가 깊었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우리는 차세대를 위해 주류사회에 진출하도록 노력하고자 봉사하고 있다”고 밝혀 한미정치력 신장연대에 큰 열정을 과시했다.

jham@bostonkorea.com

병역기피자 신상 인터넷 공개

내년 1월부터 작업 시작 12월께 본격적으로 공개된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함요한 기자 = 병무청은 내년 1월부터 병역의무를 기피하는 인적사항을 병무청 홈페이지(mma.go.kr)를 통해 공개할 방침이다.

병무청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국내외 무단으로 병역을 기피한 사람들이 무려 5100명이 넘어서는 수준으로 이 모든 사람의 신상이 공개 될 것으로 보인다. 연평균 1200명 가량인 것으로 밝혀졌다.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는 인적사항은 병역기피자들의 성명을 포함해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병역법 위반 조항 등이 다.

병무청이 규정하는 병역기피 대상자들은 다음과 같다 ▶국외여행 등 법에 규정된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한 사람 ▶허가 기간을 넘겼거나 허가가 취소된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고 국외에 체류하는 사람 ▶징병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이나 교육소집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이 해당된다.

다만 병역기피자중 ▶질병, 수감, 천재지변 등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국외에 불법 체류 중이던 사람이 귀국하는 등 공개해서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들의 경우는 공개에서 제외된다.

이와 같이 국외여행허가의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인터넷으로 명단

이 공개 될 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여권발급 제한, 40세까지 국내 취업 및 관허업의 인허가 제한 등 각종 제재를 받게 된다.

병무청은 병역기피자들이 인터넷에 실제 공개 되는 시기는 내년 1월 초부터 공개절차가 시작되어 ‘최초 공개되는 시점은 내년 12월경’이라고 밝혔다.

▶한국방문시 병역의무 대상 시민권 영주권 소유자 주의 사항

이미 입영연기가 허가된 사람들도 한국에서 출국시에 몇 가지 질문을 받게 된다. 이에 시민권이나 영주권 소유자가 한국을 방문하게 될 경우에 대비해 병무민원상담소는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해서 병무청의 입영연기(국외여행허가)를 37세까지 받은 경우에도 6개월 이상 한국에 머물게 되거나 한국에서 취업을 하게 되면 병역연기가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병무민원상담소는 “만 24세까지는 본인의 연기신청이 없어도 출입국사항에 의거 병무청에서 직권으로 입영연기가 가능하지만 만 25세부터는 별도로 입영연기(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서는 병무청 웹사이트(mma.go.kr/kor/s_navigation/travel/travel104/travel104/index.html)에서 양식을 다운로드를 받은 후 작성해 병무청에 허가를 받을 수 있다.

jham@bostonkorea.com

617-739-2888

- 한국, 아시아, 미국내, 유럽, 남미 등
- KE, UA, DL, AA 등 모든 항공사 취급
- 항공권 특별 할인 제공
- 통역, 번역 서비스

유니버스 여행사
대표 최한길

Universe travel services
Tel 617.739.2888 / www.utsboston.net

정진수
CPA / 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융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여(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고급 레스토랑 대폭 할인, 레스토랑 위크 돌아왔다

평소 비싸서 가기 꺼렸던 레스토랑 이번 기회에 온가족이 함께 하세요... 방문전 미리 반드시 웹사이트 통해 예약 해야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함요한 기자 = 땀이 절로 흘러내리는 보스톤의 여름에는 입맛이 떨어지기 쉽다. 이를 위해 보스톤 레스토랑 위크(Boston Restaurant Week®)가 식도락가들을 초대해 그들의 식욕을 돋굴 예정이다. 보스톤의 고급 레스토랑들이 코스 정식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식당들의 스페셜 주간이 오는 16일부터 21일, 23일부터 28일까지 펼쳐진다. 코스 정식을 점심은 20 달러 선, 저녁은 35 달러 선에 원래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음식을 즐길 수 있는 기회다.

평소에 가고 싶었던 레스토랑이 있다면 레스토랑 위크 웹사이트(restaurantweekboston.com)를 통해 확인한 뒤 인기 요리나 관심 있던 음식이 레스토랑 위크 메뉴에 포함돼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특별히 주말과 저녁 메뉴를 포함시키지 않고 점심 메뉴만 포함시키는 레스토랑도 있기에 레스토랑을 고를 때 유의해야 한다. 또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할 때 알맞은 복장을 갖추고 가는 것도 예의이다. 이 같은 고급 레스토랑 방문 시에는 드레스 코드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야 하며 식당에서 요구하는 복장을 따르는 것이 좋다.

원하는 레스토랑을 고른 뒤에는 일찌감치 예약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레스토랑 예약 전문 사이트(opentable.com)를 통해 예약을 할 수 있고 각 레스토랑의 자세한 정보와 평가 또한 알아볼 수 있다. 여유롭게 식사하려면 점심의 경우 정오 이전이나 오후 2시 이후, 저녁의 경우 오후 6시 이전이나 오후 9시 이후가 한가한 편이다. 가고 싶은 레스토랑이 예약이 다 찬 경우, 당일 아침에 전화해 취소된 자리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모든 자리가 만원일 경우 웨이트 리스트에 이름을 올려 놓는 방법도 있다.

다음은 보스톤 레스토랑 위크에 포함된 몇몇 인기 있는 레스토랑들의 정보와 가격(레스토랑 위크)이다.

▶탑 오브 더 허브 (Top of the Hub)

보스톤의 멋진 전망을 한 눈에 감상할 수 있는 프루덴셜 건물 맨 위 층에 위치한 레스토랑이다. 보스톤 방문 시 한번쯤은 가볼 만한 전망대 레스토랑이며 특별히 저녁에는 보스톤 도시 불빛들이 아름답게 빛나 한층 더 아름다운 전경을 즐길 수 있다. '탑 오브 더 허브'의 복장은 비즈니스 캐주얼 이상이며 모자와 소매가 없는 셔츠는 허용되지 않는다. 캐주얼 복장 입장 시 테이블 대신 라운지에 앉혀지게 된다.



가격: 점심- \$25 (3 코스 메뉴-에피타이저, 메인 디쉬, 디저트)

주소: 800 Boylston St. Boston, MA 02199

전화: 617-536-1755

▶더 캐피탈 그릴 (The Capital Grille)

프루덴셜 건물 앞에 위치한 더 캐피탈 그릴은 스테이크 전문점으로 보스톤 시내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보스톤 스테이크 집을 생각하면 바로 떠오르게 되는 '더 캐피탈 그릴'은 보스톤을 비롯해 체스트 너트 힐과 벨링턴에도 위치해 있다. '더 캐피탈 그릴'의 드레스 코드는 스마트 캐주얼이다.



가격: 점심- \$25 (3 코스 메뉴-에피타이저, 메인 디쉬, 디저트)

저녁- \$38 (3 코스 메뉴-에피타이저, 메인 디쉬, 디저트)

Back Bay 지점 가격.

주소: 900 Boylston St. Boston, MA 02115

전화: 617-262-8900

▶오이시 (Oishi)

스시 전문점으로 신선한 재료와 창의적인 예술 작품으로 요리를 승화시켰다. 현대 도쿄 스타일의 라운지에서 우아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즐길 수 있다. 화려한 스시 음식 프레젠테이션을 감상하고 맛 볼 수 있다. '오이시'는 연예인들이 가끔 나타나는 레스토랑으로 탐 브래디 외 미국 영화배우들과 한국 가수인 나훈아도 모습을 비추어 있는 레스토랑이다. '오이시'의 복장은 남

성의 경우 비즈니스 캐주얼이며 여성의 경우는 캐주얼 시크 이상이다.



가격: 점심- \$20

주소: 1166 Washington St. Boston, MA 02118

전화: 617-482-8868

▶칸티나 이탈리아나 (Cantina Italiana)

1931년에 개장한 곳으로 보스톤 노스엔드에서 가장 오래된 레스토랑이다. 따뜻하고 매력적인 분위기에 훌륭한 요리와 뛰어난 서비스 등, 70년 전통을 자랑하고 있다. 다양한 이태리 음식을 맛 보기에 좋은 곳이며 특별히 다양한 파스타가 준비 되어있다. 복장은 다른 레스토랑들과 비교해 캐주얼 하다.



가격: 점심- \$20

저녁- \$33

주소: 346 Hanover St. Boston, MA 02113

전화: 617-723-4577

jham@bostonkorea.com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 Boston지사 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문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사과 상해
파산 보호
비즈니스/리스**

**IRS/DOR/UI
민/형사 소송
이민법**

전화: (781)712-1700 CHANG & ASSOCIATES, P.C.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시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내빙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I, JI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onelaha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Office (Alewife Station)
125 Cambridge Park Dr, Suite 301
Cambridge MA 02140

여름 밤, 가벼운 주머니로도 분위기 있게 즐길 수 있는 와인 Best 8



세 명의 소믈리에 모두에게서 좋은 평가를 받은 Erik Banti "Carato" Toscana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태정 기자 = “매년 11월, 보스톤 글로브 지에서는 \$20이하 가격의 50가지 와인을 선별해 세 명의 소믈리에가 직접 시음한 후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보스톤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와인이라는 점과 또 높은 가격은 아니지만 소믈리에의 검증을 거친 와인이라는 점에서 더욱 믿음이 간다. 세 명의 소믈리에 모두에게서 좋은 평가를 받은 베스트 8 와인을 소개한다. 오늘 저녁, 와인 한잔 어떨까?”

▶레드 와인

2011 Erik Banti "Carato" Toscana - \$10, 이탈리아

이탈리아 토착 품종인 산지오베제, 실리지올로 그리고 메를로 품종을 블렌딩한 와인으로 알싸하게 퍼지는 후추향과 깔끔한 산미, 토양을 머금은 듯한 향이 세 명의 소믈리에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2013 Saint Cosme Cotes du Rhone - \$13, 프랑스

프랑스 남부 론 (Rhône) 지방 지공다스 (Gigondas) 마을의 북쪽에 위치한 생콤 (Saint Cosme)은 이 지역 와인 명가이자, 가장 오래된 와이너리이다. 지공다스 지역은 오래 전부터 레드 와인이 좋은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마시기 편

하면서도 느껴지는 바디감이 깊은 여운을 남긴다.

2011 Bodega Norton Reserva Malbec - \$13, 아르헨티나

입 안 가득 전해지는 풍부한 과실 풍미와 힘 있는 탄닌감, 말벡 (Malbec) 특유의 감초향이 조화롭게 느껴진다. 끝까지 길게 이어지는 오크 (oak) 풍미와 세련된 스파이시함이 매력적이다. 돼지 갈비나 갈비찜, 튀김, 볶음요리, 해물요리에도 무난히 어울릴 와인.

▶화이트 와인

2011 Trimbach Alsace Riesling - \$20 프랑스

알프스 도데의 단편소설 '마지막 수업'의 무대이기도 한 알자스 라인 강을 사이에 두고 독일과 국경을 접한 프랑스 북동부에 위치한 알자스는 화이트 와인의 천국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종류의 화이트 와인을 생산하고 있다. 이 중 트림바크 가문은 1626년 장 트림바트가 와인을 생산하기 시작하여 12대 가업을 이어나가고 있는 오랜 전통을 지닌, 프랑스에서도 손꼽히는 와인 명가이다. 포도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오크 통을 사용하지 않으며, 2차 발효를 하지 않아 와인의 자연적인 신선한 산미가 살아있는 게 특징이다. 달콤하고 그윽한 향과는 달리 조금은 예리

한 듯한 산미와 입안에서는 드라이한 맛을 내는 반전의 매력을 지니고 있다.

2012 Herve Azo Saint-Bris - \$17 프랑스

프랑스 부르그뉴 (Bourgogne) 산 화이트 와인. 보르도 (Bordeaux)와 더불어 프랑스의 주요 와인 산지이다. 보르도와는 달리 아직도 가족 중심의 와이너리가 주를 이룬다. 탁월한 미네랄 향과 산뜻한 시트러스 자몽 라임 향이 코 끝을 즐겁게 한다. 적당한 산미가 식전에 식욕을 돋우는 데도 효과적이다. 산뜻하지만, 절제되고 섬세한 것이 특징인 와인.

2013 Elk Cove Vineyards Pinot Gris - \$19 미국

미국 오레곤주의 엘크 코브 빈야드 (Elk Cove Vineyards)는 이 지역 주력 화이트 품종인 피노 그리 (Pinot Gris)로 명성을 얻은 와이너리다. 가볍고 향기로우며 배, 사과, 라임 풍미로 짙은 와인은, 마지막에는 아몬드 꽃향을 풍긴다.

2013 Henri Bourgeois "Petit Bourgeois" Sauvignon Blanc - \$13 프랑스

향긋한 시트러스, 그러면서도 동시에 크림미한 향이 느껴지는 와인. 산도가 깔끔하면서도 우아함을 잃지 않는다. 착한 가격까지,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데일리 와인으로 손색이 없다.

2013 Ottella "Le Creete" Lugana - \$20 이탈리아

이탈리아 베로나 (Verona) 지방의 루가나 (Lugana)에서 토착품종인 트레비아노 (Trebiano)로 만든 화이트 와인으로 일단 고급스러운 병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코르크 마개를 오픈 하자마자 풍부하게 퍼지는 복숭아 향이 와인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린다. 신선한 미네랄과 달콤한 과실향이 매력적이다. 화이트 와인이지만 바디감이 묵직하고 크림미한 유질감이 돌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육과 같이 담백한 육류의 풍미를 살린 요리와도 잘 어울린다.

htj@bostonkorea.com



오바스시
광어회
우럭회
TO GO
617 202
3808

Century 21
SHAWMUT PROPERTIES

1274 Washington Street
Newton, MA 02465

송 윤주 Realtor
Yoon Song
Direct: 857-636-0179
Email: Yoonjoo@century21.com
Web: YoonBoston.com

주택 매매, 임대, 수익성 부동산 투자, 렌트 전문
고객의 입장에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Newton, Needham, Brookline, Belmont,
Boston, Wellesley, Weston, Cambridge,
Lexington 전문

惠民 Park Acupuncture
and herbal medic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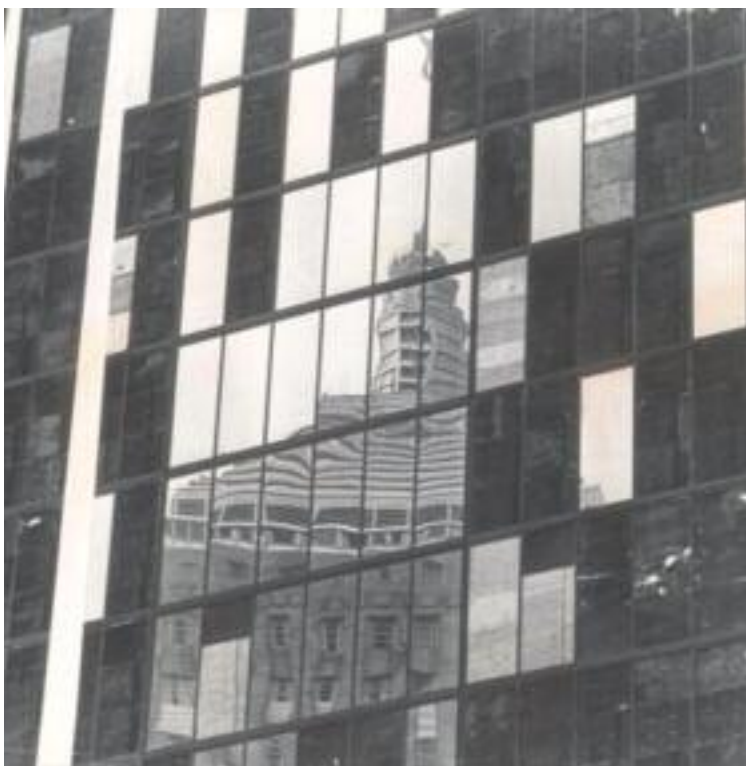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최상의 선택
혜민한의원
617-787-0789 www.acupark.com
60 Leo M. Birmingham Parkway, Suite 101, Brighton, MA 02135

굿바이 '존 핸콕' ~ 헬로우 '200 클라렌든'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태정 기자 = 뉴잉글랜드 최고층 빌딩이자, 보스톤의 상징으로 사랑 받아 온 존 핸콕 빌딩의 이름이 곧 바뀌게 된다. 보스톤 시민들에게는 “the hancock” 이라는 애칭으로 불려온 이 건물은 존 핸콕 보험회사가 사실상 리즈(lease) 연장을 하지 않으면서 실제 소유주인 보스톤 프로퍼티(Boston Properties)는 공식적으로 더 이상 ‘존 핸콕’ 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보스톤 프로퍼티는 지난 2010년, 9억 3000만 달러에 건물을 매입해 현재 실제 소유주이지만, 처음 건물이 매각될 당시 ‘존 핸콕 타워’의 이름 사용권은 ‘존 핸콕 보험사가 임차인으로 건물에 남아있을 때까지’ 로 명시되었기 때문이다.

존 핸콕 타워는 1968년 존 핸콕 보험사의 의뢰로, 루브르 박물관의 피라미드형 별관을 설계하기도 한 세계적인 건축가 이오 밉 페이(Ieo Ming Pei)와 그



1973년 8월, 유리 패널들이 떨어진 자리에 합판을 대어놓은 존 핸콕 타워의 모습

의 파트너들이 설계를 맡아 1976년 완공되었다. 기하학적으로 설계된 이 건물은 1만여개의 정방형 반사유리로 장식되어 있었는데, 압력의 편차와 안전 장치 소홀로 인해 거대한 유리 패널이 튕겨져 나와 62층 아래의 Clarendon 거리를 향해 수직으로 떨어지는 위험한 사고가 계속 되었다. 특히 보스톤의 강한 바람으로 인해 유리 패널들이 계속 흔들거렸고 건물의 무게 때문에 지반이 꺼지면서 유서 깊은 호텔과 교회 등 인근 건물들까지 피해가 잇달았다. 결국 1973년, 1만여개의 유리 패널을 모두 떼어내고 다른 재료로 대체하기로 결정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 약 5백

만 ~7백만 달러의 추가 비용이 들었다. 대체하는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유리 패널이 떨어진 창문에는 임시로 합판을 대어 놓았는데, 이 과정에서 ‘합판 궁전(Plywood Palace)’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하였다. 우여곡절이 많은 완공이었지만, 40년 넘게 보스톤 시민들에게 사랑 받아 온 ‘존 핸콕 타워’. 앞으로는 어떤 이름으로 불리게 될까? 현재 보스톤 프로퍼티에서는 실제 주소를 따 ‘200 Clarendon’ 이라 이름 붙이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htj@bostonkorea.com



8월 21일 무료 동물원 입장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함요한 기자 = 오는 21일 금요일에 프랭클린 파크 동물원 (Franklin Park Zoo)과 버튼우드 파크 동물원 (Buttonwood Park Zoo)의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

지난 6월부터 진행된 뉴잉글랜드 지역의 문화 시설을 무료로 즐길 수 있게 마련된 프리 펀 프라이데이 (Free Fun Friday)를 통해서 무료 입장이 제공된다. 동물원의 입장은 나이 제한이 없다.

동물에 대한 호기심이 풍부한 학생들이 견학하기에 좋은 기회이다. 곧 개학을 앞둔 학생들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여름방학이 끝나기 전 추억을 만들기에 알맞은 장소이기도 하다.

프랭클린 동물원은 보스톤에서 가장 큰 공원인 프랭클린 파크 (Franklin Park) 안에 위치되어 있다. 동물원 안에는 220 여종의 동물이 사육되고 있으며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의 모습도 볼 수 있다. 프랭클린 동물원은 교육적인 시스템이 형성 되어 있어 양이나 염소를 직접 손으로 만져 볼 수 있는 페팅 주 (Petting Zoo) 와 동물원 사육사와 아기 고릴라에게 먹이를 줄 수 있는 이벤트 외에 웹사이트 (zooneungland.org/franklin-park-zoo)에서 다양한 스케줄을

알아 볼 수 있다. 무료 입장이 가능한 21일 프랭클린 동물원의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마지막 입장은 3시까지이다. 동물원 파킹은 무료이나 자리가 빨리 채워지기 때문에 일찍 오는 방법을 권한다.

주소 : 1 Franklin Park Rd, Boston, MA 02121

전화: 617-541-5466

뉴 베드포드에 위치한 버튼우드 동물원은 매사추세츠주에서 가장 오래된 동물원이다. 동물원 안에는 무려 250 종 이상의 동물이 사육되고 있다. 버튼우드 동물원은 사육사가 곰, 코끼리, 수달과 물개 등 먹이를 주는 현장을 방문자들에게 보여주는 이벤트가 매 시간 있어 사육사와 동물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버튼우드 동물원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며 마지막 입장은 4시 15분 까지 할 수 있다. 동물원 파킹은 무료이며 I-195 를 타고 13A 출구에서 내리면 바로 찾을 수 있다. 더 자세한 정보는 (bpzoo.org)에서 찾을 수 있다.

주소 : 425 Hawthorn St, New Bedford, MA 02740

전화: 508-991-6178

jham@bostonkorea.com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은혜한의원
 Grace Acupuncture & Oriental Medicine

원장 백승희
 (경의한의대 42기)

안동 5년제, 외보보령취급 / 명저한 주사

781.862.1842

442 Marrett Rd, Suite 6
 Lexington, MA 02421
 www.graceacorn.com

“당신의 환한 미소가 마름답습니다.”

거의 모든 보험 받습니다
 매쓰업쓰도 받습니다

978.689.9363
 (한국어문의)

김동원치과
 465 South Broadway Lawrence MA 01843

가족 물리치료 병원
 GB Family Physical Therapy

매사추세츠 최초 REDCORD식 치료법 도입

진료분야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어깨, 팔, 무릎, 다리 및 각종 운동 후 통증
 척추 측만증 및 자세교정

고통사고/직장상해 보험, 유학생/여행자 보험, 메디케어 외 정부보험 및 미국보험

대표: 781-365-1876 한국어 781-365-1867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www.gbfamilypt.com



조기유학 및 학업지도 대표 기관



www.bosec.com

보스톤유학원은 가장 오래 전통을 가진 유학원으로 많은 학생들을 명문 중/고등 사립 학교와 명문 대학에 입학 시켜온 교육 컨설팅 대표기관입니다. 보스톤 유학원은 학생들이 미국에서의 학업에서 성공하도록 최상의 컨설팅과 수준높은 학업지도를 제공합니다

Educational Consulting Department

1. 조기유학, 초/중/고 /대학 입학, 전학, 인터뷰 가이드 전문
2. 한국에서 갓 전학 온 학생 교육컨설팅
3. 대학 입학 상담, 지원서 작성 (College Consulting) : 하버드 입학담당관 출신이 전문위원으로 활약
4. 가디언, 홈 스테이, 여름/겨울 캠프
5. 주말 봉사활동, 특활 지원
6.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www.bosec.com

- 컨설팅 서비스의 특징: 다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성공적 상급 학교 진학을 보장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서울 사무소: 부모님 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 단지 내에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참조)
- 합격한 중, 고등 학교: Fay, Choate Rosemary, St. Paul, Milton, Groton, Kent, NMH, Loomis Chaffee, Hotchkiss, Lawrenceville, St. George, Middlesex, Concord, Governor Dummer, Eaglebrook, Cardigan Mountain, Fessenden, Cushing, Brooks, Westover, Dana Hall, Holderness, Kent, Worcester Academy, Eaglebrook, Philips Academy, Pomfret 등.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 합격한 대학: Harvard, Yale, Stanford, Cornell, Columbia, NYU, Bowdoin, Dartmouth, Trinity, Emory, U. Mich., U. Penn. Brandeis, Boston College, Bowdoin 등 다수

튜터의 자질과 경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Academic Tutoring Department

SAT, SSAT, TOEFL, Writing 전문 학원

대표 강사 부원장: James Kim, Harvard, Yale 철학 전공

책임 강사: Robin Burns,
Stanford Univ. English Major, MS, BA, 수석 졸업,
SAT Verbal 800

- 대상 학생: Native Speaker, 유학생, 보딩스쿨/데이스쿨 학생
- 한국식 엄격한 지도. 숙제 관리.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지도 함.
- 시험 요령 습득이 아닌 실력 향상 위주.
- SAT, TOEFL, SSAT수강생 전원에게 정선된 필수 단어 목록 제공

Private Tutoring

Math, Essay Writing, Physics, Chemistry, Biology, History, Spanish, French, Latin, TOEFL, SSAT, ISEE SAT, ACT

\$70-100/hr

여름 방학 특강 (보스톤)				
SAT 집중반	7월6일-8월 20일, 월, 수,	10 AM-1PM	\$1250	실전 테스트 5회
개인 지도	학생이 지정		\$60-\$80 여름 특별가	전 과목

단 주 1회 실전 테스트 일은 10 AM-1:30 PM, 최소 인원 3명

여름 방학 특강 (서울)

개인지도 혹은 4인 이하 소 그룹: 문의 02-579-9731

지도과목: SAT, ACT, AP US History, AP English, SSAT, TOEFL, Reading/Writing

기숙학교 연중 프로그램(안전한 홈스테이, 항공, 교통편 제공)

Program	기 간	그 룹 지 도	개 인 지 도	제공서비스
추수 감사절	11월 중순-말	SAT, SSAT, TOEFL,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성탄 휴가	12월 중순-말	SAT, SSAT,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봄방학	3월중 3주간	SAT, SSAT, TOEFL,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이 프로그램 들은 2001년 부터 6년 째 제공되고 있는 정평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학부모가 이 기간 중 한국에서 오시는 경우 편안한 장기 투숙 안내 제공.

- 주말 교통편, 홈 스테이, 학업 지도, 봉사 활동 제공 - 학생이 필요한 과목별 개인 지도, 유학생을 위한 집중 영어 쓰기 지도 제공
- 한 학교에서 3명 이상이 같은 프로그램으로 오는 경우 할인 혜택
- SAT는 CR과 Writing점수목표가 650-750사이인 학생을 목표로 함. SSAT는 80-99%를 목표로 하는 학생을 위한 클래스임.

보스톤 유학원

미국: 545 Concord Avenue, Suite 214,
Cambridge, MA 02138

한국: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 아크로텔 2402호
(삼성 타워팰리스 단지 내 02-579-9731)

대표: 원장 공학박사 송영두

Tel 617-491-0041
617-491-0043

- * 교사 수시 모집: info@bosec.com 으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 홈스테이 가정 수시 모집: 뉴잉글랜드 전역. info@bosec.com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사절.
 - * 사무 직원 모집: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분. humanresource@bosec.com 로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주차는 보스톤유학원 옆의 Fresh Pond Mall 의 Whole Foods Market에 하시면됩니다."

하버드 합격생들이 에세이에서 주로 쓰는 단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하버드 대학교를 목표로 하고 있는 고등학생이라면 입학 원서 에세이를 쓸 때 주로 사용해야 할 단어가 있다. 에세이에서 부모님을 지칭할 때 아버지(father)와 어머니(mother)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창업한지 1년이 된 신생기업 어드미트시(admitsee.com)는 현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앞으로 대학에 지원할 학생들에게 입학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어드미트시는 웹사이트에 등록된 15,000개의 대학 입학 에세이를 분석하여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어드미트시는 동부 최고의 명문 대학교인 하버드와 서부에서 최고로 꼽히는 스탠포드 합격생들의 에세이를 집중 분석했다. 흥미로운 사실은 하버드 합격생들이 에세이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한 반면, 스탠포드의 합격생들은 아빠(dad)와 엄마(mom)를 사용하는 경향이 강했다.

에세이에서 주로 언급하는 단어와 주제에서도 하버드와 스탠포드는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하버드 합격생들의 에세이에서는 암(cancer), 어려운(difficult), 힘든(hard), 거친(tough) 등의 단어가 많



하버드 대학교는 지원 학생이 어떤 성취를 이루었는지에 관심을 보인다

이 사용되었다. 에세이 주제 역시 자신의 인생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다루는 에세이가 주류를 이루었다.

반면에 스탠포드 합격생들이 에세이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행복한(happy), 열정(passion), 더 좋은(better), 향상되다(improve) 등이었다. 스탠포드 합격생들은 에세이에서 가족의 배경이나 자신이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것들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루었다.

어드미트시는 하버드와 스탠포드 합격생들의 에세이와 관련하여 "보여지

는 데이터에 따르면, 스탠포드는 학생들의 인격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하버드는 학생들이 어떤 성취를 이루었는지에 더 관심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다른 명문대학교 합격생들의 에세이에서도 일정한 경향이 발견되었다. 가령 브라운 대학교는 지원자들에게서 자원 봉사 경험이나 공공 업무의 경험을 기대하고 있다. 코넬 대학교나 펜실베이니아 대학교는 향후 진로와 관련한 포부를 학생들이 다루기를 원하고 있다.

jsi@bostonkorea.com

뉴잉글랜드 핫 아이템, 프리 브래디 티셔츠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뉴햄프셔의 예비 선거일까지 아직 6개월이나 남아 있지만 뉴잉글랜드에서는 선거 캠페인 못지 않은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다.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의 쿼터백 탐 브래디의 결백을 주장하는 프리 브래디(Free Brady) 티셔츠가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있는 것.

지난 5월 NFL은 디플릿게이트 연루 혐의로 브래디에게 4경기 출장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브래디의 팬들은 온라인 SNS 등을 통해 브래디의 결백을 주장했고 팬들의 심리를 알게 된 상인들은 프리 브래디 티셔츠를 제작해 판매하기 시작했다.

보스톤 지역에서 스포츠 용품을 판매하는 설리스 브랜드의 크리스 렌 사장은 "프리 브래디 티셔츠는 기가 막히게 팔리고 있다"고 말했다. 설리스는 NFL이나 패트리어츠 팀으로부터 공식 허가를 받은 업체가 아니다. 그러나 프리 브래디 티셔츠에는 팀이나 NFL의 로고가 없고 '프리 브래디'라는 문구만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디플릿게이트 관련 기사는 지



자신이 직접 프리 브래디 티셔츠를 제작해 입고 다니는 팬들도 있다

난 1월 이후 꾸준히 언론에서 언급되고 있다. 이에 따라 프리 브래디 티셔츠도 계속해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다. 렌 사장은 구체적인 판매량을 밝힐 수는 없지만 올해 봄과 여름에 가장 많이 판매된 아이템이 프리 브래디 티셔츠라고 말했다.

상인들이 제작하는 프리 브래디 티셔츠뿐만 아니라 NFL에서 공식적으로 판매하는 브래디 관련 용품도 판매량이 증가했다. 지난 3월에서 5월 사이에 브래디의 유니폼은 NFL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었고 NFL의 디플릿게이트 조사 결과 발표 이후에는 판매량이 두 배로 급증했다.

디플릿게이트는 아직도 끝나지 않고 법정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디플릿게이트가 언론의 주목을 받는 한 프리 브래디 티셔츠의 인기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jsi@bostonkorea.com

정관장 정품은 정관장인 취급하는 '브랜즈스토어'에서 구입해야 안전합니다.

하루 2번, 면역력을 지키는 습관

- 기억회복, 면역력 증진, 양노 암예방 예방, 간헐산량 기능 개선
- 항암효과, 혈액순환 개선,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기억력 개선

홍삼에도 격이 있습니다. 가족과 자신을 위해 최선을 드세요.

정관장 홍삼의 엄격한 제품 관리 기준은 의약품 제조도 가능한 수준으로 한국, 일본 GMP 및 HACCP 인증을 획득할 정도로 품질면에서 우수합니다.

6년근 홍삼의 진한 피부과학 동인비

전화주문 서비스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781-238-0303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8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503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보스톤 렌트 시장, 미국내 2번째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톤에서 가장 좋은 사업중의 하나는 아파트 렌트 사업인 것으로 드러났다. 아파트 소유주들 가장 좋아하는 활황 렌트시장 중의 하나가 보스톤이기 때문이다.

미국내 상무부의 신규 자료에 따르면 보스톤 근교는 미국내에서 두번째로 공실율이 적은 지역이며 주택 소유자는 지난 10년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미 센서스국에 따르면 지난 2사분기 보스톤 근교 공실율은 2.6%에 불과해 미국내 25개 대도시 근교지역 중 센디 에이고에 이어 두번째였다.

특히 보스톤 근교 주택 소유자 비율은 지난 2008년 부실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금융 위기 이후에도 약 66%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에 머물렀으나



지난 2사분기에는 1사분기에 이어 계속 소유자 비율이 낮아져 58.2%대에 머물렀다.

이 같은 수치는 보스토티안들이 보스톤 근교의 높은 집값에 주택 구입을 엄두조차 못내고 있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또 많은 젊은이들이 직장을 잡아 보스톤으로 진출하지만 아직은 집을 사기 보다는 렌트에 의존하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제기됐다.

hsb@bostonkorea.com

매사추세츠 6월 주택 판매 10년만에 최고

보스톤 부동산 급반등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지난 겨울 폭설로 주춤했던 부동산 경기가 6월 10년래 최고 판매량을 기록하며 폭발적 증가세를 보였다

7월 28일 워렌 그룹에 따르면 단독 주택의 판매량은 11.8% 상승해 총 6,457 가구의 주택이 판매됐다. 이 같은 수치는 주택 거품이 한창이던 지난 2005년 8월 이래 최고 수치이다.

콘도미니엄의 판매량도 15% 상승해 콘도 한달간 판매량이 지난 2007년 8월 이래 최고 판매를 기록했다.

평균 1가구 단독주택의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4% 오른

\$365,000이었고 콘도의 경우 훨씬 큰 폭인 2.3%가 인상됐다. 지난해 6월의 콘도 가격은 \$332,500이었다.

워렌 그룹의 대표 티모시 워렌은 "6월은 지난 봄에 주택 경기가 극히 좋았음을 반영한 것" 이라고 밝히고 "그동안 장기 주택 불황과 아주 미온적인 회복세 이후 이 같은 극 반전은 놀라운 일" 이라고 평했다.

한편 지난달 28일 매사추세츠 부동산 중개인 협회의 발표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드러났다. 단독주택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9% 상승했으며 평균 가격도 약 3% 인상됐다. 콘도의 경우 판매량이 10.5% 증가했으며 가격은 6%나 상승했다.

부동산 중개인협회 코린 피츠제럴



드 회장은 지난 봄의 활발한 경기가 6월 폭등세를 만들었지만 부동산 매물 부족으로 이 같은 오름세가 꺾일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6월 현재 41개월 연속 주택 매물이 줄고 있으며 콘도의 경우 56개월 연속 매물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hsb@bostonkorea.com

락스베리 퍼딩스턴 공원, 살인 및 총기 사건 3달간 6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태정 기자 = 보스톤 살인 사건 발생률이 전체적으로 감소세를 보인 반면, 지난 일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한 곳이 있어 주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 록스베리 (Roxbury), 도체스터 (Dorchester) 그리고 메타판 (Mattapan)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한 퍼딩스턴 (Puddinton)공원 인근이 바로 그곳이다. 경찰은 최근 살인 사건이 급증한 이유가 이곳에 기반을 둔 갱들이 세력 확장을 위해서로 충돌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퍼딩스턴 공원 부근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범 지대로, 2007년에는 7살된 아이가 실수로 총을 쏘 9살 난 사촌이 사망한 사건을 비롯하여, 2013년 마약 소지자를 쫓던 경관이 살해 되는 등 크고 작은 총기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지난 28일 밤에는 공원 인근을 걷던 행인이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세

아이의 엄마이기도 했던 그녀는 사촌 집에서 저녁모임을 마친 후 잠시 밖으로 나왔다가 변을 당했다.

올해 5월 이후로 무려 6건의 총기 사건이 인근에서 발생하자 마티 월시 보스톤 시장은 느슨한 총기 규제를 강력히 비판하면서, 국내의 총기를 일괄 관리하고 규제하는 통합 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했다.

한편, 윌리엄 에반스(William Evans) 보스톤 경찰청장은 늘어나는 살인, 총기사건을 단속하기 위해 인근에 경찰관들을 추가로 배치할 것이라며 폭력에 맞서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나 저녁 이후로는 외출을 삼가하고 거리에서 말다툼을 목격하게 되면 빨리 자리를 피하거나 낯선 사람과는 대화를 삼가는 등 계속되는 총기사고로 인근 주민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htj@bostonkorea.com



NEWSTAR Realty of Boston **NEWSTAR BOSTON** **실용수업**

Gina Choi

Realtor, MBA
978-866-3248
ginachoi@newstarrealty.com
<http://blog.naver.com/newstargina>

매년에도 New Star Realty의 개나리입니다.
10년째 보스톤 지역 최고의 실용수업과 부동산 전문(MBA)을 제공하고 있는 REALTOR-CAMBRIDGE 지역 1위 전문 상담자로서 지역마다의 장점, 단점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실용수업과 실용수업, 10년 이상의 실용수업 경험을 바탕으로 최상의 가격에 집을 사시거나 매도하시기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exington Office
43 Walker St., Lexington, MA 02420
Tel: (781) 259-4996

Newton Office
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0
Tel: (617) 550-4996

가족의 정착, 내집 마련, 투자이민 및 사업매매 978.866.3248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카카오톡 ID: juserengn

EXCLUSIVE : ALLSTON

24 Glenville Ave, Allston, MA 02134
For Sale: \$ 420,000 방 4개 화장실 1, 1,330 sqft
Harvard Ave 전철역, 데크, 한마루, 사출 실방탄, 침전과대 걸어서 1-2분 거리
내년 8월까지 학생들이 계약되어 있음.
현재 풀스런 지역의 CONDO 가격이 오르는 추세라 투자 가치가 높음.

EXCLUSIVE : ACTON

For Sale: \$ 229,000 3 BEDS, 2.5 BATHS, 1,594 SQ FT
학군 좋은 ACTON 지역의 타운 하우스입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10분안에 10점 일 장도로
학군이 좋습니다. 보스톤 다운타운에서 서쪽으로 약 19.5 마일입니다.
더 자세한 집 정보와 방문상은 매체 블로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newstargina/209798688>

'미 내달 금리 인상' 전망 빠르게 확산

(서울=연합뉴스) 선재규 기자 =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다음달에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월가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다.

5일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월가가 판단하는 연준의 9월 금리 인상 확률이 5일 52%로, 이틀 전의 38%에서 급등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이런 추이 변화의 배경으로 데니스 록하트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장이 전날 9월 인상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한 점을 꼽았다.

또 미국의 서비스업이 완전히 개선된 것으로 발표된 것도 이런 전망에 영향을 줬다.

전미공급관리협회(ISM) 서비스

지수는 지난달 60.3으로, 2005년 8월 이후 최고치를 보였다. 이는 전달보다 4.3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지수가 50을 넘으면 경기 확장 국면을 의미한다.

미국 경제에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3분의 1이라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TD 시큐리티스의 청 천 이코노미스트는 로이터에 "(서비스 지수 급등은) 연준에 매우 좋은 소식"이라면서 "(연준의 경제 성장) 목표치에 근접하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증거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연준이 내달에 금리를 올릴 것"이란 판단이 불변"이라고 덧붙

였다. 그는 지난달 신규 주문 지수가 5.5% 증가했고, 서비스 부문 고용도 6.9% 늘어나 10년 사이 최고 수준을 보였음을 강조했다.

로이터는 소비 부문 호조가 제조업 취약으로 말미암은 경제의 허점을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마크 잔디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로이터에 "여러 어려움에도, 노동시장이 '완전 고용'으로 빠르게 접근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블룸버그는 록하트 외에 제롬 파월 연준 이사와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



제닛 엘런 연준 의장

이스 연방준비은행장도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음을 상기시켰다.

한편, 로이터가 5일 결과를 공개한 달러 추이 조사에 의하면, 달러 가치는 내년에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됐다.

다만, 통화 긴축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느냐가 강세 추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jksun@yna.co.kr

"미 금리 인상 앞두고 아 환율 전쟁 일시 휴전"

(서울=연합뉴스) 선재규 기자 =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중앙은행들이 이르면 9월로 예상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그간의 '환율 전쟁'에서 일시 휴전하는 모습이라고 블룸버그가 5일 보도했다.

이는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달러 가치가 더 될 것으로 보고 환율 압박에서 잠시 발을 빼는 숨 고르기에 들어간 셈이라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이는 연준 지도부 인사가 잇따라 9월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지난 5일의 달러 지수가 지난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과 때를 같이한다.

블룸버그는 그램 윌러 뉴질랜드 중앙은행장이 자국 통화 강세를 계속 경고하다가, 2주 전부터는 톤 다운하는 모습이 완연하다고 전했다.

이어 글렌 스티븐스 호주 중앙은행장도 지난 4일 통화 정책 성명에서 호주 달러 가치가 떨어져야 한다고 더는 촉구하지 않았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또 구로다 하루히코(黒田東彦) 일본은행 총재도 지난 1일 자요미우리 신문 회견에서 "지금 추가 완화(금융완화)가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디플레이 탈피를 위한 그간의 금융 정책이 소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이같이 말해, 세간에서 나오는 가을 추가 완화 관측을 일축했다.

블룸버그는 일본은행이 인플레이션 목표치 달성이 여의치 않음을 인정했음에도 구로다가 이런 식으로 '자신감'을 보인 데는 달러 강세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웨스트 쇼어 펀드의 수석 글로

벌 전략가로 '환율 전쟁: 다음번 금융 위기 만들기'의 저자인 제임스 리처드는 블룸버그에, 이들 중앙은행이 "연준의 금리 인상을 발판으로 일시적 휴전에 들어간 것"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들은 연준이 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고,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라면서 "달러가 더 뛰는 것은 상대적으로 자기네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굳이 (스스로) 더 움직일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롬바드 오디어 인베스트먼트 매니저스의 그랜트 피터킨도 블룸버그에 "연준의 금리 인상은 (달러 강세를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환 시장에는 강편치"라면서 "이들 중앙은행이 이전처럼 드러나게 대응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jksun@yna.co.kr

국제유가, 6개월래 최저...브렌트유 50달러 붕괴

(뉴욕=연합뉴스) 이강원 특파원 = 3일 국제유가는 큰 폭으로 떨어졌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9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지난 주 마지막 거래일보다 1.95달러(4.1%) 내린 배럴당 45.1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런던 ICE 선물시장의 9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2.78달러(5.3%) 내린 배럴당 49.43달러 선에서 움직였다. 지난 1월 30일 이후 처음으로 50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이날 국제유가는 전 세계적인 공급 위기 현상이 지속하고, 중국에서의 원유 수요마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까지 겹쳐 큰 폭으로 내렸다.

중국의 7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확정치는 전월의 49.4보다 낮아진 47.8로 집계됐다. 이는 2013년 7월 이후 2년 만에 최저치다.

아울러 이란의 핵협상 타결로 원유 공

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전망 속에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감산할 가능성이 작아진 것도 공급 우위 장세가 지속할 것이라는 우려를 키웠다.

CMC마켓의 릭 스푸너 연구원은 블룸버그에 "유가의 하락 압력이 여전한 가운데 과잉 공급을 해결할 어떠한 신호도 없다"며 "(경제 해체에 따라) 이란 원유가 공급 우위 장세의 새로운 재료로 떠올랐다"고 말했다.

금값은 달러 강세 등의 영향으로 떨어졌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 물 금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5.70달러(0.5%) 떨어진 온스당 1,089.4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떨어진 데다가,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 것이 금값 하락 요인이다.

gija007@yna.co.kr

김성애(Seong Ae Kim) Realtor

Newton, Brookline, Boston, Cambridge, Belmont, Larkington, Waltham, Wellesley

보스톤에 처음 오시거나 내 집 파편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보스톤 일대의 아파트/콘도/주택 매매 렌트를 성실 성의껏 세심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을 통해 고객님의 피당사함에 맞춰 찾아드립니다.

김성애(Seong Ae Kim) Realtor
Coldwell Banker Residential Brokerage

1261 Centre St. Newton, MA 02459
Office: 617.969.2447 Cell: 857.919.3055
Email: SeongAe.Kim@NEMoves.com

최지희 헤어 (Elise Image)
휴일없는 미용실

여름의 상뿔함을 찾아 드립니다

- 날내헤어
- 피부관리
- 네일
- 제모
- 속눈썹 연장
- 바다 마사지
- 영구화장
- 속눈썹 연장 사술 지도

118 Codrill St. Southend MA 02111
SHOP: 617.323.0023
CELL: 617.818.5596

Business Hours: Mon-Sun 10am - 7pm
Spc: Make-Up
머루사 구할

YOUNG DENTISTRY 손영권 치과

In Lowell

좋은 치과
좋은 치아

WE MAKE SMILE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미 공화대선 경선 본격 스타트... '트럼프 돌풍' 최대 변수

6일 상위 10명 대상 토론회... 불법 이민·오바마 업적 난상토론 예상

트럼프의 '굳히기' vs 다른 후보들의 '뒤집기'... 후보별 장단점 분석

(서울·워싱턴=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심인성 특파원 = 역대 최대 규모인 17명이 뛰어든 미국 공화당의 대선 후보 경선 레이스가 6일 첫 TV토론회를 시작으로 사실상 막을 올린다.

4일 토론회 참석을 통보받은 상위 10명의 후보는 '1부리그'에 들었다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 여유도 없이 방송을 통해 인지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비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예상 밖의 압도적 1위를 질주하는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선두를 굳힐 수 있을지, 트럼프에게 여론의 관심을 송두리째 뺏긴 다른 유력 후보들이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련 포인트다.

◇트럼프 독주체제 굳힐까...부시 등 '트럼프 대책'도 주목 = 폭스뉴스가 주최하는 이번 TV토론회는 공화당에서 가장 뜨거운 인물인 트럼프가 처음으로 맞닥뜨린 공식 시험대이기도 하다.

그가 독주 체제를 굳히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멕시코 이민자들은 물론 같은 공화당 경쟁자들에게도 막말을 퍼붓는 '막장 캐릭터'가 부정적 이미지로 되돌아올지가 가장 큰 관심거리다.

전망은 다소 엇갈린다. 대중적 인지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데다가, 유명 서바이벌 리얼리티 TV 쇼 '어프렌티스'에 오랫동안 출연해 경쟁자들보다 훨씬 더 방송에 익숙하다는 사실은 일단 트럼프에게 유리한 요소다.

그러나 트럼프가 비전과 정책 제시

보다는 '네거티브'식 토론에 몰두한다면 여론의 역풍을 맞는 것은 물론 경선의 전체 판도를 진흙탕 싸움으로 몰고 갈 수도 있다.

홍보전문가인 카민 겔로는 AFP통신과 인터뷰에서 "밝은 미래의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후보가 이길 수 있다"며 "미국인은 낙관론자를 사랑한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최근 ABC 뉴스에 출연해 "(토론회에서) 다른 후보들에 대한 공격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거침없이 생각을 표현하는 평소 스타일에 비춰보면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그가 공개 토론에 익숙지 않다는 점도 이런 관측에 무게를 실는다.

다만, 트럼프가 브라운관에서 막말 파문을 벌여 모든 관심을 독차지하면 분위기 반전을 노리는 다른 후보들은 또다시 미디어의 스포트라이트에서 멀어지게 돼 전략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다만, 트럼프가 브라운관에서 막말 파문을 벌여 모든 관심을 독차지하면 분위기 반전을 노리는 다른 후보들은 또다시 미디어의 스포트라이트에서 멀어지게 돼 전략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부시 전 주지사는 트럼프와의 막말 공방을 피하고 외교 정책이나 각주(州)의 주요 현안을 공부하며 정책 대결로 토론회를 주도할 계획이다.

워커 주지사는 보좌관들에게 '가상의 트럼프' 역할을 맡겨 실전과 같은 토론 연습을 반복하면서 자신을 향한 트럼프의 공격에 맞서 방어책을 마련 중이다.

크루즈 의원이나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상원의원, 랜드 폴(켄터키) 상원의원, 신경외과의 출신 벤 카슨 등 나머지 후보들도 국가안보, 복지

재정 개혁, 건강보험 등 트럼프가 상대적으로 약한 정책적 주제들을 내세워 차별화를 시도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특히 트럼프에 밀린 나머지 후보들은 1인당 8~10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발언 기회에서 강한 인상을 심어주기 위한 방안에 골몰하고 있다.

◇어떤 의제로 공방 벌일까 = 첫 TV토론회에서는 불법 이민, 낙태, 총기 규제, 복지재정 등 전통적인 보수 의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막말로 급부상한 불법 이민 문제는 지난 3일 뉴햄프셔 주 맨체스터에서 폭스뉴스 토론회의 전초전으로 열린 '보터스 퍼스트 포럼'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바 있다.

공화당 대선주자들은 대체로 버락 오바마 정부의 이민 정책에 비판을 가하면서도 캐스팅보트를 쥔 히스패닉 유권자들을 의식해 대체로 불법 이민자 강제추방 등 극단적인 주장까지는 퍼지 않을 것이 유력하다.

불법 이민자에 대한 합법적 신분 부여를 지지해 공화당 내 일각에서 비판을 받았던 부시 전 주지사는 토론회를 사흘 앞둔 3일 국경 경비를 강화해야 한다는 안보 전략을 발표해 보수 표심 끌어안기에 나섰다.

아울러 후보들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업적으로 꼽히는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 기후변화 대책, 이란 핵협상 타결, 쿠바와 국교 회복 등에 대해서도 앞다퉈 맹공을 퍼부울 것으로 보인다.

또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의 발호 등 갈수록 꼬이는 중동 분쟁의 해법을 놓고서도 오바마 행정부의 입장을 비판하면서 격론을 벌일 전망이다.

◇후보별 장·단점은 = 의회전문지 더 힐(The Hill)은 이들 상위 10명 후보의 장·단점을 분석했다. 먼저 트럼프의 경우 명백한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그의 거침없는 행보와 기백은 최대 강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반면, 과거 낙태와 보편적 건강보험 정책을 옹호하고 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등에게 정치자금 기부를 이력은 언제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현재 여론조사 2위를 달리는 부시 전 주지사는 트럼프가 흔들리면 곧바로 언론의 집중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지만, 교수 타일에 다소 연약한 이미지가 마이너스 요인이다.

워커 주지사는 최근 3번의 선거에서 화려하게 승리하고 토론의 달인이라는 점은 강점, 역동성이 부족하고 내세울 만한 별다른 실적이 없는 것은 단점을 각각 꼽힌다.

허커비 전 주지사는 방송인 출신으로 무대에 익숙하다는 점과 전략적 기민함을 결들은 삼촌 같은 이미지는 긍정적인 요소지만, 과연 어느 정도의 유권자들이 그를 진정한 후보로 생각하느냐 하는 점에서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카슨은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풀뿌리 공화당원들의 분노를 잘 전달하는 능력을 보여줘 언제나 선두로 치고 올라갈 수 있지만, 공직 경험이 전무한 것이 최대 약점이다.

크루즈 의원은 프린스턴 대학 시절 토론대회에서 우승했을 정도로 토론에 강한데다 언제나 빛을 발휘할 수 있는 기교를 갖고 있지만, 자아가 너무 강하고 당내 비주류라는 점이 약점으로 거론된다.

루비오 의원은 강한 카리스마와 달변은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강점이지만, 보수적인 공화당 내에서 지나치게 어려보이는 이미지와 초선 상원의원이라는 점은 감점 요인이다.

폴 의원은 미디어의 시선을 끌 수 있는 행동과 토론 후에도 상당기간 시청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는 능력은 득점 포인트이지만, 다수가 참여하는 복잡한 무대에서는 옆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작지 않다.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는 토론에 강하고 거센 기질은 선두주자 트럼프를 잡기에 제격이지만, 보수진영에서 신뢰를 크게 받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큰 약점이다.

존 카시치 오하이오 주지사는 진지하고 열정적인 정치인의 면모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만, 다소 두서간 없고 감정 기복이 심한 것이 단점이다.

firstcircle@yna.co.kr
sims@yna.co.kr

오바마 기후변화 정책, 미국 셰일가스 산업에 '날벼락'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버락 오바마 행정부 임기 동안 미국경제 회복을 이끈 셰일가스 산업이 오바마 대통령의 고강도 기후변화 대책에 '뒤통수'를 얻어맞아 휘청거리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3일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청정전력계획'(Clean Power Plan) 최종안에 따라 셰일가스 업계가 패배자(loser)가 됐다고 지적했다.

물론 탄소 배출량을 32% 줄이라는 이번 계획으로 거의 문을 닫아야 할 지경이 된 석탄 화력발전소 업계가 최대 피해자로 꼽힌다.

하지만 당초 수혜자로 여겨졌던 셰일가스도 오바마 정부의 외면으로 뜻밖의 타격을 받았다는 게 FT의 분석이다.

당초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석탄에서 재생에너지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완충 역할을 할 '가교 연료'(bridge fuel)로서 셰일가스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셰일가스 등 천연가스는 발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이 석탄의 절반에 불과해 대체 연료로 주목을 받아왔다.

특히 지난해 6월 공개된 청정전력계획 초안에 600여개 화력발전소의 연료를 석탄에서 천연가스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 포함되면서 셰일가스 붐이 더욱 크게 일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최종안에서는 천연가스 발전을 늘리겠다는 초안의 내용이 빠지고 차세대 에너지인 풍력, 태양광, 수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 담겼으며 이 같은 기대감은 물거품이 됐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지난 4월 미국 내 천연가스 발전량이 31%로 석탄 발전량(30%)을 처음으로 제치는 등 셰일가스의 위상이 한껏 올라간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발표로 셰일가스는 생각보다 빨리 미래 에너지에 바통을 넘겨주게 된 셈이다.

이는 수력·풍력·태양광 발전의 비중이 지난해 13%를 차지할 정도로 재생에너지의 상업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오바마 행정부가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또 셰일가스 역시 시추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이산화탄소보다 더 큰 온실가스인 메탄이 많이 발생한다는 점도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마티 더빈 미국천연가스연합 회장은 "당

황스럽고 실망스럽다"면서 "백악관이 시장을 무시한 것 같다. 천연가스는 오늘날 전력 생산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미국내 최대 석유·가스 로비그룹인 미국 석유협회(API)도 이날 오바마 행정부의 기후변화 대책과 관련해 "미국을 온실가스 감소 분야의 세계적 리더로 만드는 것은 정부 규제가 아니라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통해 개발되는 새로운 기술"이라고 밝혔다.

반면 환경운동가와 신재생에너지 업계는 이번 결정을 환영했다.

환경단체 시에라클럽의 마이클 브론 사무총장은 "위대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메탄 방출을 고려할 때 석탄이나 (셰일)가스는 별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firstcircle@yna.co.kr

박상천 전 민주당 대표 별세... '영원한 맞수' 박희태 "비통"

5선 국회의원·법무장관·야당 대표 족적

(서울=뉴스1) 서상현, 김현 기자 = 민주당 대표를 지낸 박상천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이 4일 오전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77세.

박 전 대표는 그간 암 투병으로 인해 지난 4월부터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 이날 오전 11시 끝내 숨을 거뒀다.

전남 고흥 출신인 박 전 대표는 서울법대 재학중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 20년간 판·검사 생활을 지냈다.

1987년 지난 13대 총선을 앞두고 김대중(DJ)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어 정계에 입문했다. 서경원 전 의원 밀입북 사건 때 당시 야당 총재였던 김 전 대통령의 변호인을 맡아 활약했다.

국회에 입성한 뒤 야당 대변인을 거쳐 여야 원내총무 3차례, 국민의정부 초대 법무장관, 새천년민주당 및 민주당 대표, 통합민주당 공동대표 등 주요 직책을 두루 거치며 야권에서 굽직한 족적을 남겼다.

박 전 대표는 13대~16대까지 내리 4선에 당선되며 정치적 절정기를 달렸다. 박 전 대표는 의원 재임 시절 지방자치법, 통합선거법, 안기부법 개정

등 굽적굽적한 입법을 주도해 '법안 제조기'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다.

새정치국민회의 원내총무 시절인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라이벌이자 절친이었던 박희태 당시 신한국당 원내총무와 담판을 벌여 이회창-김대중 후보간 TV토론을 성사시키기도 했다.

박 전 대표는 직선적인 어투에 논리력이 탁월하며, 불같은 성격이어서 호불호가 분명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박 전 대표는 김 전 대통령의 말을 자르고 자신의 얘기를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인사로 꼽혔다.

1992년 대선 패배 후 정계은퇴를 선언했던 김 전 대통령이 1995년 정계에 복귀한 뒤 새정치국민회의 창당을 추진하려고 하자, 김 전 대통령 등 이른바 16인 모임에서 10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한 것은 유명한 일화다.

김 전 대통령은 박 전 대표가 신당 추진을 반대하는 이유 10가지 중 7가지 정도를 얘기했을 때 "그만하시라"고 말을 자른 뒤 "당신이 신당이 안 되는 이유를 가장 잘 아니 신당을 가장 잘 추진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신당창당 기획위원장을 맡겼다고 한다.

1997년 대선에서 승리한 직후 인수위 시절엔 김 전 대통령을 직접 찾아

가 자신이 법무장관이 돼야 하는 이유 5가지를 들어 설득, 김대중정부 초대 법무장관에 올랐다. 김 전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으로 법무장관 시절엔 '실세 장관'으로 불리기도 했다.

2003년 9월 새천년민주당 분당 사태 때 '정통모임'을 만들어 사수와 수장으로 역활을 했고, 분당 후엔 대표직을 승계해 어지러운 당 상황을 수습하는데 공을 들였다.

그러나 2004년 4월 17대 총선에선 개혁공천을 선언한 '추미에 선대위'로부터 인적 쇄신의 대상으로 낙인 찍혀 공천이 취소되는 등의 우여곡절을 겪으며 출마했지만, 열린우리당 후보였던 신중식 전 의원과 옥중 출마했던 박주선 의원간 치열한 3파전 끝에 결국 낙선했다.

낙선 후 야인 생활을 해오다 2007년 4월 군소 정당이었던 민주당 당 대표 경선에서 승리하며 정치적 재기에 성공했고, 2007년 대선 패배 후 이뤄진 야권 통합의 한 축을 이루며 18대 총선에서 원내 복귀에 성공해 5선 고지에 올랐다. 19대 총선을 앞두고선 총선불출마를 선언하며 사실상 정계를 은퇴, 후배 정치인에게 길을 열어주는 선배 정치인으로서 귀감이 됐다.

박 전 대표는 소신은 강했지만, 의



민주당 대표를 지낸 박상천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이 4일 오전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77세

회주의자로 평가받았다. 박 전 대표는 쟁점법안 표결 전 조정절차를 거치고 조정기간엔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할 수 있도록 하는 필리버스터(합리적인 의사진행 방해 행위)제 도입을 주장했다.

2008년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간 대치로 국회 폭력사태가 발생하자 "법안에 대한 대응에는 찬성이나 반대 이외에 수정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뒀어야 한다"며 당내 투쟁일변도 대응방식에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박 전 대표는 '중도' 성향으로 분류됐다. 그는 총선불출마를 선언했을 당시 "중도진보주의자를 포함해 진보의 범주를 넓혀달라"며 "선거는 중도성

향 유권자들의 향배가 당락을 결정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하루 흡연량이 2갑을 넘는 애연가이기도 했다. 담배와 함께 미국 메이저리그 경기를 보는 것을 즐겨했다고 한다.

박 전 대표는 서울대 법대 동기였던 박희태 전 국회의장과 '영원한 맞수'로 통했다.

박 전 의장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논리와 지성을 갖춘 보기도문 정치인이었는데 참말로 비통스럽다"고 "박 전 대표와는 특별한 인연이었다. 정말 많이 싸웠지만, 우리는 존경하면서 사랑하면서 싸웠다"고 애통함을 감추지 못했다.

gayunlove@news1.kr

Cheap or Quality?

ASC : Boston's #1 ESL School

Fall class starts on September 2nd!

1 ESL or TOEFL 10% Off

Speak to an advisor now!
10% off total tuition for at least 4 months of enrollment. Limited Offer. Book by **September 2nd** for this discount.

2 What makes us different? These colleges accept...

The Level 3 "TOEFL/IELTS Waiver" applies for		The Level 4 "TOEFL Waiver" applies for
Northeastern Univ.	Pre-MBA Program	Benjamin Franklin Institute of Technology
Cambridge College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Duquoy College
Lesell College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Massachusetts Community College
Lesley University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Merrimack College	Undergraduate (iv. 5) Graduate (iv. 6)	The Level 6 "TOEFL Waiver" applies for
Boston Architectural College		Southern New Hampshire University

Main: 1106 Commonwealth Ave. Boston, MA 02215 I. (617) /30-3/05
Downtown: 65 Harrison Ave. 6th Fl., Boston, MA 02111 T. (617) 338-5288
Website: www.ascenglish.com

H MART

Yes, We are **OPEN 365** days a year!
SALE WEEK AUG. 7TH - AUG. 13TH, 2015
ONLY FOR HMART BURLINGTON STORE

STORE HOURS: SUN.-THU. 8:00 AM - 9:00 PM | FRI.-SAT. 8:00 AM - 10:00 PM
 All prices are based on availability. Typographical errors may be present in the prices and descriptions.
 수량에 따라 세일이 일찍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광고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인쇄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CUSTOMER SERVICE
 Toll Fre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100% Quality

FRESH PORK TENDERLOIN 돼지 안심 (WHOLE)
\$3.99 lb.

U.S.D.A. CHOICE

FRI./SAT./SUN ONLY 7/8/9 ONLY
LA 갈비 SLICED BEEF SHORT RIBS (LA)
\$9.99 lb.

FRESH
SLICED PORK SINGLE BELLY FOR BBQ
바베큐용 생삼겹살
\$7.99 lb.

FROZEN
SLICED PORK CT BUTT FOR BULGOGI
냉동 불고기용 돼지목살
\$5.99 lb.

MARINATED TENDERIZED SLICED BEEF RIB EYE STEAK
양념 발집 등심 스테이크
\$6.99 lb.

Smart BBQ AUTHENTIC

Meet our greatest **MEAT SALE EVER**

Make room in your fridge and hurry into a Hmart near you, super sale ends soon.

하마트 신선 정육 대특가전

합리적인 가격으로 준비한 하마트 정육으로 냉장고 한가득 신선함을 채워보세요.

HELLO HOME **BACK TO SCHOOL**

Big Savings!

즐거운 새학기 맞이, 하마트 하우스웨어 특별쿠폰세일

YOU MUST BRING THE FLYER DISPLAYED IN THE STORE TO THE REGISTER IN ORDER TO REAP THE BENEFIT OF THE DISCOUNTS. THERE ARE MORE SALES ITEMS LISTED ON THE FLYER THAT YOU CAN CHOOSE FROM. DUE TO PRODUCT AVAILABILITY, SOME PRODUCTS MAY SOLD OUT SOONER.

전단지에서 더 많은 세일 상품이 가득~ 아쉽게 구비되어있는 전단지를 지참하셔서 더 큰 세일을 누리세요!

AUG. 14TH - AUG. 27TH, 2015

\$12.99 \$19.99 HELLO HOME Elec. Mini Clip Fan 헬로홈 미니 클립 선풍기 Pink/Blue - ea.	\$19.99 \$29.99 YOBO HOME Elec. Glass Kettle 여보홀 전기 유리주전자 White/Black/Lime Green - ea.	\$7.99 \$9.99 HELLO HOME Tumbler 헬로홈 텀블러 White/Black - 500ml/ea.	\$9.99 \$12.99 HELLO HOME Single Coil Burner 헬로홈 싱글 코일 버너 ea.
\$16.99 \$24.99 HELLO HOME Noodle Cooker 헬로홈 면수 스텐 멀티전자주전자 ea.	\$16.99 \$22.99 HELLO HOME Modern Toaster 헬로홈 토스터기 ea.	\$49.99 \$59.99 HELLO HOME Well-Being Juicer 헬로홈 녹즙기 ea.	\$3.99 \$5.99 Mellan Rabbit Slipper 멜란 토끼 슬리퍼 All Colors/pair

Just add **vermicelli** to satisfy the belly~

업선된 김 등은 고구마 건분만 사용하여 면발이 더욱 쫄깃쫄깃한 푸드셀 궁중당면!

JINGA RICE CAKES
 The Freshest Korean Tradition

STAY SOFTER & LONGER

MADE WITH KOREAN PATENTED TECHNOLOGY, ONLY JINGA RICE CAKES STAY SO SOFT, SO MOIST, EVEN AFTER REFRIGERATED.

한국의 특허기술로 만들어서 냉장고에서도 말랑말랑 오래가는 진가떡

Fuji Apple 후지 사과 lb. \$0.99	Koimo Sweet Potato 코이모 고구마 lb. \$1.29 FRI./SAT./SUN ONLY 7/8/9 ONLY
--	---

백천도 White Nectarine lb. \$1.99 FRI./SAT./SUN ONLY 7/8/9 ONLY	USDA ORGANIC Organic King Oyster Mushroom 유기농 새송이 버섯 8oz./pkg. \$3.99	SOO NYEO WON Tofu 수녀원 두부 All Varieties/14 - 16oz. \$0.99 FRI./SAT./SUN ONLY 7/8/9 ONLY	FROZEN Squid 냉동 오징어 lb. \$1.99	FROZEN RICH IN VITAMIN B12 AND SELENIUM. Capelin 냉동 시사모 lb. \$1.99	FROZEN GREAT WITH TOFU AND YOUR DIET. Conch Meat 냉동 소라살 lb. \$9.99
FRESH Whiting 생태 lb. \$1.99 FRI./SAT./SUN ONLY 7/8/9 ONLY	FROZEN 자반 콩치 lb. \$2.99	HARU HARU Medium Grain Milled Rice 하루하루 마이 쌀 15 lbs. \$9.99 MON - THU ONLY 10/11/12/13 ONLY	NISHIKI Premium Grade Rice 니시키 쌀 15 lbs. \$14.99 MON - THU ONLY 10/11/12/13 ONLY	SUHYUP Premium Roasted Seaweed 수협 전장김 선물세트 0.7oz. x 10ea./box \$8.99 MON - THU ONLY 10/11/12/13 ONLY	OSAKI BRAND Fish Cake 오사키 게맛살 1.1 lbs. \$4.99 MON - THU ONLY 10/11/12/13 ONLY
HARU HARU Premium Sesame Oil 하루하루 프리미엄 참기름 56fl.oz. \$14.99	HARIM Instant Ginseng Chicken Stew 하림 즉석 삼계탕 28.21oz. \$14.88 ea./for	FOODCELL Vermicelli 푸드셀 궁중당면 1.5 lbs. \$5 ea./for	DONGWON Light Standard Canned Tuna 동원 라이트 스탠다드 참치 5.29oz. x 4cans/pkg. \$7.99	Q1 Original Sweet Korean Pancake/Honey Pancake w. Seeds 큐원 오리지널 찹호떡/씨앗 호떡 믹스 12.69 - 19.4oz. \$3.99 FRI.-SUN SAMPLING EVENT	HAITAI Nougat Ice Bar 해태 누가바 70ml x 8bars/pkg. \$3.99
PEARL ROYAL Coconut Water 펄로얄 코코넛 워터 All Varieties/ 10.5fl.oz. \$0.99	KINGSFORD Match Light Charcoal 킹스포드 매치 라이트 차콜 11.6 lbs. \$7.99	KOMAX Ice Tray 코맥스 얼음틀 No.2/No.3/ All Colors - ea. \$1.99	KOMAX Gallery Bottle 코맥스 갤러리 물병 Bubbles/Water Color/ 550ml - ea. \$2.49	ZOJIRUSHI Stainless Steel Vacuum Bottle 조지루시 스테인리스 보온병 SF-CC15XA/1.5L - ea. \$29.99	HELLO HOME Electric Grill 헬로홈 전기 그릴 KYS-863A/ea. \$42.99

박근혜 대통령 담화

보스톤코리아 인사이트 : 박근혜 대통령 담화의 핵심은 노동개혁이었다. 노동개혁의 화두는 임금 피크제다. 한자와 영어가 섞여있는 임금 피크제는 현재의 정년이 55에서 내년 60세로 늘어나면서 생기는 임금체제를 56세부터는 임금을 낮춰가는 제도다. 임금 피크제의 도입은 청년실업해소와 노동 유연성 확보에 측면에서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계기로 성과급제 기간제 및 파견노동 확대 등 유연한 임금체계를 위한 길을 터주겠다는 의도다. 더구나 임금체계 변경의 걸림돌인 취업규칙 변경이 그 뒤에 도사리고 있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바꾸려면 현행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 과반수 또는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회사가 마음대로 근무지 조정을 못하게 위해서다. 고용부는 결코 임금피크제, 파견노동 등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취업규칙 변경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노동자와 고용부의 대결이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담화에서 임금피크제에 반대하는 것은 청년 실업해소에 방해 세력이 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청년실업자들의 대결국면으로 프레임을 정한 것이다. 하지만 진정한 설득력을 가지려면 각종 법안세 감면혜택을 받고도 낙수효과가 아닌 600조에 달하는 사내보유금을 쌓아두고 있는 재벌 대기업들에 대한 법안세 개혁도 동시에 내놓으며 모든 사회의 고용분담을 이야기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저소득 노동자만 희생을 강요해서는 설득이 될리 만무하다.

[대통령 담화]박 "경제 대수술 불가피...4대 개혁 반드시 성공"

"임금체계 개편·노동 유연성 제고로 고용-성장 선순환 구조 만들어야"

"힘들어도 후손 위해 가야 하는 길...역대 정부서 못한 개혁 이루겠다"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우리나라가 세계경제의 주역으로 다시 한번 도약하기 위해선 경제 전반에 대한 대수술이 불가피하다"며 공공·노동·교육·금융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에 대한 이행의지를 거듭 다졌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란 제목의 대국민담화를 통해 "앞으로 3~4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노동개혁은 일자리...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및 실업급여 개편"

박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4대 부문 구조개혁 과제 가운데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은 일자리를 노동개혁 없이 청년들의 절망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통도 해결할 수 없다"면서 "고령시대를 앞두고 청년 실업문제를 지금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미래에 큰 문제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내년부터 '60세 정년제'가 시행돼) 인건비가 늘면 기업들이 청년채용을 늘리기 어렵다"면서 "정년 연장을 하되, 임금은 조금씩 양보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청년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정부와 공공기관은 노동개혁과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솔선수범하겠다"면서 "금년 중 전(全) 공공기관의 임금 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에 임금 피크제가 도입되면 국민의 추가 부담 없이 절감된 재원으로 앞으로 2년 간 약 8000여개의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란 게 박 대통령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무원 임금체계 역시 "능력과 성과에 따라 결정되도록 개편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이렇게 임금체계가 바

뀌고 노동 유연성이 개선되면 기업들은 그만큼 정규직 채용에 앞장서 고용과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선 노사의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 청년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기업과 고임금 정규직들이 조금씩 양보와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또 "노동개혁은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지난 4월 한국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협상 결렬 선언 및 탈퇴로 중단된 노사정 대타협 논의의 재개를 촉구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도 근로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더 튼튼히 하고 비정규직 보호를 강화해가면서 노사정 대타협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며 "실직 근로자가 안정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를 현재의 평균임금 50% 수준에서 60%로 올리고,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현행(90~240일)보다 30일을 더 늘리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중복·과잉 기능 통폐합...연 1조 원 절감" 아끼겠다"

박 대통령은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 해선 공무원연금 개혁 등을 그동안의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수석비서관들이 6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발표를 선 자세로 듣고 있다

성과로 제시하면서 "앞으로 공공기관의 중복·과잉 기능을 핵심 업무 중심으로 통폐합해 (공공기관을) 국민에게 최상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봉사하는 조직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국민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정부예산 개혁도 시급한 과제"라면서 "국가 보조금의 부처 간 유사·중복사업은 과감히 통폐합하고, 부정수급 등의 재정누수를 제도적으로 차단해 매년 1조원 이상의 혈세를 아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국회 처리 주문도

이밖에 박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4대 구조개혁을 기반으로 경제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선 무엇보다 서비스산업의 육성이 중요하다"며 국회를 향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개정안,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은 특정 집단이나 계층·세대를 위한 게 아니며, 온 국민과 후손들의 미래가 달린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이제 이 개혁을 반드시 성공시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 나가는 길에 함께 나서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ys4174@news1.kr

같은 대통령 담화 다른 신문 기사

박 대통령 또 '하고 싶은 말만 쏟아내고 끝'

특유화법 답습, 당부만 있고 약속은 없어, 기자들 질문·답변도 생략

(서울=한겨레) 황준범, 최혜정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6일 대국민담화는 여전히 '하고 싶은 말만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박 대통령 특유의 방식을 답습했다.

이날 담화는 '4대 개혁'으로만 주제를 국한한 탓에, 나머지 현안들에 대한 박 대통령의 견해를 들을 기회는 원천적으로 봉쇄됐다. 박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 선 것은 지난 1월 새해 기자회견 뒤 7개월 만이었으나, 이날 담화에는 그사이 온 나라를 불안에 빠뜨렸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에 대한 사과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또 담화에서 "경제 전반에 대한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도, 롯데가의 경영권 분쟁으로 드러난 대기업의 후진적이고 불투명한 경영을 개선할 필

요성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었다. 기자들과의 질문·답변도 생략했다. 청와대는 애초 박 대통령 담화문 발표 뒤 문답 시간을 갖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메르스 사태 사과,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 경제인 사면, 롯데 사태 등 현안들이 쏟아질 경우 담화의 초점이 흐려질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생략하기로 입장을 정했다. 다만 박 대통령은 담화문 발표 뒤 춘추관 기자실에 들러 1시간10분이라는 꽤 긴 시간 동안 머무르며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담소를 나눴다.

또 국회와 국민들에게 협조를 호소하면서 정작 박 대통령의 '실득 노력'은 빠져 있는 것도 이날 담화의 한계로 꼽힌다. 박 대통령은 "안타깝게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3년 이상 국회에 묶

여 있다"며 이 법과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을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국회에 당부했다. 4대 개혁을 이뤄내려면 박 대통령부터 여야 정치권과 노동계 등에 문을 열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지만, 담화에서는 '당부'만 있을 뿐 '약속'은 없었다.

24분에 걸친 이날 담화에 '경제'라는 단어가 무려 37차례 등장했다. '개혁'은 33차례, '국민'이 29차례 언급됐다. 박 대통령은 노동·공공·교육·금융 등 4대 구조개혁을 설명하며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협력", "하나 된 노력", "함께 손잡고 동참" 등 경제 주체들이 힘을 모아줄 것을 호소하는 표현들을 자주 썼다.

jaybee@hani.co.kr

빨간색 '경제 활성화복' 입고...경제 37회·개혁 33회 언급

(서울=조선닷컴) 정시행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6일 대국민 담화를 읽어가는 내내 절박한 표정이었다.

"앞으로 3~4년이 대한민국 미래를 결정할 분수령" "모두가 한배를 탄 운명공동체" "우리의 딸과 아들을 위한 결단" "후손의 미래가 달린 절체절명의 과제" 등의 표현으로 시급함을 강조했다.

"간곡히 부탁(요청)드린다"는 표현만 다섯 번 등장했다. 취임 초기부터 4대 개혁을 내걸었지만 그간 공감대를 넓히지 못했다는 위기의식이 묻어났다. 고통이 따르는 개혁에 대한 국민의 동참을 호소할 때는 부드러운 표정으로 '절박' '절실' 등의 단어를 반복해 썼다.

통상 대통령 담화나 기자회견 때는 장관들과 수석비서관을 옆쪽으로 배석시킨다. 그러나 이날은 청와대 비서관을 취재진 뒤쪽에 선 채로 있게 했다.

국민과의 거리를 좁히고 대통령 자신이 직접 호소하겠다는 뜻을 보이기 위한 배치였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전했다.

이날 담화는 경제 이슈에 집중됐다. '경제'는 37회로 최다, '개혁' 33회, '국민' 30회 순으로 언급됐다. 박 대통령은 경제·산업 관련 행사에서 자주 입어서 '경제 활성화복(服)'이라 불리는 빨간 재킷을 이날도 착용했다. 메르스 사태나 향후 광복절 특별 사면 등 다른 정치·사회 이슈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청와대가 이날 취재진 질의응답 시간 마련을 검토하다 취소한 이유도 경제 메시지에 집중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주 여름휴가 기간 내내 이 담화문을 본인이 직접 다듬고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25분간의 담화 발표 뒤 약 50분간 기자실을 돌며 협조를 당부했다.



DOCTORS MEDICAL PHYSIO GROUP

닥터스통증병원

여러분의 "디스크"를 수술 없이 치료해 드립니다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DRX-9000

최첨단 무중력 감압 디스크 치료기로, 디스크 내부를 무중력 상태로 만들어 감압환경을 조성, 밀려난 디스크를 원상태로 복구하는 무통증 치료로 정상적인 디스크를 해하지 않으며, 근육 및 신경 또한 손상시키지 않는 디스크 치료의 필수장비입니다.



원장 윤창 교수

책임 진료

닥터스통증병원은 28년 경력의 물리치료 전문의와 척추신경 전문의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물리치료 및 교통사고 재활치료 전문 병원으로 최신 장비와 의술로, 모든

환자분들의 환부가 손상되기전의 최고 기능을 회복하며, 신체적인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넓은 진료 장소(브룩라인, 월섬)



닥터스통증병원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DOCTORS MEDICAL PHYSIO GROUP

닥터스통증병원

GOODPT.com

브룩라인 지점(Brookline)

617-731-1001

44 Washington St, Suite 104
Brookline, MA 02445

월섬 지점(Waltham)

617-731-1004

221 Moody St.
Waltham, MA 02453

박근혜 "위안부 문제, 일본 타박하는 뉴스만 나가 죄송"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삼는 것은 내정간섭"...일왕을 '천황 폐하'로 불러

"총리 바뀔 때마다 사과요구...과거문제로 갈등, 국가적으로 창피"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박근혜 대통령의 여동생 근령 씨는 "우리가 위안부 여사님들을 더 잘 챙기지 않고 자꾸 일본만 타박하는 뉴스만 나가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4일 일본 동영상 사이트 니코니코에서 방영된 인터뷰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해 이제 잘살게 됐으니 한국의 힘으로 피해자를 모셔야 한다는 뜻을 밝히고서 이같이 언급했다.

근령 씨는 "정치권에서 하는 말만 주

로 언론에 실려서 나갔으므로 그런 뉴스뿐"이라며 "대부분의 한국 국민은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한국을 많이 사랑해주기를 바란다"고 일본의 인터넷 사용자에게 당부했다.

그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관해 한국 외교부 등이 문제 삼는 것이 "내정간섭이라고 생각한다"며 "혈손이 어떻게 부모를, 자신의 선조를 참배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근령 씨는 "설마하니 아베 총리께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하시면서 '앞으로 또 전쟁을 일으켜서...' 이렇게 참배하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총에 맞아 사망했지만, 자신이 김 전 부장의 유족이나 지인이 그의 묘소를 참배하는 것을 비난할 수 없다고 예를 들기도 했다.

그는 1984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히로히토(裕仁·1901~1989) 일왕이 과거사에 관해 유

감을 표명한 것을 언급하며 총리가 바뀔 때마다 반복해 사과를 요구하는 것을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일왕을 지칭할 때 '천황 폐하'라고 일본어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했다

근령 씨는 "일본은 황국사관(皇國史觀)을 근본으로 한 천황민주주의를 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총리가 선거에 의해서 바뀐다 하더라도, 이런 표현 저런 표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야기하고 정책을 펴간다고 해도 천황께서 어떻게 언급을 하셨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황국사관은 천황(일왕)을 중심으로 국체의 발전·전개를 파악하는 역사관으로 중일전쟁이나 2차 대전 때 일본의 침략행위를 정당화한 사상적 근거라고 비판받았다.

근령 씨는 "왜 전두환 대통령 각하 내외분께서 왜 천황폐하를 그렇게 알현(謁見, 지체 높은 사람을 찾아뵙)하신 것에 대해서 말을 안 하고 있느냐"며 "한 동네에서도 이웃과 자꾸 서로 타박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여동생 근령 씨는 4일 오후 일본 동영상 사이트 니코니코에서 방영된 인터뷰에서 "우리가 위안부 여사님들을 더 잘 챙기지 않고 자꾸 일본만 타박하는 뉴스만 나가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진은 4일 방영된 니코니코의 박근혜 씨 인터뷰 장면

창피하듯이 과거문제를 가지고 자꾸 갈등을 빚는 것은 국가적으로 참 창피한 노릇"이라고 한국의 태도를 지적했다.

그는 일본이 국교 정상화 이후 한국의 근대화나 한센병을 퇴치 등에 큰 도움을 줬다고 강조하며 이런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은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뜻을 표명하기도 했다.

근령 씨는 한국, 미국, 일본이 군사동맹 관계로 반복해 표현했으며 "일본과

한국의 군사동맹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키히토(明仁) 일왕이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과거사에 관해 언급한 '통성(痛惜)의 염(念)'을 히로히토 일왕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한 발언으로 소개하거나 고노(河野)담화를 '고도담화'라고 말하는 등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전하기도 했다.

sewonlee@yna.co.kr

"위안부 없는 곳 없었다"...태평양전쟁 일본군 군무원 증언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태평양전쟁 당시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에 조선인 위안부 시설이 있었다는 일본군 군무원의 증언이 공개됐다.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이하 유족회)는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한 '고노 담화' 22주년을 앞두고 싱가포르에서 B·C급 전범으로 재판받았던 고송복씨(1916)씨의 1990년대 초 인터뷰 영상 일부를 3일 공개했다.

영상에서 송씨는 "당시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팔렘방에 있던 일본군 위안부들은 '제1명월관'과 '제2명월관' 두 곳에 나뉘어 있었고, 수마트라섬 싱가포르든 인근에 조선인 위안부가 없는 곳이 없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명월관을 운영하던 한

국인 형제가 일본군에 협조해 위안부를 관리하며 비호를 받는 '끼나폴'이었다고 증언했다.

1940년대 초 강제징용을 피하려 일본군 군무원으로 입대한 송씨는 인도네시아에서 포로감시원과 보급병 등으로 일했다. 1945년 일본이 패망하자 수마트라섬 팔렘방 지역에 있는 자치조직 '조선인회'의 감찰 역할을 맡았다가 1946년 2월 연합군에 체포돼 싱가포르에서 열린 영국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다.

양순임 유족회 회장은 "90년대 초 전국 각지에서 근조정신대, 위안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영상을 촬영해 보관해 왔다"며 "최근 일본의 역사 왜곡을 보고 진실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letit25@news1.kr



일본군 군무원이었던 고송복씨가 "위안부 없는 곳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신동욱, 위안부 망언 박근혜에 '박 다르크' 극찬...장단이 척척

"천황폐하 발언은 언어습관" 옹호...이희호 방북에는 "대한민국 좌경화" 주장

일 양심 있는 정치인 넘치는데 한국엔 박근혜 외 보이지 않아"

(서울=뉴스1) 박상희 기자 = 신동욱 공화당 총재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망언 논란을 일으킨 아내 박근혜씨에게 "박 다르크를 보았다"고 극찬해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신 총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박근혜 여사가 국민정서에 반하는 줄 알면서도 총정의 소신발언을 한 것은 조국의 미래를 위해서 혈혈단신 가시면류관을 쓰고 십자가를 지고 목숨을 걸었다"며 이렇게 적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을 지켜라! 대한민국을 구하라! 박 다르크를 보았다"고 전했다.

신 총재는 또 "한일 역사문제에 대해서 만든 눈치보기에 급급하다. 용기 있고 소신 있는 발언을 아무도 할 수 없는 사회분위기가 비정상"이라며 "일본의 양심 있는 정치인, 사회인이 넘쳐나는데 한국엔 박근혜 외엔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씨가 일왕을 '천황폐하'라고



박근혜 평화통일연구원 명예 이사장(왼쪽)과 신동욱 공화당 총재

호칭한 것도 적극 옹호했다.

신 총재는 "박근혜 여사가 천황 폐하라고 지칭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아니라 평소 영국여왕을 여왕폐하라 칭호하고 김대중·노무현 대통령각하라고 칭호 한다"며 "지난날 청와대 생활에서 극존칭의 언어 습관이다"라고 주장했다.

신 총재는 이날 방북길에 오른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도 강력 비판했다. 그는 "이희호 여사가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으로 전세기까지 동원해 적국에 방문하는 것을 비판하는 언론도 평론가도 없다"며 "우방국과 적국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인지 구별하지 않는 것인지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좌경화 됐다. 걱정"이라고 적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의 여동생이

기도 한 박씨는 앞서 지난달 30일 일본 포털사이트 니코니코와의 특별대담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우리가 위안부 여사님들을 더 잘 챙기지 못하고 자꾸만 일본을 타박하는 뉴스만 나가는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박씨는 또 "정치권에서 하는 말들만 주로 언론에 실려 나가다보니 그런 뉴스 뿐이다"면서 "대부분의 한국 국민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음을 이해하고 한국을 많이 사랑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씨는 신사참배에 대해 "내정간섭"이란 표현을 사용했으며 "혈손이 어찌 자신의 선조를 참배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sanghwi@news1.kr



PROSPECT

DENTAL GROUP, LLC
Advanced Restorative Dental Clinic

프로스펙트 덴탈의 진료는 미래의 당신을 위한 가장 값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

- 한국어 가능
- 응급환자 당일진료
- 주말 진료
- Walk-ins Welcome
- 각종 보험



Eugene Khang DMD(강유진)

원장: Eugene Khang DMD (강유진)
진료시간: 월-금: 9AM ~ 6:30PM
토: 9AM ~ 5PM

TEL: 617.576.5300
30 Prospect St. Cambridge, MA 02139 (Redline Central Sq.역)
www.prospectdental.com



Dedicated to
Your Health

Icon Dental

아이콘덴탈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백성편과 톱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마이클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성형 및 소아 치열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여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57 Bedford S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d. Suite A8, Concord MA 033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lexington.com
www.icondentallexington.com

Dr. 차영주
치과 일반의
Dr. James Kim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ov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및 잇몸 수술 전문의
Dr. 오종현
교정 전문의

BELLA NAILS

GRAND OPENING

이제 캠브리지에서
한인 네일샵을 경험하십시오
(프리스트웨이 소라 화장품 내 위치)

탈라, 코팅지 펠, 네일 아트, 각질 제거, 푸피 마사지 등 다양한 로러로인료

SORA

소라 화장품
SHISEIDO

20년 전통 보스톤 시세이도 1호점



SHISEIDO ULTIMUNE

노화방지, 수분공급, 푸른빛, 피로회복, 탄력, 밝은 오묘 기능을 갖고 있는 제품. 피부에 탄력을 지켜주는 효과로 인기가 높은 제품



최대용 시세이도 1호점
컨설팅/교육/모형
홍은희

국정원 해킹 및 민간사찰 의혹

보스톤코리아 인사이트 : 국정원 해킹 및 민간사찰 의혹은 예상했던 데로 흘러가고 있다. 국정원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점차 이 뉴스에 식상한 국민들의 기억에서 점차 최소화되어 가는 과정을 바라보고 있다. 문제는 국정원이 해명하면 해명할수록 더 의혹이 커진다는 점이다. 더구나 세상의 모든 것을 가릴 수 없듯 잊혀질만 하면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 댓글 사건처럼 상당 부분의 전모가 밝혀질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이미 국정원 의혹은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할 독자가 있을 수 있지만 분명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이다.

'국정원 해킹' 여야 줄다리기가...6일 기술간담회 무산 '현실로'

여 "로그파일은 안보와 직결..답할 것은 다 답했다"

야 "자료 없는 '깜깜이 쇼' 안돼..6일 넘겨도 제출요구 계속"

참석 전문가는 내정... "명단 달라" vs "자료가 본질"

(서울=뉴스1) 이정우 기자 =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 진상규명을 위해 여야가 합의했던 전문가 기술간담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4일 여야는 국정원의 자료 제출을 둘러싼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대치를 이어갔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요구 중 들어줄 수 있는 것은 이미 들어온 상황이라며 야당이 기술간담회에 전향적으로 나올 것을 촉구하고 있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최소한의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한 기술검증 간담회는 의미가 없다는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여야간 입장 차로 인해 6일 예정됐던 전문가 기술간담회는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

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이 국정원의 자료 제출 미흡을 이유로 6일 예정된 기술간담회에 불참하기로 하는 것을 두고 "이번 사건을 정략적으로 장기화하려는 나쁜 의도가 없길 바란다"며 "국정원은 대한민국 안보의 최일선을 지키는 정보기관이다. 정파적 이익을 위해 국가기밀이 공개되는 우를 범하지 말고 국민의 이익을 위한 국회 활동에 전념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 역시 "야당이 낼 수 없는 자료를 계속 달라며 트집만 잡고 있다"며 "야당이 요구하는 6가지 자료 가운데 2개는 답했고 2개는 간담회에 참석하면 정보위 보고 수준으로 드리겠다고 해서 4가지는 답변이 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답변을 하지 않은 하드디스크 원본과 미삭제 데이터 용량 및 목록의 경우, 원천적으로 로그파일로서 줄 수 없다는 것이 정보위의 때부터 일관된 우리의 입장"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원본을 내놓으라, 로그파일을 내놓라는 것은 어느 나라에도 있을 수 없는 문제"라며 "국민정보지킴이라는 명분으로 국가정보를 파헤쳐 국가정보기관을 무력화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국정원 기술 간담회는 국가안보상 자료를 못 내주는 것을 야당이 계속 제출하라고 해서 대치 상태로 흘러가는 상황"이라며 "야당의 전향적 입장 변화가 없는 한 지금 상태 그대로 흘러갈 것"이라고 말해 이를 이유로 야당이 간담회에 불참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로그파일 원본 등 요구사항에 대한 국정원의 자료 제출 없이 전문가 기술 간담회를 진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하면서 간담회 예정일자인 6일을 지나더라도 자료 제출 요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 신경민 의원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우리당이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아직 답이 오지 않은 것이 4개 있다"면서 "자료 제출 없는 '깜깜이 진상규명쇼'는 처음 2번으로 족하다. 또, '무조건 믿어달라'는 '합창 대회'를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국정원에 자료 제출을 재요구한 것과 관련해서 "내일(5일)까지 답을 달라고 했지만 답을 할지는 모르겠다"면서 "우리는 6일까지 꼭 간담회를 해야한다고 생각지 않는다. 의혹을



새누리당 이철우 정보위 간사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풀기 위한 제대로 된 전문가 간담회를 위해서라면 기다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 국민정보지킴이위원회는 앞서 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당에서 6개 요구사항을 낸 것에 대해 국정원이 지난 금요일(7월31일) 밤 사실상 거부한다는 검토결과를 보내왔다"며 "최소한의 자료가 있지 않는 한 기술 검증 간담회는 의미가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진성준 당 전략기획위원장은 전문가 간담회 파행시 야당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서 "최소한의 조치가 갖춰지지 않은 채 간담회에 임하는 것은 결국 국정원이 바라던 야

당과 수많은 기술전문가들을 들러리로 세우는 꼴"이라며 "오는 6일까지 자료를 제출할 것을 거듭 촉구하고 그 조건이 수용됐는지 여부에 따라 당 입장을 다시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야 모두 국정원 기술간담회에 참여할 전문가는 이미 내부적으로 정해둔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신 의원은 "이철우 간사가 자꾸 전문가 명단을 내놓으라고 하지만 전문가 명단은 이 사안에서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라면서 "자료 제출이 본질이다. 자료 제출이 전제되어야 진상 규명을 위한 간담회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krusty@news1.kr

"숨진 임씨 발견 장소에 국정원 직원들이 먼저...현장 훼손 의혹"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국가정보원 해킹 프로그램 담당 임모 씨(45)의 수색 현장에 소방관보다 국정원 직원들이 먼저 도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2시쯤 경기도 용인의 한 야산에서 자신의 마티즈 승용차 안에 번개탄을 피워 숨진 모습으로 발견됐다.

국정원 직원이 먼저 도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사실 관계 은폐를 위한 현장 훼손 의혹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6일 경기도의회 양근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이 같은 정황이 드러났으며 경기도재난안전본부로부터 제출받은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사건 당일 오전 11시 20분 29초~11시 24분 12초 사이 경기도 재난본부 상황실 근무자와 현장 출동 소방관 간 통화 내용이 담겨있다.

이 녹취록에 따르면 상황실 근무자가 "보호자는 어디 계시는데?"라고 묻자 출동 소방관은 "보호자는 이쪽에 나온 거 같지 않고, 집에 있고, 직장동료 분이 근방에 계셔서 저희랑 한 번 만났다"고 말한다. 이어 상황실 근무

자가 "아, 직장 같이 다니는 사람이?"라고 다시 묻자 출동 소방관은 "네, 직장동료가 인근에 계셔서 직장에는 있으신 분이요 여기 화산리 쪽이랑 해서 자주 왔다 갔다 하신단다"고 답한다.

이후 두 사람은 임씨 보호자의 위치와 관련해 대화를 나누고, 상황실 근무자는 이때 다시 "지금 실종자 친구를 만났다면?"라고 묻는다. 이에 출동 소방관은 "친구를 만난 게 아니라 직장동료 분이 인근에 있어 보호자한테 연락을 받고 저희랑 지금 만났다"고 말한다.

또 다른 녹취록에는 같은 날 오전 11시 35분 10초~11시 36분 33초 사이 또 다른 상황실 근무자와 현장 출동 소방관 간 통화 내용이 담겨있다. 이 녹취록에서는 상황실 근무자가 "이동 펌프가 한 팀은 정상 쪽으로다가 수색을 하라고 한다"고 하자 출동 소방관은 "어디? 그 시공산?"이라고 반문한다.

이어 상황실 근무자가 "도라지골, 도라지골이라고 그러냐"고 전하자 출동 소방관은 재차 "도라지골?"이라고

묻고 이에 상황실 근무자는 "그 관계자한테 한 번 물어보라"고 말한다. 출동 소방관이 다시 "어디 관계자?"라고 하자 상황실 근무자는 "그 위치추적 관계자 같이 없느냐"고 하고 이에 출동 소방관은 "없다. 그 사람들 차 갖고 가서, 그 사람도 나름대로 찾아준다고"라고 답한다.

양 의원은 이에 대해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녹취록을 보면 소방본부는 현장에 있던 사람이 '직장동료'라고 했다고 전한다. 결국 이는 현장에 와 있던 사람이 국정원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또 (숨진 임씨의) 부인이 '직장동료가 인근에 있다'고 소방대원들에게 먼저 소개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간 불분명했던 국정원 직원의 현장 파견이 공식 확인된 셈"이라며 "또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찾아준다고'라는 대목에서는 국정원 직원이 최소 2명 이상의 복수이고, 차량을 갖고 왔다는 것까지도 추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cho11757@news1.kr

박남춘 '경찰, 국정원 임과장 사망당일 마티즈 인계'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은 6일 경찰이 국정원 직원 임모 과장의 사망 당일 임 과장이 숨진 채 발견된 마티즈를 유족에게 인계했다며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임 과장의 사망 당일인 지난달 18일 현장검사가 끝난 뒤 오후 8시 30분께 병원에 있는 유족을 만나 마티즈 인계 의사를 전달했다.

이는 부검을 실시한 19일보다 하루 전, 부검결과가 나온 20일보다 이틀 전으로, 경찰이 부검결과도 확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차량을 유족에게 넘긴 것이라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변사사건 처리규정에 따라 유류품을 인수인계할 때는 인수 확인서를 받아야 하지만 경찰은 이 같은 절차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

인됐다.

경찰은 현장검사에서 타살의 의심한 특이점이 없었고 차량은 유족의 재산만큼 빠른 인계가 불가피했으며, 다른 유류품은 차량보다 이후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경찰이 부검 이전에 차량을 인계하고 유족이 급하게 폐차한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힘들다"며 "범죄 중요 증거를 규정도 어겨가며 인계한 것이 수사관행인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 경찰이 해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josh@yna.co.kr



서울설렁탕


한식 세계화의 종갓집이 되겠습니다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 617.505.6771




가까오는 봄,
서울설렁탕의 미역,
국밥, 보쌈, 육육과 함께
각종 주류를 즐기세요!





서울설렁탕 in Allston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617.505.6771
SeoulBeefSoup.com



서울 Seoul
158 Cambridge St., Boston
617.875.8888
SeoulFoodBaker_bar

Salon Sabrina
헤어스타일리스트 영

염색과 퍼마로 손상된 머리결을
복구시켜 드립니다

전자 모락 트리트먼트



남자컷 25분/여자컷 30분/짜마 70분 부터
디자깅 130분 부터/개머핀 헤어 220분 부터 시작합니다.

광복 연구경 김영남 미용실, 롯데호텔 마리 미용실, 송내 부천 박은 오븐 스텝
뉴욕 Fox헤어 스튜디오, SALON LOFTS sunny 운영

617.947.6840

25 church St. Watertown MA

보스톤코리아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전화: 617.792.6876 이메일: bostonkorean@hotmail.com

JESSICA BEAUTY

한국 종합 화장품 | 참존 화장품 직영

시선집중 잡티개선, 주름개선, 탄력개선, 미백까지...

“화장품에도 당신의 인격과 품격이 묻어납니다”

나만의 화장품으로, 내 피부는 내가 만든다. 소비자의 선택을 도와주고 행복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상륙 참존 스킨타운샷에서 피부관리 하시는
멤버에게만 사용하는 제품

처진 피부에 회소식
스킨타운 프리미엄 리와이징 크림으로
처진 피부를 개선 (탄력강화 조직이 살아납니다)
잡티 개선 참원셀 비타민C.E크림





617.770.0188
온라인 쇼핑몰 오픈 | 무료배송

JessicaSecret.com
219 Quincy Ave. #31-A, Quincy, MA 02169
金門 Kam Man Food 중국마켓 안에 있습니다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턴 한인성당
 St. Anthony of Padua Korean Church
 Weekend Sunday 10am (English) 11:30am (Korean) 4:30pm (Korean)
 Weekday Tuesday 10:30am (Korean), Thursday 7:30pm (Korean)

하느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서고자 하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턴 한인성당은
 새임교자를 위한 고려반을
 9월부터 시작합니다.

미사안내
 No English Mass
 Sunday 10 am
 2015년 6월 21일 ~ 2015년 9월 7일까지
 2015년 9월 20일 - 야외미사
 New Mass
 Sunday 8:30 am
 6월 첫째 주부터 8월 마지막 주까지

45 Ash St. Newton, MA 02466
 617-558-2711, 617-244-9685
 office.kccb@gmail.com
 www.stdaveluychurch.org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살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합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턴 북쪽
 I-95 Exit 388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임목사 유 경 일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보스턴은혜장로교회
 BOSTON GRACE PRESBYTERIAN CHURCH

7 CLEMATIS ROAD, LEXINGTON, MA 02421
 (in the Trinity Covenant Church)

주일예배: 오후 2:00 금요 모임: 저녁 7:30

이 집은 살아있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쁘게 미사 (모임 3:15)
 담임목사: 우시창
 ☎ 교회: (781) 715-0571 팩스: (781) 645-0407
<http://bostongracechurch.org>

뉴햄프셔한인교회
 New Hampshire Korean Christian Church

주일예배 • 오후 1시 30분
 담임목사 • 장계은

12 Station Rd., Bedford, NH 03110 (GPS 주소: 2 Hawthorne Dr. Bedford
 603-264-6779 • 603-264-6788 • www.newkcc.org

성경대로 믿으며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실천하는 교회

사랑제일교회
 Love United Church
 401 King St. Boston, MA 02115

담임목사: 권종성
 Faith Theological Seminary, Ft. Det.
 New York Univ. M.D.
 한양대학교 대학원
 한기승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노회 소속

교회 예배 안내	
주일 예배	오후 2시
주일 학교	오후 3시
평일인공부	오후 4시
화요 공부	오후 7시
수요 예배	오후 7시
구별 예배	각 구역별

* 모든 예배는 영어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All services are translated in English simultaneously

401 King St. Boston, MA 02115 Tel: (617) 695-0275, (617) 695-2404
www.lovethechurch.com

보스턴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 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주일학교: 오후 2시
 종교공부: 오후 2시 대학부모임: 주일 12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임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781.894.3958 목사관: 617.989.5809

보스턴 남부지역의 한인교회
보스턴새힘교회
 Boston New Hope Church

76 Pierce St. Stoughton MA 02072

주일예배 오후 1시 617 622 5225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바로 안에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 계시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주께로 부르짖어, 그 사랑으로 받은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같은, 같은, 같은, 사랑, 같은, 사랑, 부름에 응답할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초대합니다.

금요찬양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예배 오전 10:00
 구별학교, 청소년 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금 오후 8: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6:30, 토 오전 7:30
 영혼교회 주일오후 12:30
 속죄교회 수-주일 속죄법
 영혼교회 화,목 오후 8:00, 주일 오전 9:30
 성령공부 주일 오후 12:30, 수 오후 6:30, 목 오후 8:30

비전교회
 The Peopl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80 Mt. Auburn St., Westtown, MA 02472 Tel: 617.744.8887
www.growwithus.org

**"보스턴에는
 보스턴코리아가
 있습니다"**

지난 10여년간
 보스턴코리아는
 보스턴 언론으로서
 외딴을 걸어왔습니다.
 항상 공평하고 바른 길을
 걸도록 여러분에서 지켜봐
 주십시오.
 앞으로도 보스턴 한인
 역사를 공평하게 기록하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보스턴코리아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617.792.6876
report@bostonkorea.com

bostonhanjin.com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한진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T: 617.782.2424 F: 617.782.2421

귀국이사 / 로컬이사 / 포워딩 / 택배 서비스

여권사진 / 이벤트 사진 / 영상 촬영 및 편집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 디지털 포스터 & 푸드샷 튜터링 Nabis Studio



캠브리지 세계학원

2015년 9월 새학기를 맞이하여 Cambridge World Academy는 2015년 8월9일부터 새롭게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PROGRAM

- | | |
|--|--|
| <p>1. 중국어:
중국전직고등학교 교사
연령별 초/중/고급반
AP, SAT Chinese(2016년 시험 대비반)
HSK/HSKK/YCT/BCT TEST 대비반</p> <p>2. 전, 현직 명문고 교사, 명문대 졸업생
SAT /ACT 고득점 준비반
AP/READING/Writing/TOEFL/ESL</p> | <p>3. SAT SUBJECT TEST
Math/Chemistry/Physics/Biology</p> <p>4. Homestay(중국어 100% 패스),
라이드 제공.</p> <p>5. 방과후 프로그램.(home work 체크)</p> |
|--|--|

2016년 1월 겨울방학 중국 현지체험 접수중!

Address: 545 Concord Ave. Fl3, Suite18, Cambridge, MA 02138
 Red line 종점역Alewife역 에서 하차 도보 10분거리)
 TEL: 617-945-1317 FAX: 617-945-1031
 E-mail: cambridgeworldacademy@gmail.com



Crouser & Suh PLLC

크라우저 & 서 로펌

이민법/국제법 전문 미국 로펌
 한인 변호사들의, 한인들을 위한 최상의 법률 서비스!



이소영
이민 변호사

- 전문인력 취업비자 (H-1B)
- 단기연수인 비자 (J-3)
- 주재원 비자 (L-1)
- 특기자 비자 (O-1, P-1)
- 취업이민 (NW, EB-1, EB-2, EB-3)
- 투자비자 (E-2) / 투자이민 (EB-5)
- 종교 비자 (R-1) / 비자 변경 및 연장
- 가족초청 이민 / 시민권 신청
- 추방 재판 / 각종 이민 관련



이지니
이민 변호사



박보나
이민 변호사



Yegul We
이민 변호사



스티브 서
이민 변호사

Crouser & Suh PLLC

251 Harvard Street Suite 8, Brookline, MA 02448

Tel: 617.566.7979 / 617.877.3435

Fax: 617.566.7982 www.stevesuh.com / www.suhladyer.com

탐 브래디의 증언 녹취록 주요 포인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뉴잉글랜드 패트리엇스의 쿼터백 탐 브래디가 지난 6월 23일 NFL을 방문해 4경기 출장 정지에 대해 항소한 내용이 공개되었다. NFL 선수노조는 뉴욕 연방 법원에 NFL을 상대로 한 소송장을 다시 접수하면서 브래디의 증언 녹취록이 포함된 4120 페이지 분량의 서류를 접수했다.

지난 6월 진행된 브래디의 항소는 10시간 이상 진행되었다. 당초 NFL과 NFL 선수노조는 브래디의 항소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으나 법원의 명령으로 대중에게 공개되었다. 457페이지에 달하는 브래디의 증언 녹취록에서 주요 포인트 5가지를 살펴보자.

1. 증인 선서를 하고 대답

브래디는 항소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고 진술을 시작했다. 브래디는 선서를 했기 때문에 거짓을 말할 경우 위증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선서를 한 뒤의 진술은 그만큼 신뢰성이 높다고 여겨진다.

브래디는 풋볼의 공기압을 낮추도록 지시했는지, 공기압을 낮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직접적인 질문들을 받았다. 브래디는 이런 종류의 질문에 대해 강하게 부정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AFC 챔피언십 게임에서 풋볼의 공기압력을 낮추거나 변경하라고 지시하거나 알려주

나 허락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브래디는 "당연히 아니라"라고 답했다.

2. 공기압이 낮은 풋볼에 대한 브래디의 생각

브래디에 대한 항소 심리가 끝나기 직전에 로저 구델 NFL 총재는 패트리엇스 직원들이 풋볼의 압력을 바꾼 것에 대해 브래디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분명하게 듣기를 원했다.

이에 대해 브래디는 "나는 그렇게 (직원들이 풋볼의 공기를 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믿는다. 나는 누군가 풋볼을 조작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3. 핸드폰 파기에 대한 설명

항소 심리 과정에서 브래디는 핸드폰을 파괴한 것에 대해 질문을 받았다. 심리 초기에 브래디는 민감한 정보가 대중에게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핸드폰을 없애버린다고 말했다.

브래디는 "나는 핸드폰을 교체할 때 이전에 사용하던 핸드폰을 완전히 없애버리라고 말한다. 핸드폰을 완전히 없애버려야 누군가 핸드폰을 초기화하거나 무엇인가를 조작해 안에 있는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4. 에이티앤티의 서한



탐 브래디는 예년과 다름없이 트레이닝 캠프에서 훈련을 하고 있지만 올해 개막전에 출전할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 알 수 없다

NFL 선수노조가 공개한 문서 중에는 휴대폰 통신회사 에이티앤티가 브래디에게 보낸 서한도 포함되어 있다. 브래디는 자신이 받거나 보낸 문자 메시지를 되살릴 수 있는지 에이티앤티에 문의했고, 에이티앤티는 서한을 통해 문자 메시지는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알렸다.

에이티앤티의 서한에는 "발송된 문

자 메시지를 수신자가 받게 되면 에이티앤티는 그 내용을 보관하지 않는다. 만약 문자 메시지가 72시간 내에 정상적으로 전달되지 않으면 에이티앤티는 그 문자 메시지를 삭제한다"고 적혀 있다.

5. 나는 풋볼을 꼭 잡지 않는다

브래디는 풋볼을 잡는 법을 골프 클럽을 잡는 방법에 비유하여 설명했다. 풋볼을 꼭 쥐어 짜듯이 잡지 않기 때문에 공기 압력의 작은 차이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브래디는 "골프 클럽을 꼭 잡지 않는다. 골프 클럽은 부드럽게 잡아야 한다.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나는 풋볼을 잡는다"고 말했다.

jsi@bostonkorea.com

보스톤 한인야구리그 17라운드 경기 소식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지난 8월 1일 뉴튼 캐봇 베이스볼 파크에서 열린 보스톤 한인야구리그의 제17라운드 경기에서는 뉴잉글랜드 에이스와 매스 워리어스가 각각 오전과 오후경기에서 승리하였다.

이날 17라운드 매치는 오전의 캠브릿지 바나나스(Cambridge Bananas)와 뉴잉글랜드 에이스(New England Ace), 오후의 매스 워리어스(Mass Warriors)와 브루클라인 빌리버스(Brookline Believers)의 경기로 구성되었다.

제1경기는 1위팀 다운 저력을 보여준 NEA가 13:7 신승을 거두며 연승행진을 이어 갔다.

이날 경기는 3회에서 6회까지 무실점으로 막아낸 투수들의 힘이 돋보이는 경기였다고 판단된다. 선발 투수인 정찬웅 선수가 5이닝 3실점, 이어 등판한 김종형 선수가 7회에 4실점하며 역전을 허용하였으나 타자들이 바로 재역전에 성공하고 김종형 선수가 잘 마무리하여 경기를 마무리 지었다.

투수들의 이러한 호투에 타자들 또한 응답하였다. 비록 투수들이 7회에 역전을 허용하였지만 바로 다음 공격때 6득점 빅이닝을 만들며 분위기를 다시 가져왔다. 압도적인 모습은 아니지만 4, 5번 타자인 폴추 선수와 벤 박 선수가 필요할때 보여주는 클러치 능력은 왜 강팀인지를 확인시키는 모습이었다.

CB의 입장에서선 굉장히 가까운 경기를 놓친 것이라 판단된다. 2, 3위를 격으며 한창 분위기를 올린 시점에 맞붙은 1위와의 경기가 다소 부담스러울수도 있는 경기였을 수도 있지만 분명히 승리할 포인트도 있었고 확실히 역전에 성공도 하였다. 하지만 결정적인 패인으로 분석되는 것은 역시 실책이었다. 최근 달라진 모습을 보여준 CB의 입장에서선 안타까운 부분이라 보여진다. (승: 김종형, 패: 정민수)

오후에 펼쳐진 MW와 BB의 경기에선 MW가 BB를 24:12로 잡으며 다시 공동 3위로 올라섰다.

이날 경기의 최고 수훈선수는 경기의 마지막 3이닝을 책임진 황철



사진은 보스톤 리그 대표팀

중 선수라고 보여주는 경기였다. 사실 선발투수인 조태용 선수가 5이닝 11실점으로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 하지만 황철중 선수가 남은 이닝을 2안타 1실점만을 허용하며 MW의 모습을 마지막을 지키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타선에서는 2, 3회를 제외하고 힘 없이 터뜨리며 좋은 타격감을 보여주었다. 특히 7, 8회에 총 14득점은 타선의 응집력을 대변하는 부분이

라고 판단된다. 대부분의 타자들이 멀티히트나 득점에 성공하여 전체적으로 좋은 모습이었으나 2번타자인 김봉의 선수가 2루타 두개를 포함한 4타수 3안타 5득점 2볼넷 2도루로 가장 눈에 띄는 활약을 하며 수훈선수로 선발되었다.

BB로서는 굉장히 뼈아픈 패배로 보여진다. 경기를 들여다 보면 초반부터 좋지 않은 모습이었다. 항상 좋은 모습을 보여온 이승원 선수가

2이닝 3실점, 데이비드 황 선수가 3이닝 5실점, 특히 마무리 투수인 폴유 선수가 3이닝 16실점하며 패배하였다. 패인으로 분석되는 부분은 어마어마한 수치의 실책이다. 폴유 선수가 3이닝 16실점을 하는 동안 무려 14실책을 기록한 부분은 많은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부분이며 2위 수성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승: 황철중, 패: 폴유)

bostonkorean@hotmail.com



전 미주 지역의 Network과 Teamwork 그리고 다년간의 경험과 New Star 부동산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의 성공과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매주 40대 한인 부동산 그룹 / 20여년 역사 / 1500명 이상의 에이전트 / 연30억불의 매출실적 / 20여 개의 대외지사 / 한국 및 캐나다 지부사



백영주
617-921-6979



Kwang O Kim
617-792-8615



Joanne Song
617-797-3562



Sue Rong Tsai
617-792-8842



Yukai Sun
860-830-8599



Thomas Park
617-880-9790



이제봉
781-654-5281



애나 정
617-780-1675



최진민
617-877-0387



Ritika Chopra
617-697-1191



Michael Yun
617-459-5985



OT Kim
617-620-8242

단독주택 Single Family



\$499,000
Sharon, MA
3 Beds, 2 Baths, 1440 sf.
Two-level ranch home
Fully fenced in yard, 좋은 학군
이현주 401-935-3397



\$579,000
Sharon, MA
4 Beds, 2.5 Baths, 2303 sf.
New septic system
편리한 교통
이현주 401-935-3397



\$364,900
Braintree, MA
3 Beds, 1.5 Baths, 1266sf.
Great Location!!
많이 업그레이드 된 집
이현주 401-935-3397



\$720,000
Lexington, MA
3 Beds, 2 Baths, 1512 sf.
84 Acre lot, 좋은 학군
조용한 주거환경
제니스리 978-806-6023

단독주택 Single Family



\$599,000
Bedford, MA
3 Beds, 2 Baths, 2238 sf.
Quiet and nice place to live
Gina Choi 978-866-3248



\$325,000
Framingham, MA
3 Beds, 1.5 Baths, 1452 sf.
Excellent location
Gina Choi 978-866-3248



\$1,399,000
Lexington, MA
5 beds, 3.5baths, 4050 sf.
Maintained 2012
Top notch construction
OT Kim 617-620-8242



\$519,000
Tewksbury, MA
4 beds, 2.5 baths, 2958 sf.
Cul-de-sac 에 위치
편리한 교통
Kwang O. Kim 617-792-8615

단독주택 콘도 Condominium



\$569,000
Wilmington, MA
3 Beds, 2.5 Bath, 3100 sf.
편리한 교통, 관리가 잘된 집
Anna Jung 617-780-1675



\$949,900
Arlington, MA
5 Beds, 3.5 Bath, 3498 sf.
Quiet Cul-De-Sac
Anna Jung 617-780-1675



\$420,000
Boston, MA
1 Bed, 1 Bath, 474 sf.
Luxury condo
Jay Lee 781-654-5281



\$318,000
Hopkinton, MA
2 Beds, 2.5 Baths, 1651 sf.
좋은 가격의 깨끗한 콘도
Michael Yun 617-459-5985

Investment
E-2 & EB-5 투자
문의: 781-259-4989

한국프랜차이즈 가맹주 모집
Call for detail
S.J Park 617-304-7001

Condo Rental
\$2,950
Cambridge, MA
2 Beds, 1 bath, 1142sf.,
Anna Jung 617-780-1675

Condo Rental
\$2,700
Lexington, MA
2 Beds, 2 baths, 1318sf.,
Kwang O. Kim 617-792-8615

Restaurant
\$275,000
Boston, MA
5년된 샌드위치 스토어
Jay Lee 781-654-5281

Restaurant
\$130,000
Cambridge, MA
High traffic main road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음
Sue Rong Tsai 617-792-8842

Full Plant Cleaner
\$180,000
Bedford, MA
Turn Key Business
26년동안 잘 운영된 비즈니스
Kwang O. Kim 617-792-8615

Condo Rental
\$1,450
Acton, MA
2 Beds, 2.5baths, 820sf.,
안전하고 좋은학군
Gina Choi 978-866-3248

Lexington Office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Tel. 781.259.4989 Fax. 781.259.4959
www.BostonNewStarRealty.com

Newton Office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Tel. 617.969.4989 Fax. 617.969.4959
www.NewStarRealty.com

Agent 모집합니다. 781.259.사구팔구 617.969.사구팔구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40 Wall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www.BostonNewStarRealty.com
www.NewStarRealty.com

Each office independently owned and operated
보통 주택 판매 / 상업 부동산 / 투자 부동산 / 임대 부동산 / 부동산 관리 / 부동산 마케팅 / 부동산 컨설팅 / 부동산 투자



김형진
781-956-0409



박성종
617-304-7001



Hazel Seung
617-895-7676



Shell Yu
781-526-2416



제니스 리
978-806-6023



신보경
508-361-6064



Claudia Lee
617-817-사구팔구



이현주
401-935-3397



Gina Choi
978-866-3248



Sara You
781-526-2416

Restaurant  \$479,000 Cambridge, MA Center of Harvard Sq. Including Liquor license 3400 sf. Capacity of 120 people Anna Jung 617-780-1675	Full Plant Cleaner  \$180,000 Bedford, MA Established in 1989 Great potential to grow Kwang O. Kim 617-792-8615	Full Plant Cleaner  \$180,000 Salem, MA Salem Downtown Turnkey Business Kwang O. Kim 617-792-8615	Restaurant  \$499,900 Brookline, MA Coolidge Corner 전철역 근처 Restaurant w/ Liquor 5000 sf. 180 인석 Anna Jung 617-780-1675
Business Consulting  레스토랑 셋업 컨설팅 SJ Park 617-304-7001	Commercial  커머셜 건물 투자 S.J Park 617-304-7001	비즈니스 빈자리  센트랄 sq., 하버드 sq. 올스톤, 뉴튼 센터 S.J Park 617-304-7001	병원건물  \$860,000 Worcester, MA 6552 sf., 38대 주차공간 Umass Memorial 병원 옆 Anna Jung 617-780-1675
Coin Laundry  \$55,000 Brookline, MA Drop-off and coin laundry Good location for business Anna Jung 617-780-1675	Restaurant  \$199,900 Newton, MA Korean-Japanese Restaurant Sushi bar and liquor license Anna Jung 617-780-1675	Sushi Bar  \$90,000 Newton, MA Good Location 성장 가능성 많은 비즈니스 Anna Jung 617-780-1675	Full Plant Drycleaner  \$19,000 Norwood, MA 40 lbs Washing Machine 넓은 주차공간 Anna Jung 617-780-1675
Investment E-2 & EB-5 투자 문의 781-259-4989	Restaurant \$290,000 Somerville, MA Famous Restaurant, As-is SJ Park 617-304-7001	Restaurant \$440,000 Boston, MA Well-Established, As-is SJ Park 617-304-7001	Restaurant \$2,600,000 Dedham, MA Legacy Place Center Sue Rong Tsai 617-792-8842
Restaurant \$490,000 Boston, MA 발전가능성이 많은 비즈니스 SJ Park 617-304-7001	Full Plant Cleaner \$260,000 Chelmsford, MA Chelmsford downtown Anna Jung 617-780-1675	Restaurant \$198,000 Cambridge, MA 하버드 스퀘어에 위치 Anna Jung 617-780-1675	APT Rental 보스톤 아파트 전문가! 가격, 지역, 방 갯수 등 원하시는 조건에 맞추어 찾아 드립니다. David Kim 781-956-0409



최고의 실력과 탄탄한 경력을 갖춘 에이전트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곧 전화하세요 !!!

가나안 부동산
손동한
 Director of RE
 www.cdnre.com
**부동산 투자 / 아파트 렌트
 주택 매매 / 비즈니스 매매**
 161 Harvard Ave, Suite 2, Allston MA 02134
 617.290.0623 son2323@gmail.com

한인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비자 / 영주권
 투자이민/취업이민**
 Lawcity7@gmail.com
 617-877-3435
 www.Stevesuh.com

Vol. 11 No. 31 August 7 2015

한인들과 함께하는 좋은 신문 Bostonkorean@hotmail.com

발행처 :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903-3010

한진택배
 HANJIN EXPRESS
 보스톤 대리점
 Tel 617.782.2424
 175 Harvard Ave St14A, Allston, MA

업소탐방 298
와보라
 254 Newbury St., Boston, MA 02116
 (617) 431-2284
 waborausa.com

Welcome, **와보라**
 한국 방송 3시 케이블 TV 무제한 시청
**언하는 한국 방송 언하는 시간에
 내마음대로 무한대로 시청하다**
티보 플레이어의 특별한 장점
 회비를 비교해 보세요
 10 TV의 24시간 시청
 YTN 과 아리랑 방송 24시간 실시간 방송 시청
 50%로 낮추고도 24시간 24시간 무제한 시청
 방송3시와 케이블 함께 계약
 10% 할인 혜택
7월 특별 할인!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617.955.9112
 자주 전화주세요
 무제한 시청 할 \$29.99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10% 할인 혜택
 10% 할인 혜택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함요한 기자 = 보스톤 도시의 패션거리인 뉴베리 스트리트에 아시안 퓨전 비스트로 및 스시 전문 레스토랑 '와보라(Wabora)' 가 개업했다.

스시 요리 경력이 10년이 넘는 와보라의 대표 김민수 사장은 캐나다 토론토에 와보라 1호점을 운영하고 있다. 김 사장은 "자는 시간 외에 늘 새로운 메뉴에 관한 아이디어를 내고 있다" 며 "캐나다 지점에는 자신이 직접 만들어낸 롤 메뉴가 75가지 종류가 있다" 고 말했다.

와보라에서는 다른 곳에서 찾아 볼 수 없는 독특한 스시롤을 접할 수 있다. 메뉴에는 과자 나초를 이용해 만든 나초 스시(Nacho Sushi)를 포함해 아이스크림 선디(Sundae) 롤, 본뜬 선디 롤(Sundae Roll), 망고 롤(Mango Roll), 드래곤 텡 롤(Dragon Tongue Roll), 볼케이노 롤(Volcano Roll), 스시 피자(Sushi Pizza) 외 30여 개의 다채로운 스시롤을 맛볼 수 있다. 김 사장은 '각각의 롤은 자신만의 캐릭터와 매력이 있다' 고 덧붙였다. 스시 롤 소스에 관해 김 사장은 '소스를 만들 때 설탕을 첨부하지 않고 오직 천연 소재로 단맛을 만들어 낸다' 고 밝혔다.

와보라의 자랑거리는 스시 뿐만이 아니다. 와보라의 우동 국물은 김 사장이 직접 손수 만든 소스를 사케와 같이 섞어 3일동안 우려낸 김민수 사장표 우동이다. 김 사장은 "한번 와보라의 우동을 맛본 손님들은 계속 우동을 찾으러 오게 된다" 며 뿌듯해했다. 이어 에피타이저 및 디저트 메뉴로 양념치킨과 하와이 코나 커피(Hawaii Kona Coffee), 라떼, 팔빙수 등 종류가 다양하다.

와보라의 내부 또한 메뉴와 더불어 독특하고 세련된 모습이다. 김 사장은 "레스토랑의 스타일을 깔끔함과 모던함이 조화된 분위기를 선사하고 싶었다" 며 "너무 럭셔리 하지 않고 편안한 모습을 위해 레스토랑 내부 전체를 개조했다" 고 말했다.

'와보라' 는 한국어말 그대로 '와서 보라는 뜻' 이다. 김 사장은 "손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여 와보라를 통해 손님들과 행복한 추억을 만들고 싶다" 며 "와보라와 즐거운 인연을 시작하자니 너무 흥분되고 하루빨리 즐기고 싶다" 고 전했다.

김 사장은 "보스톤은 한국 유학생들이 자주 드나드는 곳이다" 며 보스톤 한인들과 곧 만나 뵙기를 희망한다" 고 전했다.

와보라의 영업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

까지며 일요일은 영업을 하지 않는다.
 jham@bostonkorea.com



지구촌방주교회
 Global All Baptist Church
2015 출애굽기 시리즈
 주일예배 10PM, 달남목사 유영민
bgabc.org
 403 Main St, Malden, MA 02148
 TEL: 617.836.6434
 global all baptist church in malden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781-648-0584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508-740-9188

코리아 여행사
 617.267.7777
 1.800.473.1922

보스톤코리아 업소탐방
 신청 방법:
 전화번호 617-254-4654
 bostonkorean@hotmail.com

오리엔트 여행사
 Orient Travel
617.536.8888
 myorienttravel@gmail.com
 theorienttravel@yahoo.com

CHOISIGNS & DESIGN
ART
간판 및 사인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 Car Sign, Lighted Box, All Types of Signs.
 617.470.1083
 e-mail choisigns@yahoo.com

한인 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한인들과 함께 하는 좋은 신문



현재 한인업소록의 각종 전화번호를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혹 누락된 번호가 있으면 617-254-4654나 bostonkorean@hotmail.com으로 바로 연락 주십시오. 즉각 반영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접 주요 전화

가정폭력상담소(Ex. 33)	617-338-2352
견인	800-632-8075
고등교육위원회	617-727-7785
고등교육정보센터	800-442-1171
공중위생국	617-624-6000
구세군	617-536-7469
국세청	800-829-1040
날씨문	617-976-6200
로간국제공항	800-235-6426
미아찾기	888-477-6721
백베이역	617-345-7958
보스턴공립학교	617-635-9000
보스턴수도	617-989-7000
보스턴시청	617-635-4500
보스턴경찰서	617-641-2830
사우스역	617-345-7958
사회보장국	800-772-1213
성폭행	781-237-9110
성폭행	617-492-8300
시간문의	617-637-123
아동보호	617-748-2000
아동학대	800-792-5200
알고음/마약	617-445-1500
여성학대	617-248-0922
온전연허	617-351-4500
텔레어	617-348-8500
자원봉사	800-522-8086
적십자	800-564-1234
전화신청 (Verizon)	800-941-9900
전화교정신청(Verizon)	617-555-1515
택시	617-343-4475
AAA	800-222-4357
FBI	617-741-5533
MBTA	800-392-6100
NSTAR가스	800-572-9300
NSTAR 전기	800-592-2000
RCN케이블TV/전화	800-746-4726

한인회

뉴잉글랜드 한인회	781-933-8822
뉴햄프셔 한인회	603-767-1356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401-368-0467
메인 한인회	207-756-0092
버몬트 한인회	802-734-2521

주요 단체

국제한국여성선교연합회	978-407-7554
국제한국여성선교연합회(미)	603-889-8201
뉴잉글랜드클럽협회	617-438-9763
뉴잉글랜드공공연구회	978-902-8305
NE교육자협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문인협회	978-688-3137
뉴잉글랜드 신약회	774-270-1948
뉴잉글랜드시인협회	508-962-2689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해변대전우회	617-833-1360
대매사추세츠태권도협회	603-894-5425
민주평통보통협의회	413-535-0916
보스톤 대한체육회	781-326-9009
보스톤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미노인회	978-994-5490
재미교과기술행회	857-998-7043
재향군인회	339-298-7187
세원인협회	508-826-5270
이탈도도도인연합회	978-514-3399
한인학교단체협의회	781-424-5269
FA한인경제인협회	401-481-4900
한국언어이동학(메인)	207-878-5652
625창조유공자회	978-725-9597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781-367-5993

동창향우동호회

건국대학교동창회	401-738-8735
경기고등학교동창회	508-995-7242
경기여고동창회	781-861-0437
경북고동창회	617-921-8799
고려대학교 교우회	617-795-1779
뉴잉글랜드 신약회	774-270-1948
배재중·고등학교동창회	978-474-4780
보스톤 신약회	978-569-3256
보스톤한인사회관	617-789-4964
산사람	774-270-1948
서경대동문회	617-599-9869
서울고 동문회	617-792-2635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서울신학대학교동창회	
성곡관대동창회	802-734-2521
영정중고등학교동창회	508-541-6969
이화여고동창회	617-277-0730
이화여대동창회	978-390-1552
중앙대학교동창회	603-622-8883
강원도민회	617-875-1801
충청향우회	678-717-8800
한양대동문회	781-708-3160

언론

보스톤코리아	617-254-4654
한인일보	781-933-8822
한국일보(뉴욕)	718-482-1111
Grapevine Times	781-548-9945

종교

기독교	
구세군 물든교회	617-792-8780
그린랜드 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글로벌 미션 보스톤교회	617-913-3074
나사렛사람교회	781-439-18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턴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갈보리교회	413-789-9888
구세군물든교회	617-792-8780
그레이스연합감리교회	203-459-8517
그리나치한인교회	203-861-1134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나사렛사람교회	781-439-1840
내슈아한미음교회	603-888-80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잉글랜드한미교회	413-567-9142
뉴턴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뉴햄프셔감리교회	617-990-7619
뉴햄프셔장로교회	603-437-5134
뉴햄프셔한인교회	603-264-6799
라이코스교회	978-387-1115
라이스한인침례교회	508-926-8236
로드아일랜드성당교회	401-353-0983
로드아일랜드제일교회	401-944-0020
리생명의길장로교회	401-821-2311
메리맥 교회	978-806-1363
목양교회	617-223-1690
무지개교회	207-774-1617
말일한인교회	978-244-0691
렉싱턴 풍성한교회	617-953-0856
버클랜드 침례교회	617-864-5948
보스톤 국제교회	617-459-6479
보스톤 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톤 사랑의교회	617-285-8870
보스톤 사랑제일교회	978-844-2404
보스톤 은혜장로교회	781-715-0571
보스톤 새로남교회	617-947-6765
보스톤 새생명교회	978-777-1800
보스톤 생명의 교회	978-578-6987
보스톤서부장로교회	781-894-3958
보스톤 성결교회	781-275-8233
보스톤 성령교회	781-396-1004
보스톤 소망교회	781-686-5526
보스톤시온성교회	978-758-4541
보스톤신실교회	781-279-3270
보스톤 온누리교회	781-933-7044
보스톤웨슬레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톤 장로교회	508-435-4579
보스톤 제일교회	617-458-2733
보스톤 주님의교회	617-966-9608
보스톤 중앙교회	617-230-5004
보스톤필그림교회	857-636-9985
보스톤 한인교회	617-739-2663
보스톤 한우리교회	978-454-0454
보스톤한인연합교회	617-923-9581
북부보스톤감리교회	978-470-0621
비전교회	617-308-2391
새빛교회	781-652-0001
새여우살렘교회	774-249-0022
선한목자장로교회	904-400-9386
성요한 교회	781-861-7799
순복음 보스톤교회	617-413-5372
스프링필드한인장로교회	413-789-4522
스프링필드제일교회	413-781-2477
시온감리교회	601-739-8439
안디옥 교회	978-534-3394
열방교회	617-620-3362
에이치 밴델교회	978-274-2359
엠펙스 한인장로교회	413-549-6495
엠펙스 시온교회	413-549-9200
올스톤한인교회	617-642-7403
우스터 교회	508-799-4488
워싱턴프린터 교회	918-876-2815
임마누엘 연합교회	617-818-5596
자연교회	603-437-6151
좋은영교회	978-390-6613
지구촌방주교회	617-838-6434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케임브리지연합감리교회	781-861-3877
켄싱턴성당교회	617-770-2755
하바드 한인교회	617-441-5211

불교

문수사	781-224-0670
서운사	508-755-0212
심광사	617-787-1506
원불교	
원불교보스톤성당	617-666-1121

천주교

보스톤 한인천주교회	617-558-2711
로드아일랜드한인천주교회	401-499-8258

간판

초이스간판	617-470-1083
-------	--------------

건강식품

보스톤정관장 브랜드스투어	781-238-0303
---------------	--------------

건축

글로벌건축	617-645-6146
김원태 건축사	617-620-8242
김남진건축	508-650-8844
선아건축	508-230-5878
솔로몬 DRYWALL	978-761-0623
신중축 루핑사이드 침문	617-999-9616
이블드 건축	617-833-1360
파인항건축	617-688-6833
한샘(주)	781-487-0101
ECO Construction	781-608-2971
E/Y 건축	617-590-3472
J.C건축	781-738-7871
J&D 인테리어	617-645-6661
LEE'S건축	617-538-0558

골프개인

골프레슨	617-458-2733
골프스쿨	617-775-5527
남궁연골프교실	978-474-4780

ABC골프	603-401-7990
최현주 골프 레슨	339-223-4700

공인 회계사

김양일 회계사	617-901-0707
김창근 세무사	781-935-4620
노성일공인회계사	781-863-2232
이현주 회계사	781-944-2442
이명원 회계사	617-455-8073
정진수회계사	508-584-5860
한미선회계사	617-792-2355
한성애회계사	617-283-7151

꽃

미스타화원	617-666-3116
데코플라워	617-875-0648
앤더슨꽃집	781-894-1843

금융/모기지

인디펜던트(류영욱)	617-777-2929
이중지리	781-591-2722
이종수파인뱅크	617-799-6158

뱅통/에어콘/히팅

JK 플러밍	978-303-7000
Nirvana Air	508-473-3429

노래방

도레미노래방	617-783-8900
진 노래방	617-782-9282

도서관

뉴햄프셔한인도서관	603-644-1991
보스톤공립도서관	617-539-5400

당구장

올스톤당구장	617-782-0969
--------	--------------

동물병원

김분수 동물병원	978-851-3626
윤상태 동물병원	978-343-3049
제임스킴 동물병원	978-658-5282

떡/잔치/반찬

형제떡집	978-975-3303
장음식주문	781-648-0584
한아름	617-547-8723

미용실

가위소리	617-782-8111
그레이스커파티어	978-468-0039
그레이스커파티어	617-331-1011
단오 헤어살롱	617-413-5372
뷰티풀 헤어살롱	857-284-3879
세리 미용실	781-676-7374
알구정동열공방	617-437-0378
웨스트메인헤어	508-734-0446
티케이헤어디자인	508-768-7675
프루페셔널헤어디자인	978-272-7886
헤어 스크린	617-787-1735
헤어 센스	617-773-1220
헤어 Collage	617-354-4660
미용실 코리아LEE	617-913-3559
AYER BEAUTY SALON	978-772-6555
최희희헤어(Biss Image)	617-818-5596
헤어앤드그레이스살롱	508-879-7777

돌상 대여

해피돌상	617-583-2339
------	--------------

방송국

엔티비보스톤사입국	617-955-9112
-----------	--------------

변호사

김성식특허변호사/변리사	617-239-0839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박현중특허변호사	978-474-8880
성기주변호사	617-504-0609
스티브지 변호사(미인법)	203-852-9800
윌리엄드/엑커맨변호사	203-324-6155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정선진변호사	617-230-0005
피터전변호사	203-386-0503
JOHN DOWNEY 법률사무소	647-964-5809
STEVEN S. KIM 변호사	617-879-9979
Joy Lee 변호사	617-624-0292
Young Lee Danesh	617-367-4949

병원

가정의	
그레이스 김 가정의	978-475-5656
내과	
송민근	617-696-7600
허버트뱅크(이재용)	617-421-2282
한서동내과	401-722-0305
산부인과	
최의웅산부인과	401-726-0600
이윤노산부인과	508-427-3000
소아과	
장경이 소아과	978-687-2119
심리상담	
배주은심리상담사	617-566-1055
심리상담	
사무라이	617-236-7672

김자향심리치료사	781-769-8670 x6080
양미아헤일리케어셀링	508-728-0832
임나경심리상담사	617-738-9622

재활의학

가족물리치료병원	781-365-1876
닥터스통증병원	617-731-1004
성진우정추신경전문	978-688-6999
추 남남 D.C.	617-230-4250

치과

김동원치과	978-689-9363
퍼스트코이스덴탈그룹	860-623-2601
브라이언치과	978-655-1583
신영목 치과	617-265-5606
안 치과	781-647-8000
엑셀패밀리덴탈	617-471-6970
이영원치과	508-987-8228
이오셉치과	781-431-7295
케임브리지덴탈	617-492-8210
케임브리지덴탈	617-

▶광고 마감: 매주 화요일 오후 5시 (신문) ▶수표 보내주소: Payable to: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 Suite 13 Allston, MA 02134

**사업의 시작은
이경해 부동산**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알뜰 나눔터 안내

보스톤코리아는 2013년 5월 1일부터 새로운 알림광고 요금정책을 적용합니다. 보스톤 코리아 네이션 와이드 광고를 선택하시면 LA, 애틀란타, 뉴욕, 시카고, 애틀란타, 달라스, 시애틀 및 보스톤까지 총 미주 8개 지역의 오프라인 신문을 통해 광고를 동시에 내보내도록 합니다. 네이션 와이드의 광고는 총 5줄까지 가능하며 한 달 광고료는 \$50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N**은 보스톤 지역 외 네이션 와이드 광고임을 알려 드립니다. 만약 보스톤 지역 광고만을 원하실 경우 한 달에 \$30입니다. 결제는 그레딧카드로 하실 수 있으며 개인수표 또는 머니 오더 등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신문 광고 마감은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입니다. 보스톤코리아닷컴 광고는 신청 당일 업데이트 가능합니다.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아기보면서 가사일 도와주실 분 구함.
웨스트포드 지역, 풀타임/파트타임.
T. 617-755-1535

매니큐어리스트 구함.
상당 후 렌트 or 이익 분배 가능.
T. 617-331-1101

CSI 찰스타운 캠퍼스에서
국제 입학 담당자를 구합니다.
http://csinow.theresumator.com/apply/

**룸렌트 및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Plymouth에 위치한
네일살롱 매매**

3,000 SF.
8 페디큐어 체어
8 테이블
2 왁스 룸
Asking Price: 360K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전화로 연락주세요
617 223 7836

4989 부동산매매는
뉴스타부동산
617-969-사구팔구
www.newstarrealty.com

하우스 매매

웨스트우드(Westwood) 4베드룸, 3
배스, 1층 랜치. 조용하고
아주 좋은 위치 1.3에이커의 대지.
32Meadowbrook.com
가격 \$749,000
리맥스 홈팀 617-933-9778

Amherst 3개 대학 근처 세탁소
팝니다. (16년간 운영, 주인 은퇴)
(영주권 신청 가능) T. 413-549-3612

올스톤에 위치한 오피스 스페이스
서블릿 입주자 구합니다.
T. 617-418-0784 (수잔)

(급매) 벌링턴/사우스쇼어물에 있는
헤어약세사라가게 팝니다. 좋은가격
T. 312-350-0159

N [그로서리 매 매]
그로서리 매매코저 합니다
Hot Food, 델리, 샌드위치 포함
월매상 \$60,000 이상
월 - 금 까지 OPEN
단독건물입니다
리타이어로 급매코저 합니다.
T. 501-753-1691

N [매 매]
테네시에 위치한 13년된 세탁소
월마트 쇼핑물에 위치함
매매가 \$ 320,000, 월매상 \$ 30,000
기계가 대부분 교체되어 새장비임
렌트비 월 \$ 2,500, 면적 1,600sf
T. 931-241-0415

N [매 매]
플로리다 잭슨빌에 있는
스파 매매합니다.
성업중인 가게로 건강상의 문제로
매매코저 합니다.
꼭 관심있으신 분만 연락 바랍니다.
T. 321-458-2858

N [매 매]
당도가 높은 콩, 간수 썬 천일염, 인디
안 스프링 약수를 사용한 전통식 된장,
간장을 판매합니다.
지방 한인 마켓이나 단체 주문시 도매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T. 678-764-0331, 678-656-9977

N [급 매]
콜롬버스 조지아 지역
웃수선, 컴퓨터자수
드라이크리러 픽업
10만불 - 5만 9천불로 조정
T. 706-330-1978

N [매 매]
FL Stuart에서 7년째
영업중인 일식집, 2,000 Sf, 75석
월렌트 \$2,700, 매매가 \$50,000
T. 772-285-8629

N [매 매]
샬롯, NC 일식당 매매
히바치 16 그릴 스시바
7,000 SF 단독건물
좋은 조건에 팝니다
T. 406-259-6211

N [매 매]
치킨링, Fish(생선) 튀김가게
렌트비 월\$1,600, 면적 1,400 SF
좋은 로케이션, 주변 식당들이 모두 잘
됨. 지역은 노스캐롤라이나 웨이트빌
장비는 거의 새것임
매매가격: \$70,000
T. 910-868-4499 (11AM - 7PM 까지)

Get Educated. Do More. CLASSES STARTING SOON! 888.873.5082

CSI is the perfect choice when it comes to studying in the United States. CSI is ranked by SEVP as one of the top five F-1 and M-1 approved schools with the largest population of international students. Whether you are trying to apply for a student visa or transfer from another school CSI can help.

CSI가 다른 학원들과 다른 특징 ?

- 저렴한 학비
- 인턴십을 통한 CTP획득 기회
- 영어 프로그램 공식 여름 방학
- 국제 학생입학 : 해외 학생들의 비자변경, 학교 편입을 도움

ESL Programs - \$3600 per year
English Programs - \$4200 per year
Skill Building Programs - \$4700 per year
*Books and supplies not included in tuition

COMPUTER SYSTEMS INSTITUTE
esl.csinow.edu

CAMPUS LOCATIONS
Chicago • Skokie • Lombard • Gurnee • Elgin
Charlestown/Boston • Worcester



윤미래X보이즈노이즈 '캡처 더 시티'

(서울=뉴스1스포츠) 박건욱 기자 = 윤미래와 글로벌 DJ 스타 보이즈노이즈(BOYZ NOIZE)의 콜라보 프로젝트 '캡처 더 시티' (Capture The City) 뮤직비디오에 대한 해외 팬들의 반응이 뜨겁다.

'캡처 더 시티'의 뮤직비디오는 지난 달 31일 유튜브와 SNS들을 통해 공개된 후, 국내를 비롯해 세계 각지의 해외 팬들의 극찬을 받고 있다.

이번 뮤직비디오가 게재된 유튜브 페이지에는 "나의 여왕, T(윤미래)가 돌아왔다!(Yess Lady T is back, My Queen!)" "퀸미래(Queen Mirae)" 등 윤미래를 여왕으로 일컬으며 열광하는 해외 팬들의 좋은 반응이 줄을 잇고 있다.

한 해외 팬은 "티셔츠 한 장 입었을 뿐인데 윤미래는 정말 멋져 보인다. 노래도 너무 좋아서 머리에서 떠나질 않는다" 라고 극찬해 눈길을 끌었다.

또 팬들은 이번 곡에 대해 "대체 누가이 노래를 싫어할 수 있을까? 그녀는 정말로 어떤 곡이든 더 좋게 만들어 버린다", "이런 실험적인 비트가 너무 좋다. 정말 '쿨' 하다. 물론 윤미래는 언제나 멋지고" 라고 엄지를 치켜세웠다.

'캡처 더 시티'는 서울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소음을 캡처해 보이즈노이즈가 그 소리들을 활용, 실험적이고 감각적인 비트를 만들어냈다. 윤미래가 직접 쓴 랩을 더해 완성시킨 댄스 넘버로, 광화문, 명동, 홍대, 상암동(누리꿈스퀘어), 테헤란로 등 서울의 명소를 360 구면 파노라마 기법

으로 담아낸 뮤직비디오까지 공개하며, 완성도 높은 글로벌 콜라보 프로젝트로 호평받고 있다.

한편 보이즈노이즈는 미국 음악전문지 롤링스톤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DJ에 선정된 바 있으며, 윤미래는 미국 MTV Iggy가 선정한 세계 여성 랩퍼 Top12에 선정됐다.



'협녀, 칼의 기억' 감독이 직접 밝힌 제목의 의미

(서울=뉴스1스포츠) 장아름 기자 = '협녀, 칼의 기억' 제목에 얽힌 뜻이 공개됐다.

오는 8월 개봉되는 영화 '협녀, 칼의 기억'(감독 박흥식)은 칼이 곧 권력이던 고려 말, 왕을 꿈꿨던 한 남자의 배신 그리고 18년 후 그를 겨누는 두 개의 칼, 뜻이 달랐던 세 검객의 피할 수 없는 숙명을 그리는 액션 장르의 작품이다. 배우 이병헌과 전도연, 김고은, 이경영, 김태우, 이준호 등이 출연한다.

'협녀, 칼의 기억'은 천민도 칼 하나로 왕이 될 수 있던 극심한 혼돈의 시대, 고려 말 무신정권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왕은 허수아비요, 왕조차 쥐락펴락하는 권력가들의 수탈로 백성들의 고통이 날로 심해져 갔다. 백성들이 절망으로 고통 받는

것을 보다 못한 세 검객 풍천, 월소, 덕기(훗날 유백)는 세상을 바꾸자는 하나의 뜻 아래 풍진삼협이라는 이름으로 민란을 일으킨다.

만형 풍천의 칼은 뜻을 세우고 설랑의 칼은 불의에 맞서며 막내 덕기의 칼은 소중한 것을 지켜 뜻을 완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권력의 유혹 앞에 무너진 유백의 배신으로 이들의 대의는 한순간에 무너지고 만다. 형제와 같던 유백의 뼈아픈 배신과 대의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속에 살아가던 월소는 풍천의 딸 흥이를 데려와 복수를 완성할 검객으로 길러낸다.

박흥식 감독은 "'검에도 마음이 있다. 검을 쥐는 자가 심어 놓은 마음이다'라는 영화 속 대사가 있다. 칼에도 사연이 있다는

설정 아래 세 검객이 갖고 있는 사연을 영화 속에 녹였다"며 제목에 얽힌 의미를 밝혔다. 제목 속 '칼'은 세 검객을 상징하는 것으로 '기억'은 칼에 심어진 세 검객 각각의 사연과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을 말하는 것이다.

고려를 탐하는 칼 유백과 대의를 지키는 칼 월소, 복수를 꿈꾸는 칼 흥이까지 서로 뜻이 다른 세 검이 18년 후 다시 만나 부딪치며 이 영화는 절정으로 치닫는다. 박흥식 감독이 11년이라는 시간 동안 공을 들여온 '협녀, 칼의 기억'에 깃든 세 검객의 이야기는 강렬한 드라마와 진한 여운을 선사하며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다.

aluem_chang@news1.kr

'용팔이' 예고편 공개, 김태희 손에 흥건한 피

(서울=뉴스1스포츠) 권수빈 기자 = '용팔이' 주인공들의 미스터리가 담긴 1분 예고편이 공개됐다.

SBS 새 수목드라마 '용팔이' 측은 5일 밤 10시 첫 방송을 앞두고 몽환적인 1차 티저 예고 영상과 스펙터클한 2차 예고 영상에 이어 파격적인 1분 예고 영상을 선보였다.

"용팔이가 누구야?"라는 질문에 이어 "용팔이? 용한 돌팔이"라는 대답으로 시작된 영상은 조폭들을 왕진 다니는 와중 뛰고 달리는 태현(주원 분)과 그런 태현을 비릿한 웃음으로 마주하는 도준(조현재 분)과 이과장(정웅인 분)의 모습이 그려진다.

이윽고 교통사고가 난 여진(김태희 분)이 눈을 뜬 뒤 "나쁜 꿈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잠에서 깨는 것이다. 그가 내 이름



을 불러줄 때까지"라고 하는 대사, 그리고 "나를 깨우지 말았어야 했다"라는 자막을 뒤로 하고 여진의 손에 피가 묻은 장면까지 숨겨지게 이어졌다.

이번 예고편에서는 각 캐릭터에 대한 자막이 등장한다. 태현의 경우 "그래도 나는 의사다"라는 자막이, 도준과 채영(채정안 분)은 각각 "절대 그 애가 깨어나선 안 돼", "팔려온 대가가 겨우 이겨야? 난 좀 더 원해"

라는 설명이 더해지면서 이들을 둘러싼 미스터리도 가미된다.

SBS 드라마 관계자는 "이번 1분 예고편은 드라마 스토리를 기본으로, 주인공들의 숨겨진 비밀을 알리는데 주력했다"며 "본방송 시작과 함께 펼쳐질 이들의 열연을 기대해달라"고 밝혔다.

ppbn@news1.kr

백종원의 간단 돈가스 소스 레시피

(서울=뉴스1스포츠) 온라인뉴스팀 = 백종원이 추억의 맛을 낼 수 있는 돈가스 소스 레시피를 공개했다.

백종원은 지난 4일 방송된 tvN '집밥 백선생'에서 "서양식 돈가스 소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루'다"며 "밀가루와 버터를 1대 1의 비율로 섞는다. 골고루 저어가면서 갈색이 될 때까지 볶아 루를 만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루에 케첩과 우스터 소스를 가미하면 돈가스 소스가 된다"고 덧붙였다.

돈가스 소스 레시피는 물 2컵과 우스터 소

스 케첩을 한꺼번에 팬에 넣은 후 천천히 저어준다. 여기에 설탕 1소주컵, 우유 1컵을 넣어 엉겨질 때쯤 후추가루를 조금 넣어 완성한다.

누리꾼들은 "백종원 돈가스 소스 레시피 대박이다", "백종원 돈가스 소스 정말 추억의 맛이다", "백종원 돈가스 소스 어린 시절 먹었던 돈가스가 생각난다", "백종원 돈가스 소스 레시피 다음에 꼭 해봐야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poolchoya@news1.kr



한주간



시청률 순위

2015년 7월 27일 ~ 8월 2일

Nielsen Media TV 지상파 주간시청률

1	KBS2	주말연속극(파랑새의집)	23.7%
2	KBS1	일일연속극(가족을지켜라)	22.9%
3	MBC	주말드라마(여자를올려)	21.0%
4	MBC	주말특별기획(여왕의꽃)	16.1%
4	KBS1	KBS9시뉴스	16.1%
6	KBS1	전국노래자랑	14.3%
7	MBC	무한도전	14.1%
8	KBS1	가요무대	14.0%
8	KBS2	해피선데이	14.0%
10	KBS2	일일드라마(오늘부터사랑해)	13.2%

Tbo Play 주간시청률

1	MBC	일일연속극(위대한 조강지처)
2	KBS2	아침드라마(그래도 푸르른 날에)
3	MBC	주말드라마(여자를올려)
4	KBS1	일일연속극(가족을지켜라)
5	SBS	월화드라마(상류사회)
6	MBC	일일특별기획(딱너같은딸)
7	MBC	아침드라마(이브의 사랑)
8	SBS	드라마스페셜(가면)
9	MBC	창사특별기획(화정)
10	SBS	일일드라마(돌아온 황금복)

* 한국 TV KBS, MBC, SBS를 월 \$37.99에 볼 수 있는 티보 (617-955-9112) 지금 신청하세요!

한주간 음원 차트 순위 10

01	위잉위잉	혁오 (hyukoh)
02	와리가리	혁오 (hyukoh)
03	양화대교	Zion.T
04	SHAKE IT	씨스타
05	Remember	Apink
06	심쿵해 (Heart Attack)	AOA
07	뱅뱅뱅 (BANG BANG BANG)	BIGBANG
08	꺼내 먹어요	Zion.T
09	Oasis (Feat. ZICO)	Crush
10	RESPECT (Feat. 로꼬 외)	Sik-K, 릴보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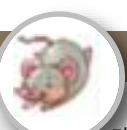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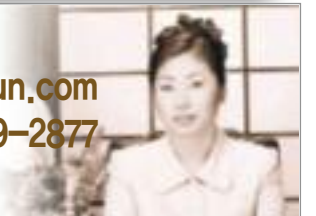
숫자 퍼즐 (Sudoku)

7	2				3	5	6	
		3			5	7		
				2			1	3
						8	4	5
	5		2		7		3	
3	4	9						
2	8			3				
		5	8			3		
	3	7	9				8	1

8월 9일 - 8월 15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쥐띠 | 웃음꽃이 활짝 필

●운수:내가 먼저 배플면 돌아오는 것이 더 많을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들 덕에 좋은 일도 생기겠습니다. ●금전: 자신에게 유리한 거래 상대를 만나게 됩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수입이 증가할 것입니다. ●애정:서로를 좀 더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만들어집니다. 밖에서나 가정에서 웃음꽃이 활짝 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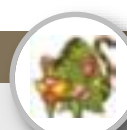
84, 72, 60, 48, 36년생은 12, 15일 길일. 10, 13일 주의.



소띠 |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운수:현재까지 막혀있던 일들이 자연스럽게 풀려나갈 것입니다. 기대 이상의 효과까지 덤으로 얻게 됩니다. ●금전:투자나 거래에서 이익이 따라줄 것입니다. 금전적으로도 여유가 생기겠습니다. ●애정:두 사람 다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솔직하게 애정표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85, 73, 61, 49, 37년생은 9, 13일 길일. 11, 14일 주의.



범띠 | 냉정하게 판단하고

●운수:차분한 마음가짐으로 모든 일에 철저히 안전을 기해야 할 때입니다. 냉정하게 판단하고 변화는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좋겠습니다. ●금전:스스로 일을 만들어서 손해 보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잠깐 판단을 잘못해서 큰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애정:더 이상 기다린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으니 이제는 단호하게 마음을 접어야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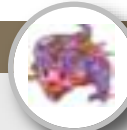
86, 74, 62, 50, 38년생은 10, 14일 길일. 9, 12일 주의.



토끼띠 | 사랑의 힘이 필요함

●운수: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과 사소한 일로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말과 행동을 조심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금전:금전으로 인한 분쟁이 따르더라도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 화해를 청하면 받아주세요. ●애정:진실한 사랑의 힘이 필요한 때입니다. 상대가 반석처럼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어주면 관계는 저절로 회복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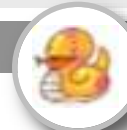
87, 75, 63, 51, 39, 27년생은 11, 15일 길일. 10, 13일 주의.



용띠 | 황금같이 귀한 인맥을 쌓는

●운수:여러 가지 면에서 의욕이 되살아나니 특히 새로운 일에서 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황금같이 귀한 인맥을 쌓게 될 것입니다. ●금전:투자 타이밍으로 아주 좋습니다. 기대치 이상의 실적을 올리게 됩니다. ●애정:젊은 부부는 귀여운 아기의 탄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아기를 갖기에 최고의 시기가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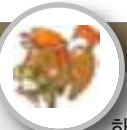
88, 76, 64, 52, 40, 28년생은 12, 13일 길일. 14, 15일 주의.



뱀띠 |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운수:현 상태가 다소 힘들다고 해서 마음마저 약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리막길이 있으면 오르막길도 있는 것이니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꼭 잡으세요. ●금전:이익과 계산이 너무 앞서면 판단력이 흐려져서 실수하기 쉽습니다. ●애정:가까운 사이로 발전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약간의 배려에도 상대가 편안하게 느끼고 마음을 열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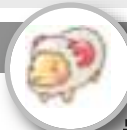
89, 77, 65, 53, 41, 29년생은 11, 13일 길일. 12, 15일 주의.



말띠 | 다음 기회로 미루는 것이

●운수:비교적 안정되어갑니다. 단, 뭔가 변화를 시도하려고 하면 제약이 따르고 움직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금전:문서 이전이나 매매는 다음 기회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손실을 막기 위해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애정:혼란스럽고 갈등이 생깁니다. 자기 자신이 소중한 듯이 다른 사람도 소중한다는 인정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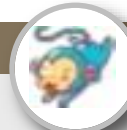
90, 78, 66, 54, 42, 30년생은 9, 14일 길일. 10, 13일 주의.



양띠 | 금전적으로도 회복되는

●운수:부정적인 생각으로 자신의 앞날을 걱정하는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현실에 대처해나가야 합니다. ●금전:과감한 투자나 매매 등에 있어서 서광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금전적으로도 회복될 것입니다. ●애정:마약처럼 한 번 중독이 되면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상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10, 15일 길일. 12, 14일 주의.



원숭이띠 | 관대한 마음을 갖도록

●운수:새로운 일에 손을 대거나 연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스스로 일을 만들어서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금전:솔직한 대화를 나누세요. 돈 문제로 오해가 생겨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애정:관대한 마음을 갖도록 하세요. 상대에게 너무 완전한 인격이나 완전한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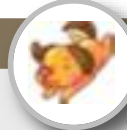
92, 80, 68, 56, 44, 32년생은 13, 14일 길일. 9, 12일 주의.



닭띠 | 밝은 전망이 보이고

●운수:밝은 전망이 보이니 사업상으로 커다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금전:금전적인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아서 불편함을 겪던 상태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애정:두 사람의 뜻이 잘 맞을 때입니다. 부부의 마음을 모으는 데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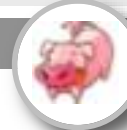
93, 81, 69, 57, 45, 33년생은 9, 14일 길일. 10, 12일 주의.



개띠 |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야

●운수: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승부수를 두어야 할 때가 오면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야 하겠습니다. ●금전:약간의 위험을 각오하고서라도 한 발을 내딛으면 이익이 따라줄 것입니다. ●애정:일을 통해서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데이트 신청을 받게 됩니다. 부부간에 화합하니 서로 편안해집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10, 14일 길일. 9, 11일 주의.



돼지띠 |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야

●운수:만사가 다 귀찮아지고 싫증을 느끼게 됩니다. 감정조절을 잘하고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금전:예상외의 지출이 늘어서 은행잔고가 줄고 있습니다. 활동하는 것에 비해서 이익이 많지 못한 편입니다. ●애정:고부간 갈등의 한가운데에 놓이게 되는 괴로운 남자의 입장이 됩니다. 지혜롭게 극복해나가야 하겠습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11, 15일 길일. 9, 12일 주의.

'열애' 송승헌 유역비, '한중 비주얼 커플'

(서울=뉴스1) 온라인뉴스팀 = 송승헌 소속사 더좋은이엔티 측은 5일 "송승헌씨와 유역비씨가 좋은 관계로 만나고 있다. 열애를 시작하지 얼마 안 됐다"며 "중국 보도에서 처럼 양가 인사를 나누는 단계까진 아니다"고 두 사람의 열애를 인정했다.

송승헌과 유역비는 영화 '제3의 사랑'에서 호흡을 맞췄다. 중국 매체는 송승헌이 자신의 차를 타고 유역비와 함께 유역비의 별장으로 들어갔으며 다음 날까지 나오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유역비의 아버지는 10조 자산가로 지난 2002년 중국에서 23번째 부자로 꼽혔다. 유역비의 집 크기는 축구장의 4배로 알려졌다.

송승헌이 중국 여배우 유역비와 열애 중이다. © News1스포츠 / 영화 '조조, 황제의 반란' 스틸컷

유역비는 청순한 외모로 팬들 몰고 있으며 영화 '천녀유혼' 리메이크 판에 출연해 국내에서도 친숙한 배우다. 영화 개봉 당시 내한하기도 했다.

앞서 송승헌은 자신의 SNS를 통



해 유역비와 찍은 사진을 종종 공개했다. 두 사람은 친근한 모습으로 미소 짓기도 하고 송승헌이 유역비의 허리를 감싼 모습도 보였다. 또 유역비의 등 뒤로 손을 돌려 보호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는 송승헌 모습도 있다.

송승헌, 유역비 열애에 네티즌들은 "송승헌, 유역비 열애라니 대박이다", "송승헌, 유역비 잘 어울리네", "송승헌, 유역비 한중 커플 탄생이구나" 등 반응을 보였다.

ppbn@news1.kr



빅뱅 싱글 'E', 하루 만에 국내외 음악차트 '올킬'

(서울=뉴스1스포츠) 온라인뉴스팀 = 빅뱅의 신곡이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빅뱅의 새 싱글 'E'는 5일 공개된 직후 국내 각종 음원차트를 석권했다.

빅뱅의 싱글에 담긴 '우리 사랑하지 말아요'는 이날 오전 6시 기준, 소리바다, 지니, 올레뮤직, 네이버뮤직, 엠넷, 빅스뮤직 등 주요 6개 음원사이트 실시간차트 1위를 기록 중으로 빅뱅의 저력을 입증했다.

특히 '우리 사랑하지 말아요'와 '떨어'가 수록된 싱글 'E'는 브루나이, 캄보디아, 칠레, 엘살바도르, 핀란드, 홍콩, 인도네시아, 마카오, 말레이시아, 멕시코, 페루, 필리핀, 싱가포르, 대만, 태국, 베트남 등 16개국에서 1위에 올랐다.

빅뱅 싱글 소식에 누리꾼들은 "빅뱅, 대단하다" "빅뱅, 역시 빅뱅" "빅뱅, 최고네요" 등의 다양한 의견을 보이고 있다.

sport@news1.kr

'두 번째 스무살' 최지우, 15학번 새내기로 변신

(서울=뉴스1) 명희숙 기자 = '두 번째 스무살' 포스터가 공개됐다.

tvN 새 금토드라마 '두 번째 스무살' 제작진은 5일 포스터를 공개해 본편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공개된 사진 속 최지우는 15학번 새내기 대학에 입학해 두번째 스무살을 맞은 여주인공 하노라로 완벽 변신했다. "하이음~ 15학번 하노라입니다

!"라는 상큼 발랄한 카피문구와 함께 푸르른 잔디밭에 누워 싱그러움 미소를 짓고 있는 최지우의 모습이 드라마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다.

제작진은 "대학 캠퍼스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드라마답게 푸른 잔디밭에 누워 이색적인 포스터 촬영을 진행했다. 다섯 명의 배우들이 서로의 무릎을 베고 누워서 촬영했는데 다들 진짜

대학 캠퍼스 잔디밭에 소풍 온 것 같으며 즐겁게 촬영했다. 포스터뿐 아니라 실제 드라마 촬영장에서도 배우들의 힘이 무척 좋고, 다들 스무살 청춘이라는 컨셉처럼 파릇파릇하고 싱그러움 분위기 속에 촬영을 이어가고 있다. 많은 기대 부탁 드린다"고 전했다.

reddgreen35@news1.kr



천지보살
운명사주궁합신점
전화예약 617-947-6799
전화로도 상담해드립니다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c@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OTK 김원태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EA & NY) • BOA#B - GGT - LMSB AP
MA REALTOR® - EA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건축 & 시공
15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특수주택과 뉴욕 건축사 전문 라이선스 보유
특별 프로그램으로 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기법 - 설계 - 허가 - 시공 - 관리
각종 건물 신축 - 통축 - 개축
We can Design Build Buy Sell your home!
상용건물 - 콘도 - 주택 - 사업체 매매 도와드립니다
otk212@gmail.com 617.620.8242

New name for &TV

TBO PLAY RATINGS

티보 시청률

TBO Play는 한국 방송 및 영화 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정식 라이선스를 받아 북미지역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브의 사랑' 윤세아, 첫회부터 눈도장

(서울=뉴스1스포츠) 이경남 기자 = '이브의 사랑' 윤세아가 위기를 기회로 삼는 영특함으로 안방극장 눈도장을 찍었다.

윤세아는 18일 오전 7시50분 방송된 MBC 새 아침드라마 '이브의 사랑'(극본 고은경 / 연출 이재준)에서 피붙이만큼 아꼈던 친구의 배신으로 모든 것을 잃지만 스스로 역경을 극복하고 사랑과 행복을 되찾는 여주인공 진송아 역을 맡아 열연을 펼쳤다.

첫회부터 진송아의 위기 대처 능력이 돋보인 한 회였다. 진송아는 JH그룹의 입사 면접을 치르기 위해 길을 걷던 도중 가방을 소매치기 당했다. 이에 그는 정신 없이 소매치기를 뒤쫓기 시작했고, 격한 달음박질 탓에 구두굽이 부러지자 맨발의 질주를

감행하며 가까스로 가방을 되찾았다.

하지만 안심할 겨를도 없이 또 다른 난관이 찾아왔다. 맨발인 상태로 면접을 볼 수가 없었던 것. 결국 그는 소매치기를 잡아 준 구강모(이재황 분)로부터 불고염치하고 운동화까지 빌려 신는 순발력을 발휘해 눈길을 끌었다.

이처럼 진송아는 첫 방송을 통해 현명하고 영특한 캐릭터로 그려지며 시청자들의 관심을 끄는데 성공했다. 특히 오랜만에 정극으로 돌아온 윤세아는 아직 때 묻지 않아 티없이 맑고 부족함이 없는 진송아의 성격을 여실히 묘사하며 그에게 건 많은 이들의 기대에 부응했다.

앞서 익히 예고되었듯이 차후



윤세아는 순수했던 진송아가 굴곡 많은 인생을 경험하며 내면적으로 보다 강인해지고 성숙해지는 과정을 심층 표현할 예정이다. 변화가 많은 캐릭터를 선보이

는 만큼 지금껏 다져온 연기 내공을 아낌없이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는 윤세아의 활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lee1220@news1.kr

티보플레이 7월 5째주 시청률 BEST 10

- | | | |
|----|-----|------------|
| 1 | MBC | 위대한 조강지처 |
| 2 | KBS | 그래도 푸르른 날에 |
| 3 | MBC | 여자를 울려 |
| 4 | KBS | 가족을 지켜라 |
| 5 | SBS | 상류사회 |
| 6 | MBC | 딱 너 같은 딸 |
| 7 | MBC | 이브의 사랑 |
| 8 | SBS | 가면 |
| 9 | MBC | 화정 |
| 10 | SBS | 돌아온 황금복 |

티보플레이 7월 5째주 신규 방송

- | | | |
|---|--------|--------|
| 1 | CJ E&M | 전투맨 리그 |
|---|--------|--------|

티보플레이 7월 5째주 최신 영화

- | | | |
|---|------|---------|
| 1 | 소수의견 | 윤계상/유해진 |
| 2 | 손님 | 류승룡/이성민 |

'소수의견', 진실을 감춘 인물들

(서울=뉴스1스포츠) 유수경 기자 = 영화 '소수의견'이 6월 25일로 개봉을 확정하고, 포스터를 공개했다.

'소수의견'은 강제철거 현장에서 일어난 두 젊은이의 죽음을 둘러싸고 대한민국 사상 최초 100원짜리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변호인단과 검찰의 진실공방을 둘러싼 법정 드라마다. 윤계상, 유해진, 김옥빈, 이경영, 김의성, 권해효 등 개성 강한 연기파들의 협연이 기대된다.

이번에 공개된 앙상블 포스터는 지방대 출신 국선 변호사 진원 역의 윤계상, 형사법정 근처에도 가본적 없는 이혼전문 변호사 대석 역의 유

해진, 피고인이자 아들을 잃은 철거민 아버지 역의 이경영, 사건을 파헤치는 기자 수경 역의 김옥빈, 이들에 맞서는 고스펙 검찰청 에이스 검사 재덕 역의 김의성 그리고 재판장 역의 권해효까지 개성과 연기력을 겸비한 배우들의 조합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또한 '국가배상청구소송 청구액 100원'이라는 카피가 더해져 이 배우 군단이 보여 줄 영화 속 사건 그리고 그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될 치열한 법정 공방전까지 기대를 모은다.

김성제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uu84@news1.kr



TBO PLAY

보스톤코리아
MA, RI, NH 지역 공식 딜러

내가 보고 싶은 한국방송 · 영화를 원하는 시간에 고화질로 즐기세요

이동 고객 특별 할인

타 방송사에서 티보 플레이로 갈아 타시는 분에 한해 월 \$30로 특별 우대해 드립니다

무제한 시청 월:

\$39.99



공중파, 케이블, 최신 영화, 뮤직비디오까지 대한민국 모든 방송 콘텐츠를 모두 즐기는 The Best On-Demand, TBO

집에서 TV처럼 편하게 IPTV TBO Play, 온라인으로 언제 어디서나 TBO 내 손 안의 미디어, TBO Touch (출시예정)까지 다양하게 즐기세요.

The Best OnDemand, TBO



Premier Realty Group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레지덴셜 리스팅

- 1. 브루클라인 엘리트 패밀리:** Rt 9 Brookline, Chestnut Hill Mall 인근에 위치. 총4,271sqft, finished basement 면적 포함. Asking \$1.3 MI
- 2. Colonial Single Family:** Newton Chestnut Hill에 위치. 1994년에 완공. 좋은 학군, 편리한 교통. 총면적 5,000sqft 이상, finished basement 면적 포함. Asking \$1.95 MI
- 3. Belmont 엘리트 패밀리 Duplex:** Belmont High School에서 근접한 거리, 편리한 교통. 3,000sqft, 총6Bed, 2Full and 2half baths. Asking \$750,000
- 4. Watertown에 위치한 라운하우스:** 편리한 교통. 2Beds 2Full baths. 1914 sqft, finished basement 면적 포함. Asking \$450,000.
- 5. Lexington Single Family:** 1,500sqft, 4Beds 1Full Bath. 좋은 학군, 편리한 교통. Asking \$595,000
- 6. 브루클라인 콘도:** 1베드 1베스. 그라지 파킹 포함. 최상의 위치 및 학군. 주말 오픈하우스. 1731 Beacon St Brookline Unit 113. Asking \$499,900

비즈니스 리스팅

- 1. Brookline 한식/일식:** 총면적 3,300sqft, 많은 유통인구. Beer&Wine License 포함. Asking \$350,000
- 2. Cambridge 한식/일식:** 총 면적 1,200sqft, Beer&Wine License 포함. Asking \$200,000
- 3. Peabody 중식:** 단박건물. 50+ Parking. Asking \$250,000. Full Liquor.
- 4. Nashua 인근 일식/한식:** NH 단박건물 주차공간 포함. Asking \$175,000. Full Liquor.
- 5. 드롭오프 스토어:** 1,200sqft, 넓은 주차공간, Lots of vehicular traffic. Asking \$35,000
- 6. 드롭오프 스토어:** 800sqft. Asking \$30,000
- 7. 세탁소+드롭오프 스토어:** 최상의 위치. Asking \$1.85 Million. 세탁소 건물 포함.
- 8. 헤어 액세서리 카프 매케:** 보스톤 북부에 위치한 대형물안, 좋은 위치, 안정적인 수입. Asking 55,000 인벤토리 포함.

나원태: 617.642.3156
제이슨전: 617.642.5670



신영의 **세상 스케치**

509회

'참'을 다시 '진짜'라고 말해야 하는 세상에서...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가짜들이 판치는 세상에서 진짜는 절로 숨어들 수밖에 없다. 그래 그것이 요즘 현대를 사는 우리 삶 가운데서 함께 존재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참'을 '참'으로 알아주지 않으니 답답해서 이것은 '진짜'라느니 '원조'라느니 거기에 덧붙여 '순수'라고까지 하지 않던가. 그렇다, 이렇듯 알고도 속고 모르기도 속고 이렇게 속고 또 속다 보니 절로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또 다른 이를 속이는 일이 생기기도 하는 것이다. 참으로 '참'이 그리운 시절이다. 누군가 이것은 정말 '진짜'라고 하면 더욱이 가짜 같아 더 자세히 확인해보고 싶어지는 이 마음은 도대체 뭘까.

하루는 한국의 친구와 카톡으로 서로 얘기를 주고받다가 나중에야 안 일이지만, 주고 받았던 말(글) 속에 웬 '정말'이란 단어와 '참말로'와 '진짜'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들어있던지 놀란 일이 있었다. 그때야 사뭇 깨달았던 것이다. 그래, 이렇게 알게 모르게 나 자신이 그 속에 젖어 살았음을 나중에 알게 된 것이다. 그 생각으로부터 시작해 오랫동안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연습을 하고 있다. 아직은 잘 고쳐지지 않고 있지만, 의식적

으로 그 단어를 적게 써보려 노력하는 중이다. 그것은 가끔 내 삶과 인생에서 필요한 나 혼자만의 '내 훈련법'이기도 하다.

무엇이든 알아가면 갈수록 더욱 알쏭달쏭 어려워지는 것이 세상 사는 이치인가 싶기도 하다. 사람도 그렇지 않던가.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지 않던가. 정말 그 말이 옳다는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말이다. 운동(스포츠)도 마찬가지다. 어설피게 알면 별 궁금한 것이 없어 그런지 마음이 편안하다가 그것이 좋아져 몰입하게 되면 정말 골치 아파지는 것이다. 그것이 운동이 되었든 사람이 되었든 알면 알수록 더욱 알고 싶어지는 것이 당연하고 그러다 보면 좋던 것도 때로는 싫증도 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아 밀어내기도 하는 것이다.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더욱이 '참과 진실'이 그리워지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깊이 모르는 까닭이다. 서로를 알아갈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는 시대를 살지 않던가. 한지붕 아래 사는 부부도 그러하거나와 부모와 자식도 얼굴을 마주하고 식탁에 마주 앉아보는 일이 쉽지 않다. 도대체 무엇을

쫓으려고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일까. 일사에서 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뒤를 돌아볼 여유조차 없이 걷고 뛰는 이 시대를 보면서 아쉽고 서글프지만, 그것을 누구의 탓으로 돌릴까 말이다. 잠시라도 시간이 날까 싶으면 각자의 휴대폰을 보느라 정신이 없다.

이렇게 살아가는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는 대화도 줄어 말을 잇을까 염려스럽다.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준다고 하지 않던가. 그나마 우리 아이들 세대까지는 엄마와 아빠와 많은 말을 나누었다는 생각을 한다. 요즘은 어디를 가도 어린 아기들까지도 아이들 장난감이 아닌 게임을 할 수 있는 무엇인가 손에 쥐어져 있다. 그것마저도 시대의 흐름일 게다. 그래서 세대 차이 느낀다는 얘기가 나오고 듣는 것일 게다. 내가 우리 아이를 키웠던 그때의 그 방식 테두리 안에서밖에 더 모르는 이유일 게다. 여하튼 가족 간에도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시간이 줄고 있음은 분명하다.

부부이든 부모와 자식이든 친구이든 간에 대화가 주니 마음 나누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 마음을 나누지 않으니 서로

의 생각을 어찌 알 수 있으며 깊이 담긴 속마음을 어찌 읽어낼 수 있을까. 생각하면 참으로, 진정,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서로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속만 타들고 화만 치미는 것이다. 무엇인가 마주 앉아 마음속에 것들을 일단은 끄집어 놓고 볼 일이다. 그것이 누가 옳고 그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속 깊이 담긴 생각들을 모아 추슬러 보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추후에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 애길 나눠도 늦지 않을까 싶다.

우리의 삶 속에서 밖으로 '참'을 자주 말하고 '정말'이라고 '순수'하다고 반복해 소리내는 것은 '진실'이 왜곡되고 '거짓'이 판을 치는 이유인 것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서로 소통이 두절되고 단절된 까닭이다. 나 자신도 다른 사람의 얘기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으면서 내 말만 들어달라는 것이다. 내 잘못은 생각지 않고 내가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못 알아 듣는다고 상대방에게 탓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 내 속마음을 읽어달라고 '참 말'이라고 '정말'이라고 거짓없는 '진실'이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이다. '참'을 다시 '진짜'라고 말해야 하는 세상이 때론 서글프다고 푸념을 보파리를 풀어놓는다.



한담객설閑談客說: **날아라 날개**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여행하는 계절이다. 한국여행이건 고향과 외국을 찾아 길을 떠난다.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하늘 여행길이다. 오고 가는 길에 건강하시라.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를 아시오' 이상李箱의 '날개' 첫구절이다. 날개는 날개인데, 소설처럼 난해하기 짝이 없다. 이상李箱만이 아니라 인간은 날고 싶어 했다던가. 날기 위해서는 날개가 필요하다. 하긴 날으는 게 걷는 것보다는 빠르다. 하나하나한 소리다. 게다가 아직은 교통정체는 없을 테니 말이다.

내게 아주 괴이한 버릇이 있다. 비행기에 탑승하고 좌석에 앉으면 곧 잠이 쏟아진다. 긴장감이 풀리고 무사히 비행기를 탔다는 안도감이 일게다. 문제는 쏟아졌던 잠은 비행기가 이륙하고 정상고도에 이르르면 곧 깬다. 이때쯤이면 승무원이 뭘 땅콩파우를 간이테이블에 놓을

시간이다. 그렇게 단잠에서 깨고 나면 나머지 긴 여행시간엔 눈은 말뚱말뚱, 입안은 짹짹, 허리는 지끈지끈, 머리는 슬금슬금 두통이 드나든다. 오직 사오십 분 간만의 달지만 매우 짧은 잠을 즐긴다는 거다. 그런데 잠을 즐길수 없던 비행도 있었다.

아주 오래 전이다. 그날은 이른봄 토요일 아직 점심 전이었다. 일이 있어 연구실에 있었다. 한가한 시간에 새로 부임한 교수가 찾아왔다. '비행기 한번 타지 않았느냐?' '내가 비행기를 갖고 있고 한시간 거리를 날아갔다가 돌아올 것이다' '비행기를 태워주마' '대신 조건이 있다. 나는 자동차가 없으니, 비행장까지 태워다 줘야 한다' 조건이 어렵지 않았고, 비행기를 탄다는 말에 호기심이 발동했다. 그날 내 차에 태우고 로컬 비행장으로 가면서 물었다. 비

행기는 값이 얼마나? 개스 마일리지는 좋으나? 비행기 조종면하는 어떻게 따느냐? 더 중요한 질문. 비행기는 갖고 있으면서 어찌 차는 없느냐? 그의 대답이 결정적이다. 차는 중고 한대를 갖고 있는데, 그의 아내가 타고 나갔단다. 자가용 비행기를 갖고 있는데 차가 없다는 거다.

비행기에 올랐다. 비행기 안은 소형자동차 실내보다 좁았다. 시트는 뜯겨져 있었고 청소하지 않아 잠동사니가 굴러다녔다. 은근한 불안감이 더해졌다. 조수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했을적에 요란한 기계음과 함께 비행기는 이륙했다. 한 시간 날아가서 큰 공항 우체국에 우편물을 떨구고 회항해 왔다. 체공시간은 두시간 남짓. 물론 비행중 땅콩도 음료수도 제공되지 않았다. 비행기가 착륙했다. 안전벨트를 풀고 내려야 했고 문을 열어야 했다. 현대, 양허벽지에도 통증이 밀려왔다. 양손으로 애꿎은 허벅지만 힘차게 쥐어 뜯고 있었던 거다. 다리

를 움직일 수 없었다. 다리가 굳은 거다. 손목은 떨리고 있었는데, 뻘뻘해진 고개도 돌릴 수 없었다. 내얼굴은 백지장보다 더 창백했었다. 입안은 말라 단내가 진동했음에 틀림없다. 항공기 기장(?)인 그가 관찮으냐고 물었다. 내 대답이다. '죽다가 살아났다.' 마침 그날은 내 생일이였다. 비행기는 구형 세스나 옹고 값은 육천불이라고 그가 말했다. 신형 자동차보다 싼 값이었다. 덕분에 박제가 된 천재가 될 뻔했던 거다.

'날개야 다시 돌아라. 날자 날자 날자. 한번더 날자꾸나. 한번만 더 날아보자 꾸나.' (이상李箱, 날개 중에서)

'재물은 날개를 달고, 독수리처럼 하늘로 날아가 버린다' (잠언 23:5)

휴람계휴
이벤트



한 차원 높은 고국방문 의료서비스 이제 휴람을 통해 이용해보세요!

고국방문 검진&성형&전문치료&피부관리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신뢰할 수 있는 휴람이 도와드릴 것입니다.

나에게 노안이 왔다면?

박성진 원장님이 제안하는 40~50대를 위한 라식/라섹 수술
이제 휴람을 통해 눈의 불편함을 해결하세요!

40대 50대도 가능한 라식/라섹!!!
지금까지 미룬 라식수술의 기회가 다시 찾아 왔습니다.

- 안 종합검진 (소요시간 1시간 정도)
기본정밀검사, 백내장, 녹내장, A스캔/B스캔 초음파검사, 전방깊이검사, 세극등 수정체 검사
-25만원 → 20만원
- 4050라식/라섹 / 노안 수술 레이저 노안교정
-200만원 → 170만원
- 백내장 수술 (단안) 일반 백내장
근시 + 원시 + 백내장 동시교정
-150만원 → 110만원

속(?) “좁은 여자가 좁은 아름답다”

5% OFF

질이란, 볼감증, 요실금... 한번에 해결!

- 양귀비 수술 (시술시간 15분/ 회복시간 1시간) 150만원
- 요실금 수술 (시술시간 20분/ 회복시간 1시간) 150만원
- 이쁜이 수술 (3D리타이트닝/임플란트/명품수술) 300만원
- 그 외 수술 : 음핵수술 100만원
소음순 수술 200~400만원

남성 비뇨기 정밀검진 특별할인

휴람 1주년 기념 특별가 이벤트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휴람 특별가 정밀검진을 통해 당신의 비뇨기를 점검해보세요

배뇨장애 + 발기장애 + 갱년기 + 조루 + 비뇨기암 검진
-95만원 → 80만원

남성&여성 비뇨기과 수술전문병원
한국 성과학 연구소 운영

주요수술
전립선비대증, 발기부전, 성기확대술, 조루수술, 요실금수술, 질성형술, 정관수술 정관복원술 등

이윤수 & 조성완 비뇨기과

대한민국 1등 성형외과 특별할인

휴람 1주년 기념 특별가 이벤트

안면 윤곽술, 안면 거상술, 윤곽, 리프팅을 잘하는 한국 성형외과에서 자신감을 찾으세요!

안면거상술 (얼굴) -700만원 → 500만원	안면거상술 (목 포함) -800만원 → 600만원	매쉬 리프트 -300만원 → 300만원
상안검 -200만원 → 150만원	하안검 -200만원 → 150만원	중안면 거상 -300만원 → 200만원



미국문의 보스톤코리아 617-955-9112
이메일 hURAMceo@hURAM.kr

한국문의 82.70.4141.4040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카카오톡 010.3469.4040 / ID:hURAMkorea



독자기고
김철

북미대륙 인디언의 역사 4.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지 경쟁 (4)

영국과 프랑스의 패권 경쟁으로 갈라선 원주민들 (계속)

1689년부터 1763까지 두 세력 간에 모두 네 차례의 전쟁이 발생하였는데 미국에서는 'French and Indian Wars'라고 부르는 반면 캐나다의 퀘벡 등 옛 프랑스 식민지에서는 '식민지 전쟁 (Intercolonial wars)'이라고 부르고 있다. 여기서 French and Indian War라고 단수로 쓸 경우에는 1754년부터 1763년까지 7년간 계속되었던 마지막 전쟁을 일컫는다. 프랑스는 이 전쟁에서 짐으로써 미시시피 강 동쪽의 모든 땅을 영국에 넘겨주고 미시시피 강 서쪽의 모든 땅은 스페인에게 양보하게 된다. 스페인은 넘겨받은 루이지애나를 1800년에 은밀히 프랑스로 다시 양도하였는데 나폴레옹은 이 땅을 미국에 매각하였다. 이로써 뉴프랑스는 역사에서 사라지게 된다. 다만 뉴펀들랜드(Newfoundland) 섬 남쪽에 위치한 어업 전진기지인 생피에르 미클롱(Saint-Pierre Miquelon) 섬들(242km², 인구 7천명)은 오늘날까지도 프랑스령으로 남아있다. 네 차례의 전쟁을 시기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688-1697에 있었던 King William's War, 1702-1713에 발생한 Queen Anne's War, 1744-1748에 일어난 King George's War 그리고 1754-1763사이에 발생했던 The French and Indian War이다.

네 번의 전쟁 중 첫 세 개의 전쟁은 유럽에서 시작되어 북미대륙으로 확대되었으나 마지막 전쟁은 북미대륙 자체에서 시작되었다.

프랑스가 이 전쟁에서 패한 요인 중 하나는 프랑스의 점령지역은 영국의 점령지보다 더 넓었으나 인구는 영국의 정착민이 프랑스 정착민보다 몇 십 배나 많았던 점이다.

영국의 식민지에서 살던 원주민들은 영국 정착민과 비교적 긴밀한 경제적 교류를 해온 탓에 영국 친화적이 되고 반면에 프랑스정착민들과 자주 접촉하던 인디언들은 자연스레 프랑스 친화적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마련이다. 따라서 오랫동안 프랑스와의 교역을 활발히 수행해 왔던 메인 주 북쪽의 와바나키연합(Wabanaki Confederacy) 부족들은 프랑스 편에 서고 뉴욕 주 북쪽에 살던 이로쿼이 연합 소속 인디언부족들은 반대로 영국 편에 서서 싸웠다. 모히칸족의 최후(The Last of Mohicans)라는 영화는 영불간의 마지막 식민지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 영화는 오대호 인근에 살던 휴런부족은 프랑스 편에 서고 뉴욕 중부에 살던 모히칸부족은 영국 편에 서서 서로 싸우는 모습을 잘 그려냈다.

한편 아마시 전쟁 도중에 영국 편으로 돌아선 이후 계속하여 영국 식민지 세력과 연합해 오던 체로키족은 그간에 쌓였던 영국에 대한 불만 때문에 영불간 식민지 쟁탈 전쟁이 한창이던 1759년에 프랑스와의 동맹과는 아무런 관련 없이 독자적으로 영국에 대하여 전쟁을 일으켰다. 영국 측에서는 체로키족으로부터 받은 충격 때문에 인디언들은 믿기 어려운 종족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고 이러한 편견은 식민지 전쟁이 끝난 후 점령지 안의 인디언들

을 다루어 나가는 데에 좋지 못한 영향을 주게 된다.



(북미대륙의 지역 구분)



(유럽인의 침입 이전 주요 인디언부족의 거주지역)

제5장 조상의 땅을 사수하라

폰티악 전쟁

사실 북미 원주민의 역사를 정리하다 보면 유럽인과의 접촉 후부터는 줄곧 전쟁에서 지

는 이야기만 있을 뿐 흔히 다른 나라 역사에서 볼 수 있는 흥망성쇠의 스토리는 전혀 찾을 수 없다. 전쟁이라야 약자의 몸부림에 지나지 않는 수준이라 자신의 영역으로 파고드는 유럽인들의 대륙진출을 멈추게 할 수는 없고 다만 동부 해안으로부터 서부 내륙으로 진출하려는 유럽인들에게 약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정도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 '폰티악 전쟁 (Pontiac's War)'으로 흔히 알려져 있는 영국의 부당한 대우에 항거하여 여러 부족이 연합하여 영국군과 싸운 전쟁도 그러한 성격의 전쟁의 하나일 것이다. 그런데 이 전쟁은 영국인의 고압적인 통치로부터 해방되려는 독립운동 성격이 내포되어 있기에 수없이 많이 치룬 원주민과 유럽인과의 전쟁 중 비교적 전쟁다운 전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당시 오타와 부족의 전투 추장의 이름이 폰티악이었는데 역사학자 파크만(Francis Parkman)이 그의 이름을 따와서 전쟁의 이름을 붙였다.

수십 년간 지속되었던 북미 대륙에서의 식민지 전쟁에서 영국이 프랑스를 물리치고 그 지역의 지배권을 완전히 장악한 게 1763년이다. 전리품으로 뉴프랑스 영토 중 미시시피 강 동쪽의 땅 모두를 할양받은 영국은 옛 프랑스 요새를 접수하고 새로운 식민지 개척을 서두르게 된다. 이 과정에서 영국인들은 프랑스 식민지 지역에 살던 인디언들에 대하여 지나치게 고압적인 자세를 취했다.

(다음 호에 계속)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92 태권도와 김운용(2)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장직을 맡았다.132)

이 당시의 태권도계는 양적인 팽창과 함께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초창기 관관을 창관한 창시자들은 이민, 월북 등으로 실질적인 활동에서 영향력이 줄어들었고, 그들의 제자들이 관장직을 물려 받아 관세를 확장하고 있었으며 동시에 전국적으로 확산된 태권도는 철없는 어린아이들도 도장문을 출입하는 시절이었다. 오래전부터 있어 온 태권도계의 통합 논의는 각 관의 자존심과 명예와 무도인 특유의 상이相異한 이상理想으로 지지부진하고 있었다. 그 와중에서 태권도의 경기화/스포츠화에 더 관심을 두고 있던 지도관의 이종우와 청도관의 엄운규가 주축이 되어 태권도계의 통합과 태권도의 경기화를 위하여 그에 적합한 인물인 김운용을 영입하였다. 현대 태권도의 겨루기(자유대련)는 지도관에서 가장 먼저 시작하였다. 일본의 가라데는 겨루기가 없다. '쿠미데'라는 약속대련이 일일 뿐이다. 이 '겨루기'가 바로 가라데와 태권도의 가장 큰 차이점이며, 태권도가 가라데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특성화되어 세계적으로 발전되는 결정적인 기술이었다.

김운용을 대한태권도협회 회장으로 영입하여 태권도의 경기화를 추진한 이종우의 증언

을 보면, "간단해요. 혼자하는 무술은 고달프거든, 상대가 있어야 서로 경쟁력이 생기고, 지지 않으려고 애쓰다 보면 기술이 발전하는 겁니다. 다른 도장에서는 '사람 죽는다'고 반대할 때 우리(지도관)가 먼저 겨루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일제시대 부민관이 있던 장소에서 시합을 열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다 이기다시피 했어요. 다른 도장은 시합을 안했으니까 (우리 아이들이)잘 할 수밖에 없었던거죠. ...중략... 그러다가 다른 도장들도 노상 질 수는 없으니까 겨루기를 적극적으로 시키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우리 도장이 맥을 못 추는 신세가 됐어요. ...중략... 스포츠전체로 볼 때 수기手技는 권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족기足技로 발전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경기에서는 주먹을 못쓰게 하고 경기규칙도 발공격 중심으로 만들고... 중략... 어떤 운동이든 스포츠로 발전하려면 뭔가 독특한 것이 있어야 되요. 말하자면 축구는 발로 차는 거고, 농구는 손으로 던지는게 특징이죠. 그래서 우리는 발 중심으로 가자고 결정한 겁니다. 만일 태권도가 서로 엉겨붙어서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하는 경기로 만들었다면 아주 지지분한 싸움이 됐을 거예요." (신동아 2002년 4월호, 육성철 기자 인터뷰)

132) 대한태권도협회 회장은 2013년 별세하여 장군묘역에 묻히길 거부하고 파월병사들과 죽어서도 함께하기 위하여 사병묘역에 안장된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참 군인' 채명신을 초대(1962.12.15~1964.4.2) 회장으로 2대(1964.4.3~1965.1.14) 박종태, 3대(1965.1.15~1966.1.29) 최흥희, 4대(1966.1.30~1967.1.29) 노병직, 5-6대(1967.1.30~1971.1.16) 김용채, 7-14대(1971.1.17~1991.1.16) 김운용, 15-16대(1991.1.17~1996.1.25) 최세창, 17-18대(1996.1.26~1998.11.2) 이필곤, 19-20대(1998.11.3~2002.2.4) 김운용, 21대(2002.2.5~2004.1.14) 구천서, 직무대행(2004.1.29~2004.2.26) 이규석, 22-23대(2004.2.27~2008.4.30) 김정길, 24-25대(2008.6.11~2013.2.4) 홍준표, 26대(2013.2.5~현재) 김태환 국회의원이 재임하고 있다. 수많은 회장들 중에서 참 무도인은 4대 회장 노병직만이고, 3대 최흥희는 자칭 무도인에서 태권도인이 되었고, 가장 오래 역임한 김운용역시 후일 자타가 공인하는 태권도인이 되었다. 나머지는 시대의 부침에 따라 군인들과 정치인(국회의원)들이 맡았다. 현 김태환 회장은 5.6공의 '킹 메이커' 김윤환의 친동생이다.



고국의 품에서 당신의 건강을 생각합니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 ▣ **유방·갑상선센터**
유방암수술, 재건, 성형
- ▣ **암통합케어센터**
원스텝 진단에서 치료까지
- ▣ **자궁근종센터**
수술없이 자궁근종 치료
- ▣ **심혈관·뇌졸중센터**
심근경색, 뇌졸중, 24시간 진료
- ▣ **척추·관절센터**
무릎, 어깨, 허리, 비수술 통증치료
- ▣ **내시경센터**
위암, 대장암, 내시경 치료



보스톤코리아 617-955-9112
www.newyjh.com

고국방문 건강검진

VIP 입원 종합검진 남: 200만원 / 여: 210만원
 입원 종합검진 남: ~~80만원~~ 60만 / 여: ~~85만원~~ 70만원
 당일 종합검진 남: ~~55만원~~ 45만 / 여: ~~65만원~~ 55만원

진료과목

소화기병센터, 자궁근종센터, 건강증진센터, 인공신장센터, 인터벤션센터, 영상의학센터
정신건강의학센터, 유방·갑상선센터, 척추·관절센터, 암통합케어센터, 심혈관·뇌졸중센터
이비인후과·비뇨기과, 재활치료센터, 응급의학센터

양미아의 심리치료 현장에서

‘큰 꿈을 가질수록, 성공도 커져간다’
- 좋은 습관은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 XI -

양 미아 Licensed Psychotherapist

Private Practice: 1330 Beacon St, Brookline, MA 02446
37 Fruit St, Worcester, MA 01609, 508-728-0832
yeungmiaj@gmail.com

성공하고 싶지 않은가? 성공하는 삶의 비법을 알고 싶지 않은가? 성공의 의미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어떤이는 '돈, 지위, 명예'를 통한 자신의 업적을 이루는 일을 성공이라 하고, 어떤이는 '스스로 행복을 찾고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을 성공이라고 한다. 성공의 목표가 어떤것이든, 자신이 원하는 성공의 목표를 갖고있는 사람은 목표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보다 행복해 질 확률이 크다. 성공을 위한 자신의 삶의 목표가 확실히 설정되고, 그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깨닫게 때문이다. 성공하는 두가지 비법을 알려준다. 첫째는 '꿈을 갖는것'이고, 둘째는 그 꿈의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꿈은 그 어느것보다 값진 생의 보물이며,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생의 선물이다. 꿈 안에는 희망이라는 생의 열정이 있다. 희망이 있으면, 그 누구든지 역경을 딛고 일어나는 긍정적인 사고가 생겨난다. 꿈은 또한 크게 가질수록 좋다. 꿈을 크게 갖는 만큼, 생의 열정과 희망과 노력하고픈 열망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우리 큰 꿈을 갖는다고 나무라는 사람도 없는데, 큰 꿈을 갖는것을 주저하는 걸까? 이유는 간단하다. 자신의 꿈이 이루어질 것 같고 믿지 않기 때문이다. 필자는 장담한다. 꿈을 크게 갖고, 그것이 실현 될 것이라 굳게 믿으면, 그 누구든지 자신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다.

가수 인순씨의 '거위의 꿈' 노랫 말에는 꿈이 얼마나 크게 생의 희망이 되고, 위트가 되고, 용기를 주는 지 알려준다. 그녀는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흑인병사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이다. 백의 민족을 주장하는 그때의 한국인은 국제 결혼에 대해 극심한 차별과 편견이 있었고, 혼혈이나 국제 결혼한 여성들을 천시했다. 더군다나, 동두천에서 태어난 사생아 혹은 혼혈아를 사람들이 어

떻게 취급하였을까? 인순씨가 거의 인간대접을 못 받고 자랐음을 추측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런 역경을 딛고 그녀가 당당히 살아올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가수로서 크게 성공하리라는 꿈이 있었고, 그 꿈을 믿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꿈은 불가능도 가능하게 하는 엄청난게 큰 생의 자산이다. 그녀의 '거위의 꿈'의 노랫말을 소개한다.

"난 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찢겨 남루하여도 내 가슴 깊숙히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꿈.

혹 때론 누군가가 뜻을 비웃음 내 등뒤에 흘린대도 난 참아야 했죠. 참을 수 있었죠 그 날을 위해.

그래요 난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저 차갑게 서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언젠가 나 그 벽을 넘고서 저 하늘을 높이 날을 수 있어요. 이 무거운 세상도 나를 묶을 순 없죠."

그런데, 인순씨는 윤도현의 러브레터에 출현해서 '거위의 꿈'을 부르기 전, 이런 말을 했다. "꿈은 이루어진다. 노력한 자 한테만" 이 말을 역설로 풀어보면, '꿈은 노력한 자 한테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노력은 꿈의 구체적인 목표가 없으면 하기가 힘들어진다. 노력을 하기위해선 구체적인 꿈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꿈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노력하면서, 성공하는 삶을 가질 수 있을까?

데일 카네기(Dale Breckenridge Carnegie, 1888년 ~ 1955년)는 인간관계 분야의 최고 컨설턴트로 수 많은 정치가와 CEO, 직장인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자신의 저서 5권을 통해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인가를 성찰하게 하는 '참성공학 인생 핵심 비법'을 전했다. 그는 미주리주 워렌스버그에 위치한 주립 사범대를 나와 네브라스카에서 교사,세일즈맨 등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수 많은 실패를 경험

했다. 1912년 뉴욕 YMCA 에서 화술에 관한 강의를 시작하면서, 몇가지 인간관계 기술을 포함시켰다. 그의 강의가 대 히트를 치면서 그의 명 강의를 들으려 수강생이 몰려들었다. 이 과정에서 그가 50세가 되기 전, 자신만의 인간 관계 원리의 책을 저술하는 구체적인 꿈을 가졌다.

그는 15년간 실질적인 인간관계 기술을 매일 실험하고 사례를 기록했다. 그리고, 그가 48세가 되던 해, 1936년 자신의 책 『카네기 인간관계론』(원제 : How To Win Friends And Influence People)을 출간하면서, 그의 꿈을 이루워 냈다. 그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례를 통해, 성공적인 인간 관계 원리를 제시해 주었고, 그의 책은 전세계적으로 6천만 부나 판매되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웠다. 그후, 인간관계 원리를 전파하기 위해 데일 카네기 연구소를 설립하였다. 그가 세상을 떠났어도, 그의 연구소는 여전히 활발히 활동을 하고있다. 그는 꿈의 실현법을 이렇게 말했다. "꿈은 날짜와 함께 적으면 '목표'가 되고, 목표를 잘게 나누면 '계획'이 되고, 계획을 실행에 옮기면 '꿈'을 실현 하는것이다"라고 했다. 그는 그의 꿈을 50세 전에 이룬다는 날짜를 적으면서 목표를 세웠고, 목표를 자신의 사례를 실험하는 계획으로 잘게 나누었고, 매일 매일 기록으로 남기며 실행에 옮겼다. 그 결과 그의 꿈은 실현된 것이다.

1953년 미국 Success지는 예일대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연구가 있었다. 설문 문항은 다음과 같다. 1. 세우둔 목표는 있는가? 2. 목표를 기록해두었는가? 3. 목표달성을 위해 계획을 세웠는가? 1번 문항만 대답한 학생은 13%였고, 1번, 2번,3번을 모두 답한 학생은 전체의 3%, 나머지 84%는 자기 삶을 즐기는것 외에는 별다른 목표가 없다고 대답했다.

22년이 지난 1975년 1953년 졸업생을 추적 조사 한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1, 2, 3번 세

문항 모두 답한 3%의 학생의 소득이 1번문항만 답한 13%의 학생들을 포함한 설문에 대답하지 못한 전체97% 학생의 소득보다 10배의 소득을 올리고 있었고, 1번 문항만 대답한 학생들은 답하지 못한 84% 학생보다 두배의 소득을 올리고 있었다. 연구결과는 구체적인 목표설정 수립이 빠르면 빠를수록, 자신이 원하는 이상적인 삶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그룹의 회장이 한 대리사원에게 물었다. "자네 꿈이 무엇이나?" 그때 그 직원은 큰소리로 "제 꿈은 세계최고의 호텔의 CEO가 되는 것입니다"라고 외쳤다. 몇 년 후 회사는 유명한 호텔 하나를 인수하고 호텔 사업에 뛰어 들게 되었다. 그 회사의 CEO는 누가 되었을까? 그때 자신의 꿈을 당당히 외친 대리사원이었다. 누구나 자신의 꿈을 당당히 밝히면, 꿈이 구체화되면서 진정성을 띄기 시작한다. 전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은 초등학교 때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라고 말하고 다녔고, 청소년 시절에는 케네디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면서 백악관의 주인이 되는 것을 생생하게 꿈꿨다. 결국 클린턴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다.

지난 23일 61세의 나이로 정년 퇴직한 한국 경찰관 이용신씨가 은퇴 기념으로 자전거로 미국 횡단을 했다. 그는 5천 킬로미터를 두달 동안 달리며 자신의 꿈을 이루워냈다. 그는 자신의 꿈을 40년 경찰직을 마치면, 은퇴 기념으로 자전거 미국횡단을 하겠다는 꿈을 구체적인 날짜와 함께 적었다. 쌀 배달하며 배운 자전거 타는 취미를 자전거 동우회라는 모임에 가입하며 트레이닝 계획을 세웠고, 대회를 출전하며 실행에 옮겼다. 그리고 그의 꿈은 실현되었다. 꿈은 이용신씨 처럼 나이에 상관없이, 구체적인 목표와 실행이 있으면 이루어진다. 이렇게 꿈이 실현되면, 성공과 행복은 억지로 애를 쓰지 않아도 저절로 오는것이다.

보스톤의 한글교육,
보스톤한국학교가 책임집니다!

- 교재가 확실하다!
- 교사진이 확실하다!
- 한국문화가 확실하다!

첫째,	뉴잉글랜드 유일의 단계별 학습교재 이눔이(Enopi) 교재 사용!
둘째,	교사 경험 3년 이상의 한국,미국 교사자격증 보유교사 유치!
셋째,	붓글씨, 탈춤, 부채춤, K-POP, 전통놀이, 한국요리 체험학습!

결론은 보스톤 한국학교입니다!

BKS 등록금 안내

Tuition: Half Year (16 Saturdays)
Regular Classes:
\$300 (one child)
\$560 (two children)
\$750 (three children)
Afternoon Class: \$180 (lunch included)
개학날: Sep 12 2015
준비물: 필기도구, 3ring 바인더, 물병, 스낵

27년 전통의 보스톤 한국학교에서 2015-2016 학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연락처 | 강상철 교장 Email: uno@sangkang.com Tel: 978-509-8708 Web: www.bostonkoreanschool.org

전지현 · 이정재 · 하정우 그리고 <도둑들> 최동훈 감독
모두를 흥분시킬 최강의 화제작이 온다!



★★★★★

압도적 예매율 1위!
박스오피스 1위!

최고의 이야기꾼 <도둑들> 최동훈 감독의 '핫'한 차기작!
초호화 캐스팅! 캐릭터 자체가 된 대한민국 대표 배우들의 열연!
제작비 180억! 블록버스터급 스케일과 화려한 볼거리!

ASSASSINATION

8월 7일 대개봉

REGAL Cinemas Fenway 13 & RPX

201 Brookline Ave, Boston, MA 02215

Tel. (617) 424-6111

AMC Loews Boston Commons 19

175 Tremont St, Boston, MA 02111

Tel. (617) 423-5801

상영관 정보 및 티켓 예매 | WWW.ASSASSINATION-THEMOVIE.COM HITKMOVIE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세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294) 위험한 투자 실수

보스톤에 있는 델바(Dalbar)라는 경제연구소에서 미국 500대 기업의 수익률을 발표했습니다. 1984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이 11.1%라고 합니다. 1927년 1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주식시장의 연평균 수익률은 10%라고 밴가드(Vanguard) 회사에서 발표했습니다.

수익률 10%란 \$50만 불 투자가 7.2년 후 \$100만 불, 또 7.2년 후에는 \$200만 불 그리고 또 한 번 7.2년 후에는 \$400만 불로 불어납니다. 처음 \$50만 불 투자가 21.6년 후에 무료 \$400만 불로 불어나는 커다란 수익률입니다. 일반 투자자는 이러한 놀라운 투자수익률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봅시다.

*과거 수익률에 의한 투자

일반 투자자는 투자 종목을 선택할 때 과거 수익률에 의해서 선택합니다. 이 뜻은 가격이 많이 올라간(비싸진) 종목에 투자하는 것과 같습니다. 뮤추얼 펀드를 예로 하면, 펀드를 운용하는 매니저들은 학력, 경력, 정보력, 등 모든 면에서 서로 비슷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펀드매니저들이 경쟁하므로 어

느 한 펀드매니저가 특출나게 투자를 잘할 수도 없고 아주 못할 수도 없습니다. 이 말은 과거 수익률이 높았던 투자가 계속해서 높은 수익률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뜻입니다.

*투자자의 감정

투자하면 '대박'을 상상하며 투자하고 주식 시장이 하락하면 두려운 마음으로 팔고서 나옵니다. 그리스, 중국, 이자율 등등을 투자와 연결하며 투자소식, 방송, 인터넷, 신문, 등을 열심히 봅니다. 무엇인가 투자에 대해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감정에 의한 투자 결정은 대부분 실패하는 투자로 이어집니다. 현재의 경제, 정치, 사회적 문제, 등과 나의 은퇴 투자와는 상관관계가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균중심리

사람들은 외톨이가 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대다수가 하는 대로 따라 합니다. 2000년 초 많은 투자자가 기술주식에 투자했습니다. 그 당시 .com이라는 회사가 상장되면 어떠한 회사인지 상관없이 무조건 투자했습니다. 2008년에도 많은 부동산 투자로 집값이 치솟았습니다. 그 결과는 투자손실이라

는 쓰라린 경험이었습니니다.

*재정상담가에 대한 질문 회피

재정상담가를 고용할 때 자세히 질문하고 확인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이름이 많이 알려진 금융회사라는 것을 믿습니다. 재정상담가의 직함(대부분이 Vice President)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상담가는 본인이 속해있는 회사에 돈을 벌어야 하고 자기도 돈을 벌어야만 합니다. 이 뜻은 수수료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annuity)이나 뮤추얼 펀드에 투자합니다. 이러한 투자 경비는 재정 문서(statement)에 나오지도 않기에 일반 투자자는 정확한 투자 경비를 알지 못합니다 (How Wall Street Hijacks Your Money and How to Fight Back by Bobby Monks). 나의 피와 땀인 소중한 돈을 맡길 때는 투자하며 발생하는 모든(total expenses) 경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식시장을 예측

월스트리트에 이름이 잘 알려진 전문투자자 윌트니(Meredith Whitney)의 헤지 펀드가 문을 닫는다는 소식이 발표되었습니다. (Meredith Whitney shuts her hedge fund,

6-10-2015, WSJ). 윌트니는 2008년 금융위기를 정확히 예측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주식시장 예측 후에도 윌트니는 펀드를 운용하며 새로운 예측을 여러 번 했습니다. 한 예로 2010년 주 정부 채권(municipal bonds) 시장의 폭락을 예측했지만,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여러 번의 잘못된 투자 예측으로 결국에는 운용했던 헤지펀드를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미래를 특히 주식시장을 예측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과거 주식시장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일반 투자자가 소위 투자전문가(guru) 혹은 시장을 예측한다는 사람의 투자 조언에 따라 투자하면 투자 실패로 이어질 것입니다.

*신용의 의무(Fiduciary Duty)를 확인하지 않음

보험을 파는 사람(Insurance Agent), 주식을 선별해서 투자하는 사람(Stock Broker), 시중 은행에서 투자하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 등 모두가 본인들이 재정설계사 혹은 투자상담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고객(투자자)의 이익을 우선해서 투자해야 하는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Fiduciary Duty가 있는지를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Song Law Firm의 법률칼럼 법정에서 강하고, 고객에게 편안한 "Song Law Firm"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임대인-임차인 관계법] 뉴저지주 임대보증금법

Song Law Firm (www.songlawfirm.com)은 뉴저지에 본사, 뉴욕에 사무소를 두고 현재 한국지사설립을 준비중에 있는 종합 로펌입니다. 각 분야에서 인정받은 유대인, 한인변호사들이 이민법, 지적재산법, 사고상해, 기업법, 가정법, 민형사 소송 등의 분야에서 최고의 법률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미국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미래를 개척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소속변호사 : 송동호 대표 변호사, NJ 법무부 Deputy Attorney General 출신의 Howard Z. Myerowitz 외 10여명
 www.songlawfirm.com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뉴저지주 주거건물의 건물주인 임대인으로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내용 중 하나인 임대보증금법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 계약시 임대인은 혹시 모를 임대료 체납이나 재산 피해 등을 보호하기 위해 보증금 (Security Deposit)을 받습니다. 이때 임대인으로서 보증금의 금액이 높을수록 보호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기에, 가능한 높은 금액의 보증금을 요구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적으로 허락된 기준을 아는 것이 중요인데, 현재 뉴저지주에서는 임대보증금법 (Rent Security Deposit Act)에 의해 1달 임대비의 1.5배에 달하는 금액까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임대하는 3-bedroom single family house의 1개월 임대료가 \$3,000이라면 임대인은 보증금으로 \$4,500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로펌에서 임대인-임차인 케이스를 진행하다 보면 이 '1.5배' 제한에 대한 우회책으로 '애완동물 보증금' 또는

'가구 보증금' 과 같은 명목하에 더 많은 보증금을 요구한 임대계약서들을 종종 접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위와 같은 상황에서 \$4,500의 보증금을 받은 후, 애완동물 보증금으로 \$2,000를 추가로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뉴저지 임대 보증금 법에 위배된다는 판례가 있으니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받은 보증금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보증금은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한 매체이지만, 실제로는 세입자인 임차인의 소유입니다. 그렇기에 법적으로 임대인은 이 보증금을 임대기간동안 사용할 수 없으며, 이자율이 있는 별개의 은행 계좌에 보관해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관련 계좌에 대한 정보를 임차인에게 30일 이내에 보내주고, 매 년 이에 대한 통지를 하도록 되어있는 것도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종종 임대료가 체납되었을 때 임차인이 보증금에서 대체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퇴거소송도 진행하지 못하고 보증금으로 대

체해 주시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임대 보증금 법을 잘 지키고 있을 경우, 밀린 임대료를 보증금에서 제할 의무는 없으며 체납기간이 1개월이라고 하더라도 퇴거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으로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임차인이 이사를 나간 이후 30일내에, 임대했던 집의 상태를 점검한 후, 보증금에서 공제가 된 내용이 있을 경우에, 보증금 공제 내역과 함께 남은 보증금을 보내는 것입니다. 만약, 이를 확실히 이행 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액의 2배에 달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임대계약 분쟁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뉴저지 임대 보증금법을 다루어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주거임대계약에 적용되는 이 법은, 임대인이 임대하는 주거건물에 함께 거주하면서 임대하는 유닛이 2개 이하인 상황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듀플렉스의 한 유닛에는 집주인 가족이 거주하고, 다른 유닛에는 세입자가 살 경우 보증금을 별도로 이자가 붙는 계좌에 넣어 통지를 해주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특정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기도 하므로 전문 변호사와 의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건물주-세입자법 관련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독자 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으면 주저 마시고 mail@songlawfirm.com로 문의해주세요. 다음에 쓸 칼럼에 반영하겠습니다.

** 독자분들에게 유용한 법률정보를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더욱 편안하게 확인하여 보세요. 이번에 신규 런칭한 Song Law Firm의 Mobile Website로 기존의 칼럼 및 뉴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songlawfirm.com
 Facebook으로 친근해진 송로펌
 www.facebook.com/songlawfirmllc
 생활속의 법률 매거진, 송로펌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songlawfirm1
 대륙으로 진출하는 송로펌
 www.weibo.com/p/1005055593845027

휴람 제휴 이벤트



한 차원 높은 고국방문 의료서비스 이제 휴람을 통해 이용해보세요!

고국방문 검진 & 성형 & 전문치료 & 피부관리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신뢰할 수 있는 휴람이 도와드릴 것입니다.

서울메디케어

서울메디케어는 연면적 1000평에 달하는 서부권역최고 최대수준의 대학병원급 건강검진센터입니다

서울메디케어 · 휴람 해외등포 특별가 검진 프로그램 (수면내시경 포함 시 10만원 추가)

종류	남자	여성
유선 기본	40만원 → 47만원	40만원 → 59만원
유선 정진	190만원 → 91만원	190만원 → 103만원
유선 VVP	307만원 → 228만원	320만원 → 240만원

SEOUL MEDICARE (평생건강 관리) | 평일: 오후 9시 ~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월요일: 오후 2시 ~ 오후 6시

휴람 제휴 이벤트

루트모발 이식센터

6명의 모발이식 전문의로진
4개의 모발이식 전용수술실

휴람제휴 해외등포 '특별이벤트'

모발이식 5만원씩 할인
수술후 세정제 3년5천원 Free
생리통을 도와주는 EGF가 3만원 Free

필기	비용	바깥개	비용	필기+바깥개	비용
4000코	200만원	2000코	400만원	7000코	700만원
6000코	300만원	2500코	400만원	9000코	600만원
		3000코	900만원		

휴람 1주년 기념 특별가 이벤트

새미치과 특별할인

새미의 이벤트 150만원 → 120만원	오스셀 임플란트 80만원 → 60만원	무삭제 라미네이트 20만원 +1회 제공
--------------------------	-------------------------	--------------------------

고국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임플란트 시술받으세요

새미치과에서 아름답고 건강한 웃음을 찾아드립니다.

대표원 이주영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석사학위
- 대한치과임플란트학회
- 대한치과임플란트학회

새미치과 임플란트 치아미세 자주치로 상미브릴 어벤저로

휴람 1주년 기념 특별가 이벤트

에피끄 에스테틱 특별할인

에피끄 에스테틱이 특별한 이유!

최신 미용기기 사용
1:1 전문관리와 프리미엄 품질
동안 미소 스킨 케어 마사지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관리사

스페셜 힐링 케어 - Facial care + Healing back care - 120 min 79만원 → 15만원	스페셜 힐링 스킨케어 케어 - Healing scalp care + Facial care - 120 min 50만원 → 16만원	스페셜 슬라임 케어 - Facial care + Slimming leg care - 120 min 50만원 → 20만원
진심 홈에스틱 아로마 케어 - 아로마 컨설팅 + 린넨보습케어 30만원 → 26만원	진심 고풍마 케어 - 고풍마 컨설팅 + 린넨보습케어 30만원 → 30만원	나더프는 모든 지혈수 50% 할인 에피끄 내이그는 모든 지혈수 50% 할인 에피끄 내이그는 모든 지혈수 50% 할인 사망의 위험 없이 진행됩니다



윤희경
보스톤봉사회

시니어 Sex 장애 외면하는 메디케어

미국에서 65세 생일 선물은 메디케어이다. 이 건강보험은 5천만 시니어의 세월따라 쇠약해지기만 하는 건강을 보살피 주는 든든한 받침목이다. 그런데 지난 7월 1일부터 발기부전증(Erectile Dysfunction: ED) 환자에게 쓰이는 진공펌프(Vacuum Erection System 이라고 함)를 보험혜택에서 제외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이 펌프는 진공을 이용하여 피를 페니스로 모이게 하여 발기가 되도록 하는 비교적 간단한 의료기기로 페니스펌프라고 부르기도 한다. 비뇨기과 의사들은 펌프가 좀 어색, 불편하고, 때로는 로맨틱하지는 않을 수 있으나 실용성이 있다고 한다. 2006년부터 6년간 4십7만 대의 펌프 혜택을 주어 메디케어 가 1억 7천만 불을 지출하였다고 한다. 대당 평균 가격이 360불 정도가 된다. 알당 38불인 비아그라 (파이자 회사자료)와 장기적으로 비교하면 훨씬 싸게 드는 이점도 있다. 페니스펌프 혜택 중단 소식은 ED 환자에게는 앞친뿔 격이다. 왜냐하면, 지난 2006년부터 미국 의회가 발기부전증에 쓰이는 ED 처방약 (비아그라, 시알리스, 레비트라)을 메디케어 파트 D (일명 처방약 보험)에서 금지했기 때문이다. 당시 메디케어가 ED 처방약에 매년 2억 불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 것이

그 제외 이유의 하나가 되었다. (메디케어 21015년도 예산은 약 5천2백억 불이다. 일인당 약 12,000 불이 소요된다)
시니어의 성활동 정도는 나이가 들며 줄어들기는 하더라도, 성활동을 하는 비율이 전문가나 일반인들이 추산하는 것보다 훨씬 높다고 한다. 인디애나 대학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60대 남자 중 40%, 그리고 70대는 28%가 지난 한 달 중에 정상적인 성활동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 수치에는 다른 형태의 성활동은 포함되지 않았다. (참고로 14세 부터 94세 중에 게이는 8%, 레즈비언은 7% 라고 한다.) 최근의 피츠버그대학(Univ. of Pittsburgh) 조사에 의하면 60대 여성 50%, 70대 20%는 지난 6개월 중에 성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성이 성적활동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파트너가 없다는 것이었다. 파트너가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이 각각 68%, 41%로 높다. 왕성한(?) 활동의 간접 증거는 시니어 성병검사 횟수가 대장내시경 검사 횟수와 비슷한 년 2백만 건이 넘는다는 것이다.
예상밖의 높은 성활동에도 불구하고 ED 처방약을 금지한 법안을 제안한 아이오와주의 공화당 하원의원 스티브 킹의 변을 들어보자. "메디케어는 생명을 구하는 약품을 제공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납세자에게 "당신이 오버타임까지 하며 번 돈으로 할아버지 비아그라를 사주겠다고" 말할 순 없다. 아울러 "섹스의 목적은 단 2가지다. 하나는 생식목적이다. 따라서 메디케어는 불임치료도 보조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생식에 예산을 쓰지 않는다." 두 번째 이유는 리크리에이션이다. 여하한 리크리에이션 용약품, 환각제든 ED든지 간에 보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 통과 당시 강간범과 여타의 성범죄자들이 ED 약을 정부보조로 사서 범죄를 저지른 뉴스에 여론이 떠들썩하여, 법 통과가 용이하였다.
물론 법안을 반대하는 이들도 만만치는 않다. 특히 1998년 비아그라 판매로 대박을 터트린 파이자회사는 ED는 전립선암 수술, 당뇨, 우울증 등의 병으로 발생한 것임으로, 수십만의 시니어 ED 환자에게 비아그라를 처방하는 것은 올바른 처치라는 것이다. 워싱턴주의 인스리 하원의원은 "ED 처방약을 금지하는 것은 마치 시니어가 골프를 계속 즐기고, 피아노를 칠 수 있도록 돕는 관절염 약을 제외하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약간 부끄러운 요소도 있기는 하나, 젊음에서 아직 조금은 남아 있는 섹스가 덜 필요하다는 주장을 이해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사실상 메디케어 혜택은 일관성 있게 책정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보청기와 치과에 대한 보험혜택은 없다. 반면 유방암으로 인한 유방절제 후의 유방 복원 수술은 생명과 전혀 관련되지 않았으나 혜택이 있다. 개인에 따라서 펌프보다는 보청기가 더 필요할 수 있다. 게다가 요즘은 "시니어데" 하면서 경시를 받는 세상이다. "시니어가 무슨 발기?" 하는 투가 대부분일 것이다. 정부재정도 적자 투성이어서 "이런 데까지 혜택을" 하며 부정적이다. 따라서 시니어의 섹스가 푸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ED 처방약과 펌프 보험혜택이 없다고 하더라도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 펌프는 개인적으로 온라인에서 200불 정도로 구매할 수 있어 부담이 크지 않다. ED 처방약 대명사인 비아그라는 캐나다에 특허가 없어 성능 면에서 대등한 복제(제너릭) 약을 싸게 구매할 수 있다. 미국에서도 같은 복제 약이 2017년 말에 판매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비록 훨씬 비싸기는 하나 메디케어가 부담하는 임플란트 삽입 수술도 고려하여 볼 수 있다.
ED로 인한 모든 불편은 건강을 지켜온 자신의 자랑스러운 응보입니다.

해피돌상

고품격 전통상 대여 (백일상, 들상)
 한국보다 더 한국적인 품격할 전통상차림,
 소중한 내 아기에겐 한국의 미를 보여주세요!
저렴하고 무심하게!

- 품격을 더하는 화전도 현수막
- 다양한 수공예 소품들

- 열매의 마음으로 만든 기지귀 케이크
- 국내산 유기견사와 찬기, 공기

- 화려하고 우아한 나비꽃더
- 풍성한 상차림 세트

문의 Happydolsang@gmail.com

POSPay

worldpay

작전타임 한번 불러보시죠?

사업도 성공하기 위해선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타이밍이 지금입니다.



본촌: Allston



돼지꿈: NJ



Mr. Sushi: Arlington



VIP Nails: RI



Queens Nails



Great Nails: GA



My Cleaners: CT



Classic Cleaners: Boston



Professional Cleaners: GA

<고객 절약 사례>

- 본촌: 20% 절약
- 돼지꿈: 16% 절약
- Mr. Sushi: 19% 절약
- VIP Nails: 22% 절약
- Queens Nails: 24% 절약
- Great Nails: 37% 절약
- My Cleaners: 41% 절약
- Classic Cleaners: 13% 절약
- Professional Cleaners: 23% 절약

www.pospay24.com



Agent / 상담원 모집

TEL **617-466-2212**

TOLL FREE **888-604-2190**

150 Eastern Ave #2FL Chelsea, MA 02150



사업의 시작은

Lee Associates

이경해 부동산

1.800.867.9000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비즈니스 용자 알선:25% 현금다운, 크레딧 700+
상가건물,콘도,아파트건물 투자하실 분 환영
1031 Exchange(상가건물세금혜택)서비스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E2비자 사업체 전문,비즈니스 무료상담
크고작은 세탁소들,런드로맷(Laundromat) 많은
주유소,식당,편의점,주류판매점등 다양한 사업체
항상 리스팅 80-100 보유

Cell.....508.962.2689
Tel.....781.297.5679
www.leebrokers.biz
Email..kayleebrokers@aol.com

뉴햄프셔 남쪽 고급동네들, 풀 플랜트, 연매상 \$550,000
드랍스토어(연매상 \$345,000 / \$180,000) 각각 매매가능, 좋은위치

보스톤 서쪽(RT.2) 드롭가게 연매상 \$200,000

프로비던스(로드아일랜드) 동양식당 연매상 \$330,000 브라운대학 근처

보스톤 북쪽 드롭가게 연매상 \$208,000 고급동네

급매매, 네슈아 뉴햄프셔,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120,000

동양그로서리 연매상 \$700,000 - \$900,000 여러장소

버몬트 남쪽 동양식당 연매상 \$390,000 Beer&Wind 면허증, 34년간 지속 영업
매매자 소유 건물 - 좋은 리스

보스톤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500,000 소유자 은퇴

보스톤 북쪽 일식식당, 연매상 \$700,000 Beer&Wine 19년 만에 소유자 은퇴

보스톤 남쪽 Meat+컨비니언스+로터리, 연매상 \$910,000+

보스톤 북쪽 런드로맷+부동산+임대수입 유닛, 매매가격 \$529,000

보스톤 서쪽(I-495)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500,000 고급동네

일식식당 풀 리커 면허증, 연매상 \$700,000 고급동네

드롭 스토어, 연매상 \$165,000 고급동네

드롭 스토어 보스톤 서쪽, 연매상 \$310,000 연매상 \$270,000 각각 매매 가능

동양식당 변화한 푸드코드, 연매상 \$360,000

보스톤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50,000+ 새 기계들, 부유한 동네

뉴햄프셔 세탁소+런드로맷 연매상 \$120,000 18년만에 은퇴

섬머빌 지역 런드로맷 연매상 \$115,000 좋은 렌트

네일살롱 매매, 여러장소 고급동네들 연매상 \$70,000 - \$910,000

보스톤 서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80,000 이상 소유자 은퇴

런드로맷, 여러 장소, 다양한 규모, 연매상 \$60,000 - \$180,000

커피 카페, 캠브리지 하버드 법대 근처, 매매가격 \$99,000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소유자 은퇴

세탁소 뉴튼지역, 연매상 \$180,000+ 매출 계속 증가, 내부 리모델 완료

드롭오프 스토어 연매상 \$155,000+ 부유한 동네



보스톤 교육원

명문 중.고.대학 진학상담및 수속

전문적인 맞춤형 진학상담
최고 에세이 편집자
최고 권.험적 입학 담당자 상담

섬머/윈터 프로그램

전문적인 관리및 실질적인 프로그램
MIT/Harvard 특별 프로그램
다양한 주말 프로그램

가디언 업무

수시 교사 면담및 성적관리
아카데믹 로드맵 작성및 실행
다양한 경시 대회준비, 섬머및 교외 활동

2015 여름방학 프로그램

I. SAT I (Old, New)

- 기간: 6.22~8.21
(8주단위, 8 sessions)
월~금요일 수업
- 특징
 - 9시간의 수업을 포함한 통일프로그램(9:00~5:30)
 - 최고의 전문 강사진
 - 엄격한 학생및 학사관리 (home work, 단어 test, 매일 test결과보고서 발송)
 - 다양한 선택 가능성

II. College App Essay

- 기간: 7.13~8.21
(2주단위, 8 sessions)
- 수업: 주 3일(2시간)
- 강사: 16년 이상의 감외경력 에세이및 교정 전문가
- 수업내용
 - Common App 에세이 주제
 - 자신에 가장 적합한 주제선정과정 표현법
 - 완성도를 높이는 교정법

III. 저학년을 위한 Writing Class

- 기간: 7.13~8.21
(8주단위, 2 sessions)
- 수업: 주 3일(2시간)
- 특징
 - 다양한 장르별 글쓰기 수업
 - 오랜 경험의 writing 전문가
 - 문법및 어휘력 향상

상담전화:
339.234.5255~7

Korean Education World, Inc.
보스톤 교육원

128 Wheeler Rd. #301, Burlington, MA 01803
Tel.339.234.5255~7 / Fax.339.234.5258

www.bostonedu.org 문의: info@bostonedu.org
수업문의: academic@bostonedu.org